

목 차

일정

개회사 차 인 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정 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축사 권 영 자 장관 (정무장관 (제2)실)

제1일

* 기조강연 :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상 (고영복 소장 (사회문화연구소))

* 주제 1 :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발표 : 한 경 혜 교수 (서울대 농가정과)

토론 : 안 병 칠 교수 (한양대 사회학과)

* 주제 2 :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

발표 : 강 대 근 원장 (유네스코 청소년수련원)

토론 : 최 윤 진 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주제 3 :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가족

발표 : 손 승 영 강사 (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신 화 용 교수 (덕성여대 가정관리학과)

* 주제 4 : 폭력이 없는 가족

발표 : 윤 진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토론 : 남 정 현 교수 (한양대 의대 신경정신과)

* 주제 5 : 공동체적 삶을 향한 가족

발표 : 변 화 순 책임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토론 : 장 경 섭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제2일

* 발표 : 가족의 현황과 전망 (장 현 섭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례발표 및 토론 :

독신가구/노인단독가구/편부모가족/재혼가족/입양가족/공동체가족/편부모가족

* 종합정리

* 부록(번역)

1. 가족사안들

2. 가족의 유형과 기능

세미나 일정

4월 27일(수)

09:00 ~ 09:30	등 록
09:30 ~ 09:40	개회사 차인석 사무총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정자 원장 (한국여성개발원)
09:40 ~ 10:00	축 사 권영자 장관 (정무장관 (제2)실) • 사 회 : 박 정 은 수석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10:00 ~ 10:30	기조강연 :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상 발 표 : 고영복 소장 (사회문화연구소)
10:30 ~ 11:30	주 제 1 :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발 표 : 한경혜 교수 (서울대 농가정과) 토 론 : 안병철 교수(한양대 사회학과)
11:30 ~ 12:30	주제 2 :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 발 표 : 강대근 원장(유네스코 청년원) 토 론 : 최윤진 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2:30 ~ 14:00	점심식사 • 사 회 : 전 병 재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14:00 ~ 15:00	주제 3 :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가족 발 표 : 손승영 강사 (연세대 사회학과) 토 론 : 신화용 교수 (덕성여대 가정관리학과)
15:00 ~ 16:00	주제 4 : 폭력이 없는 가족 발 표 : 윤 진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토 론 : 남정현 교수 (한양대 의대 신경정신과)
16:00 ~ 16:15	coffee break
16:15 ~ 17:15	주제 5 : 공동체적 삶을 향한 가족 발 표 : 변화순 책임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토 론 : 장경섭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17:15 ~ 18:00	종합토론

4월 28일(목)	
13:00 ~ 13:30	등 록
	• 사 회 : 오 숙 회 감사 (인하대 여성학과)
13:30 ~ 13:50	발 제 : 가족의 현황과 전망 장현섭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50 ~ 15:20	사례발표 및 청중토론 I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재혼가족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7:10	사례발표 및 청중토론 II 공동체가족 입양가족 편부모가족
17:10 ~ 17:30	종합정리

개 회 사

1994년 세계 가정의 해를 기념하여 오늘 많은 관계 인사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학술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둘이켜보면 제 44차 유엔총회에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한 이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수많은 민간단체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각 대륙별로 이를테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 세계 가정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1월에는 아프리카 말타에서 세계 각국의 비정부간 기구가 중심이 된 대규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에 제출한 세계 가정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다도 세계 가정의 해에 세계인들의 이목과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보편적인 기본단위로서 가족구성원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중요한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며, 인간의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전달하는 능동적 단위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소중한데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가정의 문제는 가족구성원들의 문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유엔이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한 것도 정부와 대중들에게 가족문제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처한 상황, 곧 지구를 과열로 이끌지도 모를 환경문제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독무대가 될 세계시장의 개방화는 인간의 삶을 더욱 더 경쟁적이고 대립적으로 만들어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조명할 강력한 필요를 느꼈으며, 인류라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 온갖 사회문제의 원초적 형태가 내포되어 있는 가정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량 인구이동과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가족제도는 급속하게 해체되고 핵가족 중심의 가족생활이 정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동향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차츰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현실과 기존의 가족에 대한 의식사이에 간격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의식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한국여성개발원과 공동으로 「열린사회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학자들의 발표 및 토론의 마당과 사례발표의 마당 등 두 마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모임의 특기할 점은 둘째날의 사례발표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상적인 가족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여러 가족들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리라 봅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를 여성과 가족문제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 경험을 가진 한국여성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가족문제 해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27일

유 네 스 코 한 국 위 원 회

사무총장 차 인 석

개 회 사

존경하는 권영자 정부 장관님,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 사례발표를 해주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은 '94년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열린사회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엔이 '세계가정의 해'를 선포한 기본 목적은 가족이 미래의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각 국가가 연구 및 세미나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방,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결집된 노력이며, 가족을 사회의 핵심체제로 보고, 가족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며, 이러한 쟁점들을 풀어갈 활동을 시작하고 실행시키려는 정부, 민간, 자원단체 및 UN 기구와 정부간 조직들과의 공동노력의 결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족은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의 가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구성원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성과 연령에 따라 가족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서 오는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첫째날에는 먼저 열린 사회에서의 미래가족의 모습을 조망하고, 부부, 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측면에서 가족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구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 및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날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모색해보는 뜻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집니다.

'가정의 해'의 행사가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미래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미나가 실질적인 결실을 얻어 우리사회의 가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인석 사무총장님과 실무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27일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장 김 정 자

축사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오늘 한국여성개발원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차인석 사무총장님,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정자 원장님과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 선생님,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점을 정리해 봄으로써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줄 압니다.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가족의 구조가 변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또한 견잡을 수 없이 변해가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가족을 조명하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시각에서 「열린사회와 가족」을 주제로 부부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노인의 문제를 살펴보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전망해 보는 것은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유엔이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각국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은 사회구성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이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감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캠페인 전개, 가족의 권리와 가정내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실시, 남녀의 가사역할 분담을 위한 가치관 모색, 위기가족을 위한 현장연구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 가정의 해'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제2장관실에서도 '세계 가정의 해'를 계기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문화를 창출하고 가족내에서의 민주적 사고와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평등한 부부」를 선정,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부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와 보험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참석자 여러분 !

오늘날의 가정이 과거의 가정과는 달리 그 의미와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가정의 기능을 상당부분 사회가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내에서 고유하게 수행되어야 할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가정이야 말로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유지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가족문화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족형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족구성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합리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병폐 중 하나인 가족이기주의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높은 지식과 경험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마음을 굳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무장관 (제2)실
장관 권 영 자

기조강연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상

고 영 복 (서울대 명예교수)

1.

한국사회는 변하고 있다.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있다. 그것을 몸소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가족의 변화는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가족의 기능이 많이 변했고 가정생활의 모습이 변했고 가족 속에서의 생활의 양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은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었고 사람들의 행동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오늘의 한국의 가족은 옛날의 가족은 분명히 아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됨으로써 옛날의 가족형태로서는 생활이 불편해지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도 적응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 우리 나라 가족의 변화상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으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 가족은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다. 옛날은 아들딸 많이 낳고 가족수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는데 요즘은 한자녀낭기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또 실지로 사람들이 바라는 자녀수도 많지 않다는 것은 여러 통계가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인구보건원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젊은 부부들의 10%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고, 20%는 한 자녀만을 갖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앞으로 가족규모는 급격히 줄어들고 옛날의 대가족주의는 무너지고 계속해서 소가족주의로 나아갈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우리 나라의 평균 가구원수는 58년에 5.7명, 66년에 5.5명, 75년에 5.0명, 그리고 85년에 4.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가족수가 4명 정도의 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가족수와 가구원수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형태학적인 입장에서는 가구원수가 가족수를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가족이 핵가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조사통계에 의하면 젊은 부부만의 핵가족과 늙은 노부부만의 핵가족이 9.6%, 부부와 미혼자녀만 있는 핵가족과 장성한 자녀들이 별거하고 있는 핵가족이 68.9%이고, 핵가족이 아닌 복합가족이나 직계 가족은 14.9%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기타가 8.0%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족의 8할 정도가 핵가족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우리 나라의 가족이 서구사회처럼 완전한 핵가족의 생활을 하고 있는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서양사회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나면 벌써 남이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거의 관계가 축소해 버리는 데 비하면 우리는 왕래도 자주 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부상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는 곳은 다르더라도 가족적인 인간관계나 정신적인 유대는 친밀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전혀 핵가족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핵가족화라는 무서운 흐름을 막을 길은 없을 것 같다. 본가에서 치루는 제사에도 모이기를 꺼려하는 형제가 나오고 묘지는 거의 공원묘지를 사용하면서 각자 편리한대로 따로 묻히기를 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형제나 친척이 더욱 각박해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에게 용돈 달라기가 거북스러워지고 있고 보면 전통가족의 미풍양속이 남아 있기는 하나 몹시 초라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화의 흐름은 더욱 가족의 규모를 축소화할 것이다. 가족의 규모가 현대사회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가족의 기능이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의 가족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등의 기능이 다른 사회제도로 옮겨 가고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자녀양육과 경제적 소비단위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정도로 왜소화해 버렸다.

특히 현대사회는 생활자원 획득의 장소가 가족밖에 없고 경제적 생산도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소비도 대량화하다 보니 가족은 생산에서 소외되고 소비에서조차 소외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의 태도를 바꾼다. 즉 개인주의를 득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우세하고 있다. 가족 속에서의 개인주의의 물결은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옛날은 가족을 위해서 개인은 웅당 희생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겠지만 나를 희생하면 가족이 잘 된다고 해도 선뜻 자기를 내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이다.

지금은 부부가 잘못되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의 주부는 그야말로 희생적인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남녀평등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분위기가 되면 주부도 용감히 반기를 든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의식도 강해져서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더러는 경제적인 능력이 남편보다 아내쪽이 훨씬 뛰어난 가족도 생기고 있다. 특히 도시사회에서는 가사결정권이 주부에 있고 재산의 관리가 여성의 손에 맡겨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속에서 남편은 무능력자이고 아내가 실권자가 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주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가족은 성립자체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자녀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은 부모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아이들이 무조건 따랐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를 찾기가 힘들다. 오히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발적으로 저리로 가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다른 집 아들처럼 호강 못해주는 부모들이 원망의 대상이 된다. 부모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없고 부모는 거추장스럽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다. 젊은이들은 아마도 가족이란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성원에 대한 가족통제의 변화가 일어난다. 옛날의 가족에서는 가부장적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효도가 권장되었고 부모의 뜻은 신성불가침의 규율이었고 행동의 절대명령이었다. 그것은 자녀의 장래를 가족이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의 직업을 부모가 결정할 수 없고 자녀의 계층적 지위가 부모의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늙은 부모의 부양은 자녀의 의무가 아니고 선택의 자유로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성원에 대한 가족통제의 약화는 가족의 사회적 기능의 축소와 유관한 것이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점점 축소일로에 있다. 심지어는 소비적 기능조차 가족밖으로 이양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가족이 갖는 옛날의 적극적인 기능은 소실된 채 새로운 기능의 발생이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적 요구의 충족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탈현대사회에서 비경제적 요인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가족의 기능이 축소하고 가족에서 담당했던 기능들이 다른 사회제도가 시설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가족은 소멸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의 성적 욕구의 충족방식이 문화적으로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인간적 욕구로 응결되고 있기 때문에 쌍으로 이루어지는 남녀관계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은 영원불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형태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 가족이 근대화해 가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국제화시대에서 초현대적이고 탈현대적인 가족의 급격한 변화도 맞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역사적 전시장 같이 전근대성과 초현대성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시련의 현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간의 가치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인데도 가족과 사회 사이에 단절이 있다. 가족중심주의 때문에 상위의 집단으로 개인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족을 위하는 것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사회와 국가는 가족을 그 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모습을 변하게 하고 과거의 대가족제도를 소가족제도로 바꾸었고 핵가족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태는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편주의가 뒤따르지 않았고, 생활의 타성에 있어서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가족중심의 이기주의는 한 마디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복합된 과도적인 산물이다. 우리 나라의 근대화과정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침투시켰지만, 그렇다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인주의화시키지는 못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활동에 대해 사회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자유의 폭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고, 국가도 개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규제를 받아 왔고 일정한 틀 속에서의 자유만이 허용되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가족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창하는 것을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개인을 보호하는 집합적 준거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국가가 규제를 행사하면서도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 애매한 혼합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항상 가족에게 의지하고, 궁극적인 보호처로서 늘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 가족만이 나를 책임지는 유일한 의뢰처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결코 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자기보호를 위한 가족중심주의로 응결되고 있다. 그리고 서구적인 개인주의를 가족을 단위로 한 집단적 개인주의로 변형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이기주의는 가족주의를 내부적 바탕으로 하고, 외형적으로는 개인주의로 장식된 한국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파트 생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가옥에서 세들어 사는 여러 가족들의 집거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옆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확연히 남이고, 형식적인 접촉은 있을지언정 마음 속으로는 남인 것이다. 사소한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싸움이 벌어지고 노골적인 대립의식이 터져 나온다. 가족을 넘어서고 이웃을 넘어서는 상위의 준거집단이 없다. 오로지 가족만이 유일 절대적 준거집단인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가끔 문제가 되는데, 이들 공직자의 마음 속에는 국가보다는 가족이 일차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의 가족이 잘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앞서고 있다. 공직도 가족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인 수단으로 생각되고, 지위와 명예도 가족적 이해 앞에서는 무력하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기주의는 족벌주의와 파벌주의를 낳고 있다. 회사조직이나 사회조직이 일가친척의 족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기주의를 깨뜨리지 않고 가족이기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집단이 족벌이고 또한 파벌이다. 보편주의 원칙 같은 것은 가족이기주의의 위협한 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공리공론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들어야 한다. 사회가 근대화되고 비농업적 직업이 확대되면 가족의 기능이 해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변동이 급격히 다가왔고 짧은 기간 동안에 치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기성세대는 젊었을 때에는 전근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도 노후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벌써 다른 분위기에 살아야 한다는 경험의 격차가 온다. 다시 말하자면, 어릴 적에는 가족주의적 기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장성하고 보니 반가족주의적 사고를 갖는 아이들과 살아야 한다는 상황의 혼란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고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노부모 봉양의 문제를 둘러싼 자식들 사이의 다툼으로 나타난다. 세대간의 갈등의 현상은 가족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부모들의 기성세대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시범자를 찾게 되는데, 부모들이 자라는 세대의 시범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父傳子傳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닮게 되고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고 부모를 보면 아이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닮지 않고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세대간의 거리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주기는 물론 어려운 일이다. 직업이 같을 수 없고 부모의 경험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자식들이 알고자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부모가 제공해 주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대화나 경험의 교환 등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가족 내에서 세대간의 대화가 잘 안된다. 長幼之序라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즉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습이 접촉을 꺼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자녀들이 성혼해서 독자적인 가정을 구성했을 때, 웬만하면 부모와 같이 생활하려 하지 않고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 데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부모도 가능하면 자녀세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노후문제는 자식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재산도 물려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경제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마음 속으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가 우리가 아니고 서로 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성세대는 아이들을 부모의 예속물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옛날처럼 부모가 전적으로 전제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나 진학, 취업의 문제 등에서 자녀를 견제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오도록 아이들을 재촉하는 강한 압력을 넣는다. 심지어는 결혼의 문제에까지 개입하고 간섭한다.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아예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다.

청소년 의식조사를 보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즉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자신들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데에 강한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세대간에 참다운 이해가 없는 것이고,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대간의 갈등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성별간의 갈등이 있다. 우리 가정에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있으면서도 여성의 지위는 현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갈망하는 남녀평등을 완전히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부부사이의 지위 관계는 천차만별이다.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형의 완전평등을 이루고 있는 가정도 있다.

성별간의 관계는 부자관계와 친족관계와 교차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성별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남성문화와 여성문화가 엄연히 재래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은 아직까지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변이에 그치고 있고 큰 줄거리는 男女有別의 봉건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의 초기에는 남녀평등의 생활방식이 지켜지다가도 후기에 오면 특히 핵가족적 생활에서 확대가족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래적 방식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남편은 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비해 아내쪽은 미국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현상은 한국가족이 갖는 문제의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여성운동이 전체여성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식자층에 국한되고 있는 현상도 따지고 보면 가족생활에서 성별관계의 실상이 영향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가족문화가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근거가 되어야 할터인데도 그것이 도리어 성별문화의 평등화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견제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우리의 가족문화는 변해야 한다. 형태도 변해야 하고 내용도 변해야 한다. 지금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면서 전체사회는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은 인간의 본성에 알맞는 형태로 변할 것이고 굳이 재래적인 것이냐 외래적인 것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고쳐 나가는 방향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말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로 가족구성의 원리가 변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가계계승적이고 조상중심적인 전통 속에서 가족을 구성해 왔고 가족이 갖는 시간적 연속성에 고루한 애착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은 젊은 남녀의 성혼으로 시작되고 노년이 되어 사망하면 가족은 소멸되는 것으로 기본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말하자면 가족은 장성한 자녀들이 생기면 새로운 가족을 파생시키고 노쇠하면 살아져 가는 한 世代의 집단적 구성물로 그쳐야 하는 것이다. 사회학에서 가족이 Community나 Association이냐의 논의가 있지만 현대가족은 점점 더 Association적 특성을 많이 가지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그것에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원래 가족은 자체 속에 Community와 Association의 양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가족에서 어느 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Association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도 없다. 가족은 전체사회 속의 소우주이고 개별적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고정관념으로서 정형화된 가족형태를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 속에서의 역할분담도 굳이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남성도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여성만 가사를 전담한다는 전통적 관념은 불식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금전적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이 있지만 이것도 어느 한쪽이 말아야 한다는 단언적 선언보다는 가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모두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역할분담이 민주적으로 혹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노년기에 이른 부모세대들이 동거하는 경우 특히 노부모세대에게 아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나 소외감은 노인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가족은 핵가족으로서의 역할분담이, 확대가족에는 확대가족 나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평화가 기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족에서 할 일이 없다든지 무위도식한다는 것처럼 사람의 기를 죽이는 일은 없는 것이다. 과거의 가족은 사회적 관습을 따랐지만 미래 가족은 집단적 균형의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기능분화가 조절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Dynamism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의 변화이다. 전통적 가족의 사회화는 철저한 敬老孝道의 중용적 성격형성에 온 가족이 힘을 기울이는 것이었고 오늘의 과도기의 가족의 사회화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立身出世형의 세속적 인간형을 기르는 데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수단지향적이고 타자지향적인 기능적 인간이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적극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는 막대한데도 아들 딸을 겨우 직장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는 얼마든지 있지만 부모가 바라는 이상형이 결코 길러지고 있지 않다. 고액의 경제적 부담을 하는 데도 그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성격형성과 무관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의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이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측면에서 가족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족은 적어도 인간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기계 문명의 질고 속에서 인간적인 해방감을 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은 인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인간관계적인 대응이나 양육방식에서의 자녀에 대한 상벌체계는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사람들은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서 자랐지만 요즘처럼 부모가 곁에서 무조건 도와주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는 자녀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책임질 줄 알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자율적 인간의 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살아남고 복잡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형성을 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오늘의 부모세대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각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가족은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가족이나 오늘의 가족은 모두가 무엇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는데 그쳤고 그 자체가 목적시되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사회적 신분체제의 유지를 위한 전통가족도 아니고 산업화과정에서의 새로운 취업인력충원을 위한 근대가족도 아니고 문화향유의 장소이고 독특한 문화창조의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고도 소비 대중사회에서는 소비문화의 수혜자로 가족이 그치고 있지만 미래사회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이 음악실이고 체육장이고 작업장일 수도 있고 대중문화에 항거하는 전위문화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 사회는 점점 획일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다양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사회는 개인의 다양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개별적인 욕구의 충족은 결국 가족이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의 문화적 기능은 아주 다채롭게 전개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전통적 미덕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근대적인 행동기준을 Gemeinschaft, 근대적인 행동기준을 Gesellschaft로 볼 때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그 양자의 통합된 지양으로서의 종합적 결함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가족에 비해 전통가족은 Gemeinschaft적 특색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Gesellschaft화한 서구가족은 전통가족의 친밀성과 일체감을 부러워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옛날의 전통이라 해서 함부로 버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마디로 근대적인 것은 능률적인 것이고 전근대적인 것은 정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그 어느 하나를 앞세우거나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도 능률적이면서 정서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형태에서는 근대적이고

내용에서는 전근대적인 조화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 관계에서는 근대적이면서도 집단적 관계에서는 전근대적인 혼합형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한국사회는 이와 같이 함목적적인 타협형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우리 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것 같다. 가족은 자생적이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동조절장치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사회복지의 문제도 가족에서 책임져야 하고 가족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문제에만 부조적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가족이 전채사회나 국가조직에 대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기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정치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고 가족이 변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인 분위기마저 보이고 있다. 가족은 하나의 사회집단이고 또한 개인의 생존공간이다. 집단에서 개인이 소비하는 시간을 보면 가족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미명으로 사회는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 주택을 공급하면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때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어 가족행사에서 소모되는 경제적 낭비를 줄이려 했지만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방입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여권운동이 발생하고 여성집단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자 그것을 가족문제의 영역에 맡겨 버리려는 안이한 흐름마저 보였다. 가족문제는 여성문제가 아닌 것이다. 가족은 남녀가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고 성인들의 정서적 충족의 장소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보금자리이다. 그것은 전체사회의 문제이고 또 전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문제인 것이다.

사회체제에 따라서 사회가 가족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인간본연의 정체감을 간직할 수 있는 곳도 가족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은 사회적 관심의 적극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이 생산사회를 위한 보조적 기관이 아니라 가족을 사회가 도우면서 함께 번영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는 가족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그 중요한 것을 지적하면 가족생성의 출발점에서부터 사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농촌에 노총각이 많든지 혼인할 상대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일부 독지가의 기여에 그치지 않고 광범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성혼기회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에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다. 가령 비행소년의 발생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현재 청소년 상담소 같은 것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가 해결을 맡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형무소에 가기 이전의 많은 문제청소년을 예방치유하는 일은 국가가 맡아야 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한 듯이 그것도 치유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해체과정에 있거나 해체 후의 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장장치가 있어야 한다. 홀로 남은 어린 청소년, 결손가정의 자녀들, 교육을 더 받아야 할 미성년 등, 즉 가족의 해체로 인해 웅당 누려야 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희생자들에게는 생활보호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사회사업적 수준이 아니고 사회정책적 수준의 구호조치가 강구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 아동수당 같은 새로운 한국적인 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공공적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많은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적 준비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문제이다. 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로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제 1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한 경 혜

(서울대 농가정과 교수)

1. 거시사회의 변화와 부부관계
2. 동반자적 부부관계의 개념
3.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진단 : 동반자적 관계로부터의 거리는?
4.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향하여 : 변화의 과제
5. 맺는말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한 경 혜 (서울대 농가정과 교수)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을 꼽자면, 그 표현의 강도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변화'를 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정 내 부부의 역할도 '변화'와 관련되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인 듯 하다. 예를 들면 '신세대 주부: 같이 일하고 같이 논다'(조선일보, 1994년 1월 16일자)는 식의 기사분담 새 풍속도 소개라든지,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부쩍 자주 접하게 되는 작아진 목소리의 남자들과 가정 내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드센(?) 여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글자 그대로 집안의 長으로서 명확한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 구태여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치 않았던 한국 남성의 가장권에 어떤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주변을 보면 엄살 겸 푸념을 하는 남자들을 또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현대 한국가족 내의 부부관계, 남녀의 역할과 지위는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과연 신문, 잡지 등에서 묘사하는 대로 보다 평등한 동료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계층/연령층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변화의 보편성 정도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일까?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막상자료나 문헌들을 찾아보면 우선 소문이 무성한데 비하여 부부관계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실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현대 한국가족의 부부관계를 가부장적 억압관계의 존속, 혹은 자본주의적 핵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형된 가부장적 억압관계라고 보는 시각과, 의사결정 유형이 남성위주에서 부부공동형이 증가하는 등 보다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내 부부간 역학관계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공존한다. 물 반 컵을 놓고 '반컵이나 있다'로 보는지 아니면 '반컵뿐이 없다'로 볼 것인지와 비슷한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한국가족/부부관계 변화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라는 단위로 연결된 남녀의 문제를 흔히 중층적(many layered)이면서 또한 동시에 단편적으로 연결된 모자이크적 성격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듯 하다. 필자는 이 글을 쓸 목적으로 몇쌍의 부부들을 만나보고, 최근 2년동안의 주요 일간지와 여성잡지를 뒤적이면서 현대 한국의 부부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변화에 '적응하여 변화할'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반응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사회의 변화이며 둘째는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상의 변화인데, 일상 생활에서 이 두 변화는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부부관계의 물적, 구조적 기반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가족 외적 변화가 가족 내부로 어떻게 전환되면서 미시적 부부관계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영역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다르고 남성과 여성이 변화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족 내부, 부부관계에서 긴장 및 갈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연결하여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부관계로서 '동반자적 부부'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가족 내의 부부관계에서 극복하여야 할 점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거시사회의 변화와 부부관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은 거시사회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또한 변화에 영향 받는다. 산업화, 근대화로 요약되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국가족이 가족가치, 가족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가는 이미 많은 자리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영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족 내부에서 적응의 필요성과 갈등의 소지가 있게 된다. 한국가족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양한 외형적 변화가 있었다. 자녀수의 감소를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가족주기 면에서 자녀양육기의 단축을 가져왔고, 핵가족화와 함께 한국가족은 선진국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측면은 변화의 속도가 느려서, 가부장적 요소와 핵가족 지향적인 요소가 혼재하면서 비교적 전통적인 규범체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성별 분업 원리에 기초한 부부관계가 그 대표적 예이다.

산업화에 따른 일터와 가정의 분리와 함께 남성은 도구적 역할, 즉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부양자(breadwinner)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성은 정서적 역할이 강조되는 성별 분업이 가부장적 요소와 결합되어 한국 가족 내에서도 자리잡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와 함께 여성의 영역인 가정의 사회적 비중이 축소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강조되는 '비정한 산업사회에서의 도피처로서의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아내'의 부부 중심적 가족주의가 보편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분업의 심화와 부부중심의 핵가족주의의 보편화 추세는 부부의 활동, 관심 및 책임이 뚜렷하게 격리된 결혼관계를 산출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증가시켰고, 부덕을 갖춘 현모양처 이외에 늘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과제를 여성에게 부과하게 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변화의 속도가 워낙 급격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받는 전업주부'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여성들의 고등교육 보편화와 함께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도 급증하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의 표현을 빌자면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private realm)과 남성들의 세계인 공적 영역(public realm)과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기존 성역할 분업구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우선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 과정의 변화에 그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자녀수가 감소한데다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어머니됨'은 일생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생의 한 단계'가 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필요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한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었던 상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차 두 사람의 임금소득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가정 밖의 생산활동에서 기혼여성의 배제도 그 당시 산업화와 함께 번창, 확장하던 중간 계급, 즉 경제적으로 그럴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구조에서는 혼자 벌어서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부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자아실현 의식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서 상승효과를 가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함께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을 지킨다'는 성 역할 개념은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느 한 젊은 회사원이 쓴 칼럼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여성들의 이러한 변화를 필연적으로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내 아내 직장의 한 남자 동료가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을 털어놓더라는 것이다. 이 남자는 여자는 결혼하면 자기 일을 갖기는커녕 그야말로 가정에 전념해야 하며 쓸데없는 외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결혼 전에 했던 자신의 일을 결혼한지 한참 지나 지금까지도 하고 싶어 안달이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다툼도 있었는데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가 이렇게 충고했다고 한다. "거 뭘 모르는 소리하지 말아라 요즘 여자들이 자신의 일을 갖고 그것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나도 강해서, 그 에너지는 마치 무너진 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난 물결과도 같다. 이제 남편들은 그 무너진 독 밑에서 놀란 눈을 하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이다. 성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고분고분 흘러가야지. 괜히 그 물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커다란 개구리 입을 벌리고 항의하려고 하다가는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성난 물결에 얻어 맞아서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기 십상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아내가 일찍 출근해 버리는 날이면, 샌드위치를 출근길에 사들고 와서는 사무실에서 커피와 함께 먹으며 아침식사를 때운다... 이려고 보면 나도 무너진 독 밑의 개구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른 개구리이다. 나는 이미 독이 터질 것을 예감한 개구리이다. 또한 부질없이 성난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대세의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개구리이다.' (여성신문, 1994.3.11)

여성들 자신의 의식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그리고 남성들의 기대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한 예로, 요즘 남성들이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여성을 배우자로 원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태는 신문잡지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남성들은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보다는 경제력을 갖춘 맞벌이가 가능한 아내를 더 원한다. 혼자서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함께 벌어서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FEEL.94.2)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족의 의미,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이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준비정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들이 부부라는 단위로 만났을 때, 차이에 따르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가족과 사회는 어떤 딜렘마와 도전을 안고 있는가? 미래의 부부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지향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추세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문화적 각본이 안 주어진 현실에서 부부는 신체적 성차와 문화적/사회적 성차 가운데서 빠져거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2. 동반자적 부부관계의 개념

동반자적 부부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남녀/부부관계의 성격에 대한 논의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올해 1994년을 세계 가족의 해로 제정하면서 UN이 중심방향의 하나로 설정한 주제가 바로 '동반자적 가족(partnership families)'이다. 바람직한 미래의 가족관계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예: 조형, 1993 : Barrett & McIntosh, 1982, 우에노 치즈코, 1991), '친구같은 동반자형 부부 남편이 집안일 적극 도우며 공동취미로 부부금실 다진다'(여성중앙, 93. 9)는 식으로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다. 동반자적 부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렇게 다양한 배경에서 쓰일때 이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기본적 요소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일까?

부부간의 역할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면서 동반자적 결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 Young & Willmott였다. 그들은 런던 동부 빈민가 젊은 아버지들이 휴일 아침 유모차를 밀고, 공원에서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관찰하고는 "동반자적 결혼(partnership marriage)"이 영국사회에서 지배적 부부유형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동반자적 부부란 육아와 가사관리의 주된 책임은 부인에게 있지만 남편이 이에 참여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만 부인이 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역할 분업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동료처럼 서로 돕는 부부관계를 지칭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생산영역에 진출하면서 남편-아버지가 가족 생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이들이 밝힌 이후 부부관계가 정말로 동반자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Bott(1957)는 그녀의 고전적 연구 'Family and Social Network'에서 영국의 부부관계를 '분리된 부부역할관계(segregated conjugal role relationship)' 와 '공동의 부부역할 관계(a joint conjugal role relationship)' 로 유형화하고, 두 형태가 공존하지만 점차 '공동성(jointness)'을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부의 역할관계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얼마나 직접적이고 유기적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준 이 연구에서 그녀는 '분리된' 부부관계에서는 비단 가사작업 역할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남녀간 분리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편은 동료, 친구들과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반면, 여성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친척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관찰하고 여가를 함께 보내는 대상의 성격에 있어서도 남녀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결혼이 의미하는 바, 부부생활의 내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를 지적하여 그 유명한 '남편의 결혼/부인의 결혼(his and her marriage)' 개념을 구체화한 Bernard(1964, 1972)도 Bott가 관찰한 것과 같은 유형을 미국 부부에서도 관찰하고 이들을 각각 평행형(parallel)과 상호작용형(interactional type)으로 명명한 바 있다. 2차대전 이후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변화가 공동의 부부역할 유형으로 나아가고,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가 증가하면서 부부간 친밀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Johnson 등은 최근의 실증적 연구에서 Young & Willmott가 점차 지배적 유형이 되어간다고 지적했던 동반자적/대칭적 형태, 즉 부양자 역할과 가사전담자 역할을 남녀간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공유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관찰(42%)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반면에 전통적 성역할 분업을

보이고, 여가 영역 및 시간사용 유형에 있어서도 남녀가 분리되고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는 평행형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낮아져서 27%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가사노동의 성역할 분담체계에 있어서는 전통적 비대칭성이 비교적 유지되면서도 여가를 보내는 시간, 방식에 있어서는 비대칭성을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복합적 유형이 나타난 점이다. Johnson 등은 부부간 친밀도가 높은 이들을 '분화된 동료적' 부부라고 명명하였는데, 조사대상 부부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가 '역할역전' 유형으로, 남녀간에 도구적 역할이 바뀌어서 여성이 주된 부양자였으며, 가사노동에 있어서 비전통적 성별 분업 형태를 보였으며 친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들 연구자들은 부부관계가 과거에 비해 성별역할 구분에서 융통성이 증가하고, 단위로서의 부부가 자신들의 일과 여가에 쓰는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구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을 살펴보면, 부부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가 평가하는 기준을 부부간의 역할의 분리(role segregation) 정도와 동료적/우애적 친밀감(marital companionship) 정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UN에서 제시한 '동반자적 가족'(1993)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용어가 '민주적 가족'과 동의어로서 위계질서에 기초를 둔 '억압적, 권위적(dominating family)' 가족에 반대되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동반자적 가족의 주된 특징으로서 구체적으로 협동적 구조, 평등한 권리와 권력의 사용, 성역할 개념의 융통성, 함께 하는 가족활동(family activity), 가사일의 공평한 분배, 경제적 책임의 공유, 자녀양육의 공동책임, 공동 의사결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권력이 한 사람(주로 남성)에 집중되어 있고, 성역할 분업에 의하여 가사일, 자녀양육, 의사결정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가족공동의 활동이 없고 변화에 저항적인 가족을 권위적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UN의 접근과 유사하게,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민주적' 혹은 '평등한' 부부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성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여성학자 Kimball(1983)은 평등한 부부들의 관계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150여쌍의 부부들을 심층탐색한 바 있다. 그 결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들의 공통된 특징은 권리, 책임, 의무를 공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하여 높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책임의 공유란 부양자 역할, 가사노동, 육아, 의사결정에 있어 성별 분업체계에 기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서로 분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가사노동이 자동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되지 않고 따라서 남편이 함께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즉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imball은 평등한 부부는 남편과 부인이 속한 사회적 세계나 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권력, 책임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부부로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결론 지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구와 상이하고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태도, 기대에 있어 차이가 나는 한국에서는 동반자적 가족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우리나라 가족의 가부장적 성격을 진단하고 이의 극복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조 형(1993)은 자본주의와 우리나라 가족의 가부장적 성격이 어떻게 결합되어 남녀의 삶을 규정하고 제한해왔는가를 진단하면서 '권력에 기초한 권위적 가족보다는 모든 가족원이 사랑과 정서로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으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한국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가부장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조합, 변형되어서 여성이 억압받는 측면과 역할부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계로부터의 극복을 평등한 부부로의 변화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앞에서 고찰한 서구에서 제시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 민자(1992)는 여성들에게 직접 평등한 부부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여 현대 한국의 보통 주부들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탐색한 바 있다. 한국 부부들의 평등성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미리 짜여진 연구자의 분석틀을 그냥 적용하지 않고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려 한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에 속하는 기혼여성 332명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우리나라 부인들 역시 평등한 부부관계의 기준을 의사결정권, 경제적권과 같은 권리와 가사노동, 육아등에서의 책임을 공유하는 정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서구의 부부들이 권리와 책임의 공유를 구체적 권리주장이나 책임 분담으로 표현하는 반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인격존중'을 가장 강조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

'동등한 의사교환' 등 추상적 개념 속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우리나라 부인들이 부부의 평등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 대우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현대 한국 부부 관계의 진단 : 동반자적 관계로부터의 거리는?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부부가 얼마나 동반자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과연 얼마나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친밀성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접근될 수 있겠다.

최근의 신문, 잡지들을 뒤적이나 보면 변화하는 부부관계를 다룬 보도,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잡지들은 이와 관련된 기획기사들을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기사들의 제목을 몇가지 예로 들자면, '신세대 주부 같이 일하고 같이 논다'(조선일보, 94. 1. 6), 남편과 친구처럼 동등하게 지낸다 - 설거지, 청소는 남편이, 빨래, 육아는 아내가. 친구들 모임에 꼭 부부동반으로 참석'(여원, 93. 2.), '신세대 남편들의 아내 사랑법: 장보기를 돕는다: 남자가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여원, 93. 1), '달라진 여성. 달라지는 사회: 젊은 부부가사분담 새 풍속도-집안일 절반씩 나누고 아기보기도 교대로'(한겨레), '요즘 부부 - 생활비는 분담, 각자지출 불간섭'(조선일보, 93. 1. 1), '수입은 각자 챙긴다'(조선일보, 94. 2. 13), '친구같은 동반자형 부부:남자·여자일 구분짓지 않고 형편 닿는대로 가사분담', '서로 프라이버시 존중하고 가사돕지만 각자의 재산은 명확히 구분'(여성중앙, 93.9) 등 부부관계의 변화를 다루는 기사들이 가히 홍수를 이룬다고 할 정도이다. 이들 기사들은 주로 '가사분담' '경제권 공유' '여가 공유'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성역할 경계의 완화와 여가활동에 있어서 Bott가 지적하였던 남녀간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들임을 볼 수 있다.

과연 한국 부부는 매스컴에서 떠들듯이 동반자적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여자가 공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남편/아버지가 가족생활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단순하고 낙관적인 견해가 우리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없이 그냥 매스컴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성한 논의가 행동의 변화보다 앞서 있고, 특정연령층/계층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확대되어 가시화되면서 변화의 양, 보편성 정도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지는 것 아닌가? 기사내용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

맛벌이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 남편의 부엌 출입이나 가사일은 당연한 몫이 되었다. 그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남자의 체면을 깎는 일로 여기는 신세대 남편들은 거의 없다. 술선수범해서 자연스럽게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남편들도 많다. 아침 저녁으로 당번을 정해서 식사준비를 하고, 아내가 회사일로 늦는 날은 먼저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부부관계도 허물없고 자연스러운 친구관계처럼 동등해져서 아내들의 모임에 거리낌 없이 참석하는 남편들도 많아졌고, 모든 의사결정도 부부가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내리는 등 결혼생활 방식이 기성세대의 구조와는 차이가 많다.(FEEL, 94. 2)

그런데 신문이나 잡지의 이러한 기사는 그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변화되는 부부상을 대중에게 가시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부부관계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부부의 모습을 실제보다 더 평등한 유형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앞서가는 대중매체에 의하여 부부관계가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 필자가 만나본 주부들은 대부분 '요즘 부부들은 많이 평등해졌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남편은 '아이도 잘 봐주고 가정을 중시하는 요즘 남자'들에 비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을 물으면 '요즘 그렇잖아요 다들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하는 식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남자'들 이미지는 신문, 잡지에서 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에 나가는 남자들'이나 '같이 일하고 같이 논다'는 남편들일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의 평등성 정도에 관하여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우리 앞 세대와 비교하여 평가하곤 한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남편들이 가정적이 되어간다는지 하는 일상적인 인식들은 많은 경우 이러한 역사적 준거(historical frame of reference)에 기준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당연히 누렸던 특권을 포기, 양도해야 하는 경우 때문에 남자들은 '못살겠다'고 엄살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사적 영역이 역사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남성이 가정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을 남자들은 여성의 지위는 '높아지고' 남성의 지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며 따라서 변화를 보는 시각이 남성이 더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비교 기준이 소위 '실용적 준거틀(pragmatic frame of reference)'이라고 불리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가'하는 기준이다. 말하자면 '다른 남편들에 비하면 우리 남편은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식의 해석에 있어서의 기준을 이야기한다. 이런 측면에서 매스컴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활자화된 이러한 보도나 TV화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평등한 부부의 모습은 그 정확성, 즉 우리사회에서의 일반성, 보편성 여부를 떠나 엄연한 사회적 실체로서 부부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부가 얼마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신문, 잡지등의 대중매체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평등한 부부상이 우리 부부들의 일반적 모습은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면 현대 한국사회의 부부관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경제생산활동 참여로 인하여 여성들의 삶은 급격히 변화하였지만, 자녀양육과 집안일이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고 본다. Ogburn이 이야기한 소위 문화지체 현상이다. 이러한 예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반자적 부부상을 다루는 신문, 잡지의 기사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느 여성지에 동반자적 길을 가는 부부로 소개된 문인부부의 이야기를 필자가 발췌, 정리한 것이다. 그 잡지에는 이 부부의 이름과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이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들의 직업도 '문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남편은 교수이자 문인, 부인도 문인. 출판사를 공동 운영 남편은 대학 강의 때문에 책을 만드는데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인이 출판사의 XX실장이지만 편집, 배본,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 유치까지도 하는 '전천후 사원'이다 그러나 월급은 한푼도 받지 않는다. 남편은 "언젠가는 아내가 농담처럼 '참 잘도 부려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고 이야기하였다. 부인은 새벽 5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고 나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집안 청소를 하지요. 나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 아침시간은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있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쁜 걸요?"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맞벌이 일 경우 가사도 분담해서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내 경우는 그것이 잘 안된다. 당연히 집안일은 아내 몫이라는 남편의 사고방식도 한 원인이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그걸 원치 않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남편이 직업이 교수다 보니 집에 들어와서도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가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담해야 한다. 나 역시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다보니 요즘은 집안일이 힘에 부칠 때가 많다. 그러나 어찌랴. 현실이 그런걸. 나는 가정부를 두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모든 집안 일은 내가 다 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가끔 도와줄 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래도 공부에 지장을 줄까봐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손을 안 빌리는 편이다. 이 부부의 경우는 한국가족에 있어서 부부관계/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행동 측면에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과 변화된 부분이 혼재하면서 그 결과가 여성의 '슈퍼우먼적(?) 역할과다'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은 전적으로 부인의 책임이며 이는 남편과 부인 양측의 전통적 성역할 분업 태도에 의한 것이다. 부인은 이에 대해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이를 변화시켜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 내가 집안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인으로 활동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준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인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여 몇사람의 몫을 수행하면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인의 생산활동을 '남편의 비즈니스를 돕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이다. 부인 자신은 가사일에 대한 기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일이 힘에 팔려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기' 싫고, 다른 가족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역할 수행에 지장을 줄까봐 사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가족 외적 영역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함께 하는 동반자적 부부'라면, 이러한 관계가 가족 내부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구체적 문제의 양상은 이 부부의 경우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가치관과 행동의 지체가 혼합되어 여성의 일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 내에서의 문화지체 현상은 어떤 부부들에게는 갈등,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변화된 부분과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만나 부부간에 긴장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필자가 1990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경기도 지역 모임에 후계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가족에 관한 강의를 부탁받고 참석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벌써 몇년째 포도밭에 약을 칠 때쯤 되면 어김없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항상 남편의 의견에 따라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해에는 부인도 자기의 주장을 쉽게 굽히려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이 부인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약을 사용한 이웃집의 소득이 이 가정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었다. 소득에 관한 일이고 이웃의 뒷받침 자료도 있었고 해서 부인이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자 그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남편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인이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설왕설래가 꽤 오래 진행되었던 모양인데 도중에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엉뚱하게도 "당신 여자가 그 머리모양이랑 하고 있는 꼴이 그게 뭐야? 여자답지 못하게!" 였고 이 말다툼은 그 해에도 남편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고 한다. 이 부인은 "선생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하고 몇번을 반복해서 외쳤고, 나는 부인의 그 한마디에 이 부부의 역학관계의 현주소와 부인의 불만의 내용을 압축하여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30여명의 후계자 부인들 거의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필자를 향하여 쏟아 놓았던 이야기는 '집에서 예쁘게 치장하고 애들 돌보고 남편 기다리는 그런 여자다운 부인을 원하면 우리를 농사일은 왜 그렇게 많이 시키느냐?'하는 것이었다. 농촌의 경우 연령별/성별 선택적 이농현상으로 현재는 여성노동이 가족농적 생산구조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농업 생산영역에서 '적극적 동업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다운,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라는 양립하기 매우 어려운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영역간 문화지체와 남녀간 지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다. 농촌주부들은 막연하게나마 이런 이중부담, 상반되는 기대가 부당하다고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막중한 양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여자답지 못하고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글은 한 젊은 회원이 '결혼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쓴 칼럼의 일부분이다. 글 서두에서 그는 요즘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사고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몇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요즘 여성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분담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화적 속성이나 성의 역할을 볼 때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편들이 알아서 가사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실망을 덜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개발에는 관심도 많고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여성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차라리 가정주부의 역할이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타당할지 모르겠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성 본연의 역할은 가정주부이며 남편들의 집안일 참여는 남편들의 호의에 의존해야지 그 이상의 기대는 우리 실정에서 지나친 비현실적 요구라고 보는 이러한 견해가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이 여성과 여성의 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아닌가 한다. 여성의 경제참여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가족 내부로 투영되어 남성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저항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 잣대의 이중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의 삶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 내부로 전환되려는 시도를 '여성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판해 버리는 것이다.

다음의 글은 어느 신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역시 부부간 남녀 역할에 대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이중적 시각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해준다. 어느 젊은 작가가 쓴 컬럼인데, 마찬가지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후배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그 중 일부를 보면,

"생활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아이를) 애기엄마한테 맡길텐데" "그건 남자들 생각이지. 제수씨 생각은 다를걸." "집사람 생각이야 다르겠지요. 어떻게 다른지는 말을 꺼내봐야 아는데 내 별이가 뻔하니까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 모르지요. 전업주부의 희망이 있는지." 직업이 그럴 듯하고 별이가 신통해야 남자들은 기가 살고 큰소리를 칠 용기를 얻는다.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진보적이라도 이런 질서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형 우리 동네 탁아소에서는 탁아비를 부모들의 수입에 기준해서 매기려고 계획하는 모양이에요. 그럴 경우 부부의 수입을 합산하기 보단 엄마의

수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여자가 일 나가기 때문에 탁아소에 맡기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나는 후배의 견해에 옳다 그르다 토를 달지 않았다. 일견 근거가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후배와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여성신문, 1994. 3. 11)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생산양식의 변화가 직접적이고 주된 영향을 미친 대상이 남성이었다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의 경제적 변화는 여성을 공적 영역에 끌어들이므로써 여성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남성보다 여성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적응하는데 남성이 여성에게 뒤지게 되었고 이를 Hochschild(1989)는 '여성에게 있어 경제가 변화하는 환경'이라면 남성에게는 바로 여성이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남성은 여성이 변화하는 경제적 필요와 기호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속도만큼 빨리 '여성의 변화'에 적응하여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시사회에서의 문화지체현상이 가정 내에서 '남녀 지체(gender lag)'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편과 아이뿐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밝히는 신세대 주부들과의 토론에서 '변화하는 가족구조에서 제일 어리둥절해진 것이 남자인 것 같다'(조선일보. 94.3.5)고 토로한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는 바로 여성과 가족의 변화 와중에서 적절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한국 남성들의 지체현상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는 행동과 태도 두 영역에서의 지체로 나타난다. 여성이 밖에서의 생산영역에 참여하지만 남성의 집안일 참여는 증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태도면에서 남성들이 이 변화를 여성보다 훨씬 덜 지지하고 수용에 저항적이라는 점이다. 결혼은 따라서 이러한 문화지체가 일상 생활에서 조정, 협상되는 영역으로 가족은 '비정한 사회로부터의 도피처'(Lasch, 1977)라기보다는, Hochschild가 지적한 대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사회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주요 완충장치(major shock absorber)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 한국부부는 남성/여성의 역할, 부부관계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급격히 변화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잘 구성된 새로운 문화적 각본이 아직 없고 따라서 부부간의 조정 과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은 남편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가. 남편이나 부인들 자신들도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이중잣대를 쥐고 있는 듯하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가사일과 공적인 일에 대한 이러한 이중성의 뿌리 깊음에 주목하면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는 명백히 공식화된 부권이나 남성권위 같은 것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듯 보이지만 평등한 부부, 동반자적 부부와는 아직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남편과 집안일을 하는 아내라는 원칙은 평등한 분업, 평등한 교환관계가 아니라 남성의 이해가 지배적인 불평등한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역할공유적 가족'이라는 현대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여성학자들은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시간에 있어 전업주부 가정과 맞벌이 부부 가정간에 아주 미미한 차이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을 환기시킨다. 아내의 의사결정권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심층적으로 살펴 보면 총괄적 권한(orchestration power)을 가진 남편이 골치아프고 번거로운 일을 부인에게 인계한 도구적 권한(implementation power)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된다. Goode(1963)가 일찌기 지적했던 남자의 부정적 권위(negative authority), 즉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남편이 못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인이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혹시 한국 여성은 사회 변화의 와중에서 오히려 역할 과중 부담의 어려움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인가? 한국의 부부관계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여러 영역에서의 지체현상을 그 안에 포함하고 일상 생활에서 부딪혀 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면서 현재 한국가족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긴장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힘들어 하지 않는 그야말로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려면 우리 가족/부부관계의 어떤 부분들이 극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향하여: 변화의 과제

현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를 살펴 보건데, 역할과 여가를 융통성 있게 공유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랑에 기반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의 극복과 변화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혹자는 민주적 부부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과 변화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남성의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남성, 여성, 그리고 부부 단위의 미시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극복,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 등 거시사회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누차 지적한 대로, 부부관계는 이들이 상호 연관되면서 조정되는 바로 한 가운데 자리하면서 복합적이고 중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상 남편과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논의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의 확대이다. 불평등한 부부관계 개선의 핵은 가정내 역할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정도에 관한 논의는 첫째, 가사분담 정도, 둘째로는 그 중에서도 자녀양육의 과제를 따로 고려하여 '아버지'역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살펴보는 두가지 큰 흐름으로 나누어 진다. 아버지의 적극적 육아 참여는 첫째, 자녀의 측면에서 볼 때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둘째는 남성 자신들에게도 부성의 발견, 자녀와의 일상적 유대감이라는 보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경험이라는 시각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린튼이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아버지들의 광장(Father Forum Workshop)'이라는 모임이 있다. 버클리는 여성해방운동에 자극받아 1970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남성을 위한 센터'가 설립된 곳이기도 한다. 이 모임에는 30-40대 남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들은 2차대전 후 미국이 경제적으로 한창 번창할 때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만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세대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들은 평생을 돈버는 일에 매달렸고 그것을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들은 그런 아버지 상이 사회적으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또한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자녀와의 친밀성 구축을 원하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새로운, 보다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의 내용,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곤 하는데, 이때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자주 논의의 주제로 등장한다고 한다.

사회가 남성을 '가족 부양자'로 계속 규정하는 한 남성들의 가족 내 역할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측면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남성의 직업역할 구조가 남편/아버지로서 가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직업역할이 남성의 일차적 역할로 규정되므로 남성으로서의 정체감, 자아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직업에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가족역할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득 및 지위의 극대화 즉 부양자 역할의 성공적 수행은 많은 경우 직업역할에 투자한 시간 및 에너지와 비례하므로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전문직, 관리직의 경우에 성공은 승진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증가하는 책임의 수용, 긴 작업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 야간근무등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율성의 합리적 추구 및 노동력 극대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적, 가족적 일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남성에게 있어 일은 인생의 '중심' 관심사이므로, 남성의 적극 참여를 강조하는 가족 이데올로기, 결혼에서의 '친밀성' 이데올로기와 양립될 수 없다는 관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남자들의 집안일 참여 증가를 기대하려면 우선 '남성다움'에 관한 사회적 정의, 여성들의 기대, 그리고 남성들 자신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현실적으로 직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융통성 증가 등과 같은 직업구조의 변화, 즉 사용자측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남성·여성들의 성역할 의식, 직장여건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변화 없이 남성에게 '성공은 기본으로, 거기에서 가정내 영역 참여/표현적 역할까지' 요구하는 것은 슈퍼우먼과 같은 슈퍼맨을 기대하는 것 일수도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출세는 바로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가족이념이 지배적이지만, 미미하나마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듯 하기도 하다. 직장 차원에서도, 비록 대기업에 국한되었지만, 주 중 하루를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평소보다 일찍 귀가시킨다든지,

격주나 매주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든지, 조기 퇴근제나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제(flex time)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당장 남성을 가족으로 끌어 들이는 직접적 효과는 혹시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배경 조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조건의 변화가 주어질 때, 동반자적 부부로의 변화는 이제 남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있는, 남성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배경조건의 변화도 그 핵은 남성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우선 주부들 자신이 집안일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는가 하는 여성들 자신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자들을 일상적인 집안일에 동참시키려면, 내가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여성들 스스로의 자세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는 그 일이 여자의 일이며,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여자라는 여성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들이 집안일을 거들려 해도 '잘 못하니까 아내가 싫어한다'는 변명(?)에도 이런 이유에서 반박할 근거를 잃게 되고, 나아가서는 남성들이 '집안일에 대한 무능력'을 가사분담 회피전략으로 이용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본다. 어느 여성지에서 발췌한 33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하는 집안일은 아내가 시키거나 너무 힘들어 할 때 집안 청소를 해주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설거지 하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내가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깔끔한 성격의 아내는 내가 한 일이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일을 하고 나면 아내는 '아니 설거지를 했다더니 웬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모님의 엄중하신 분부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 5개월 쯤 되었을 때 마침 손빨래를 할 것이 있어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신 장모님에게 들킨 것이다. 내 모습을 보신 장모님께서 노발대발하신 거다. 아내는 현대식 부부 운운하면서 장모님께 설명하려 했지만 장모님의 강한 어조에 눌려, 다시는 남편에게 빨래를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위의 예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부관계에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의 배경조건에 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본다. 바로 부부와 연결된 확대가족, 부모 세대들과의 연관성이다. 우리나라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는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그 기능, 정서적 측면으로는 아직도 확대가족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의 예와 같은 경우,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다면 아마 제일 먼저 표출되는 문제는 고부간 긴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남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내의 집안일을 마음대로 돕지 못한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다 그렇듯이 어머니도 남정네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남편들이 설거지를 한다. 빨래를 한다 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 하시는 분이다. 아내도 나의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나는 신문이나 펼쳐 들고 점잖게 앉아서 권위있는 남편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하지만 어쩌다 친구들의 모임에 한번씩 갔다오고 나면 아내는 '친구 남편들은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더라'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세탁기 선전에 나오는 '자! 남편들도 빨래를 하자'가사를 흥얼거리며 올해 주부들이 뽑은 최고의 인기가요라고 눈을 흘기기도 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Bott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역할공유성 정도는 부부가 사회적 관계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아서, 친족, 친지들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남녀간 역할이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최근에 Bott의 이 가설이 동양 문화권에서도 성립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Ishii-Kuntz & Maryanski, 1992), 일본에서도 이 관련성이 아주 강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과 거주지가 가깝다든지 기능적, 정서적 상호관계가 높을수록 성역할 분업에 입각한 부부역할 관계가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직 없지만, 부모세대와 관계가 밀접할수록 전통적 역할 분담체계 내에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남편의 참여 확대 보다는 친척과 같은 사적 지원망을 활용하는 경우나, 파출부 서비스등을 구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세대와의 조정작업이 동반자적 부부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인내를 가진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아버지보다 세상을 닮는다'라는 아라비아 지방의 속담이 있다지만, 노인 세대들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듯 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앞으로 한국가족에서 진정한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5. 맺는말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물적 조건에 의해 부부 중 누구라도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 인간적 관계, 동료적 친밀감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이 있으면 언제든지 짐을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는 관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접한 많은 논의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희망하는 동반자적 부부의 모습들이었다. 너무 낭만화된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비현실적 희망이라고 단언해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이 글을 맺는 필자의 희망이다. 갈길이 무척 멀구나 하는 생각은 든다.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 있는 주제라서 논의가 과일반화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거시사회적 변화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다보니 맞벌이 부부들에게 논의가 집중된 듯한 느낌이 든다.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전업주부 가정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있어 근본적 성격은 공통점 또한 크다고 본다. 계층에 따른 차이도 마찬가지로, 지면관계상 다루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동반자적 부부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모양새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각의 부부들이 단위가 되어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가야 하는 '끊임 없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박 민자, 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 한국 사회 연구회(편),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 연구소, pp71-109
- 우에노 치즈코, 1991,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이 재호, 야노 유리코(역), 뚝뚝 문화
- 조 형, 1994,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편
- Bernard, J., 1964, "The Adjustments of married mates", in H.T. Christensen(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Rand McNally & Co : Chicago.
- Bernard, J., 1972, "His and Her Marriages", J.M.Henslin(Ed.)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80, pp218-224
- Bott, E., 1957, Family and Social Network, London ; Tavistock
- Hochschild, A., 1989, "The Economy of Gratitude", D.D.Franks & E.D. McCarthy (Eds) The Sociology of Emotions ; Original Essays and Research Papers. Greenwich, CT ; JAI Press, pp95-113
- Ishii-Kuntz, M. & Maryanski, A.R., 1992, Conjugal Roles and Social Networks in Japanese Families, Paper presented at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92 Annual Meeting
- Johnson, M.P., 1992, Patterns of Married Life, Unpublished Working Paper presented at NCFR
- Kimball, G., 1983, The 50-50 Marriage, Boston ; Beacon Press
- United Nations, 1993, Partnership Families ; 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 Occasional Papers Series, No.6
- Young, M. & Willmott, P., 1957, Family and kinship in East London, London, Routledges & kegan Paul.
- Young, M. & Willmott, P., 1973, The Symmetrical Famil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토론

안 병 철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자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부부간에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며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친밀성 높은 관계"로 정의한다. 동시에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지향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 아울러 '동반자적 부부'를 이루기 위해 부부관계에서 극복해야 할 점으로 "남성의 가족역할의 참여 확대"와 "주부들 자신이 집안 일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는가 하는 여성들 자신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논평자로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동반자적 부부관계에서는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부양자 역할, 가사노동, 육아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융통성 있게 서로 분담하는 관계다. 이러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부부관계가 과연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추세"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2. 동반자적 부부를 이루기 위해 현재 한국 가족에서 바뀌어야 할 점으로 "남성의 가족 역할 참여 확대"와 "주부들 자신이 집안 일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는가 하는 여성들 자신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책임'중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해당된다. 부양자 역할을 공유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로는 남성이 주로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표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정에서 전적으로 혹은 주로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은 74% - 84%이다. 부부가 같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은 4% - 16%이고,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은 1% 6.4%이다.

3. 발표자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바람직한 부부관계로 본다. 동시에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지향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31쌍의 역할공유 커플(role-sharing couples)을 대상으로 부부간 역할공유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한 하스(L.Haas)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 (1) 부부 모두 비전통적인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 (2) 집안 정돈, 청결 상태와 관련하여 부부간에 차이가 있었다.
- (3) 가사 책임을 남편에게 위임함에 있어 부인이 주저하는 점이 있었다.
- (4) 비전통적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skill) 결핍이 문제가 되었다.
- (5) 부부가 함께 직업활동을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도 있었다. 부부중 한 사람이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한 가지 보기이다.
- (6) 직장가 가족 책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도 있었다.

- 발표자 답변

1.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하기 보다는 지향하는 추세가 동반자적 부부관계라는 것이다. 현실과 지향하는 바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과연 부정할 수 없는 추세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혹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가족은 우리가 모두 지향하는 가족일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추세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부부관계가 동반자적 관계이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지적했다.

2. 여성의 부양자 역할 공유는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현재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남성만을 부양자로서 정의한다면 그것은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못한다는 면을 지적한 속에서 충분히 여성의 부양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3. 부부관계의 긴장, 문제는 다양하다. 하스의 예는 본인의 동반자적 부부관계와 거리가 있다. 하스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예를 들어 부부간에 기대수준의 차가 있다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기대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부인이 가사분담을 거부한다 또는 남자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은 남자들이 가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책략일 수 있다. 전근의 경우에도 부인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보다 서로 한 번씩하는 평등의 개념 그리고 실제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가족들끼리 서로의 의견이 열려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역할을 꼭 반반씩 나누어서 해야 한다기 보다는 부부의 편의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나누어 할 수 있느냐, 성역할이나 이데올로기에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있다는 측면에서 동반자 가족을 보고자 한다.

4. 현재 주부들에게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설것이 해 주는 것보다 더 원한다'는 생각이 아직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조짐은 있다.

주제 2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

강 대 근 (유네스코 청년원 원장)

I. 문제의 제기

II. 현대사회의 가족현상과 청소년의 위기

1. 인간과 가족

2. 가정과 청소년

3. 청소년현상과 가정적 요인

4. 청소년의 기대와 가정의 조건

III. 「화목한 가정」을 위한 전제

IV. 결론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¹⁾

강 대 근 (유네스코 청년원 원장)

I. 문제의 제기

UN은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로 정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관심은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상실과 가족해체가 가져오는 가정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반증이며, 나아가 과학기술과 정보의 발달로 도전받고 있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보하고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새로운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대사회가 경험하는 과학과 기술문명은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나 동시에 상실과 소외로 인한 인간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세기에 인간이 획득한 근대성(modernity)은 인간을 가족과 씨족, 부족과 공동체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사회적 이동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자연을 통제하고 인간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의 과정은 발달된 제도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고립을 증가시켰으며, 나아가 개인주의의 대두는 공동체의 윤리를 파괴시켜 아노미현상을 일반화시켰다(Nisbet, 1961).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집없는 떠돌이의 실향의식'(homeless mind)을 깊이 심어 주었다(Berger et al., 1973). 결국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스스로 주인일 수 없고 이방인으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소외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결과에 대한 회의적 정서는 인간의 삶과 그 삶의 과정에서 발달되어 온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들이 인간의 삶에서 이탈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결과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투쟁을 요구하기도 하고(Pappenheim, 정문길 역, 1985), 때로는 그 제도의 해체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변화의 양면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인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가족제도에 대한 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사회가 경험하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상실이 가져오는 가족해체(family disorganization)의 현상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변화 중의 하나이다. 현대의 가족은 (1) 비합법적인 불완전가족(uncompleted family)단위의 증가, (2) 결혼의 법적 취소(annulment), 별거(separation), 이혼(divorce), 이산(desertion)등의 의도된 문제가정의 증가, (3) 대화와 접촉의 결핍으로 인한 빈껍데기 가정(empty shell family)으로의 전락, (4)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외부적인 위기상황과 질병이나 정서적 장애에 의한 내부적인 위기상황의 점증 등의 요인으로 해체의 현상을 보인다(Goode, 1961). 현대의 가족해체 현상은 인간의 삶과 제도로서의 가족이라는 형식 사이에 근원적인 갈등구조를 형성하여 인간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 현상은 성인들에게보다 청소년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가족이 갖는 고유한 기능인 자녀출산기능(reproduction)에 의하여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현대사회의 가족해체가 가져온 소외구조 속에서 상실과 고독, 긴장과 불안,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며 이탈과 비행, 가출과 자살 등의 자기파괴적 행위를 연출한다.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이라는 이 글의 주제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라는 환상적인 명제와 '가정은 오늘의 청소년들을 내일의 주인공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구조기능주의적 가족의 역할을 전제로 한 사회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오늘의 사회현상 중에서 가족해체가 가져오는 가정의 위기가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라는 문제의식과,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청소년이 자격을 갖춘 미래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정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의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는 필자가 갖는 제한적인 경험과 연구에서 비롯된다.

청소년과 가정(가족)이라는 주제가 갖는 복합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결과와 경험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고백해야 한다. 둘째는 문헌연구가 조사연구에 비하여 갖게

되는 현실성과 실천성의 부족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인식'에 그칠 위험이 많다. 물론 바람직한 문제해결은 정확한 문제의 인식과 해석 속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의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세째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위한 새로운 표현방식과 방향모색에 있어서 '새롭다'는 것이 갖는 기준과, 새로운 가치이념을 추구할 때 이것이 진실로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기 위한 새로운 지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인식은 앞으로 청소년과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이 갖는 학문적 과제이기도 하다.

II. 현대사회의 가족현상과 청소년의 위기

1. 인간과 가족

인간과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이 언제부터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최초의 인간집단에서 가족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가족행위(family behavior)는 진화론적으로 하등동물에게도 보여지며 나아가 인간의 가족행위와 같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Leslie et al., 1973). 그러나 가족개념은 원시씨족사회에서는 개인과 부모자식관계가 공동체적 삶에 매몰되어 오늘날처럼 명확하지 못하였다. 가족의 개념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혼인풍습이 생겨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절차로서의 결혼을 통하여 그 개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와 가족유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인류문명의 흥망성쇠의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나를 가장 압박하는 문제는 우리의 사회제도가운데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신비로우며 가장 유구한 것인 가족의 내구성이다. 남녀가 항상 일부일처였던 것은 아니다. 그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들 사이의 사랑은 그것이 순수한 애정에 바탕을 둔 것이든 아니면 우정의 형태를 띤 것이든,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가정은 많은 사회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은 채 역사를 통해 남았다. 어째서였을까'(「세계로 열린 창」, 1994)

이스라엘의 작가인 아모스 오즈(Amos Oz)는 가족이 갖는 내구성에 대한 의문을 위와 같이 묻고 있다. 가족은 단순히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사랑의 실천이며 가정은 창조적인 역동성에 기초한 나눔과 섬김의 터전이며 세계이자 우주이다. 전통적으로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족관계는 단순한 사회계약에 의한 집단관계가 아니며 가족이 이루어내는 가정은 체온의 교류에 의한 온유함과 사랑이 함께 하는 장소이다. 마찌니는 인간의 의무라는 책에서 가정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가정 속에서는 인자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영향에 의해서 의무의 수행을 덜 지겹게 만들고 슬픔을 순화시켜 주는 천사가 존재한다.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맛보도록 주어진, 슬픔이 섞이지 않은 유일한 즐거움이며 이것이 바로 그 천사의 덕분인 것이다. 불운한 환경으로 화평한 가정생활을 천사의 날개 아래에서 영위할 수 없었던 사람의 영혼에는 우울의 그림자를, 가슴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감을 가지게 된다(Mazini, 김광영 역, 1977).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정을 나누는 관계이며 사랑의 윤리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나아가 각 가족구성원들이 한가족 의식을 공유할 때 가족관계는 유지된다. 열려진 가족관계는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한 참된 삶'의 실천을 위한 기초이며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가정은 인간가치(human values)의 보호와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의 보존과 전수,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 계속성(historical continuity)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나아가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행동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가정의 개념은 인간의 삶을 위한 에너지를 풍성하게 공급하고 '사회적 정박'(social anchor)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안정과 평온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실로 가족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성을 지키는 보루로서 사회와 그 구성원의 건강에 기여하였고, 문화, 가치, 윤리와 부(wealth)를 보존하고, 약한 자(the weak)-주로 어린이와 노인들-를 보호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임노동(unpaid work)²⁾을 담당해 왔다. 동시에 가족은 변화에 저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편견을 주입하기도 하였다(Jo Boyden, 1993).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역사는 사회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인식되고

사회제도로 정착됨에 따라 인간의 삶을 구조화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형식이 됨에 따라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가족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켜 매우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정착된 핵가족(nuclear family)은 혼성가족(hybrid family)의 형태로 옮겨가고 있으며 동성애에 의한 결혼, 생활공동체의 실험, 노인만의 공동생활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가족형태의 선택과 실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자 제시 버나드는 '앞으로의 결혼의 특징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결혼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도 획일적이지 아니며 다양화된다. 결혼에 관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 현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다. 타인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본인들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한다(Toffler, 유 재천 역, 1981).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그의 가족과 그가 속한 집단, 그리고 그의 사회적 신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가족은 가장 믿을 만한 지지자이며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불가침의 영역으로서. 스스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고향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그들의 인간성의 형성과 사회적 삶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2. 가정과 청소년

가정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요람으로서 지지되어 왔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게 될 때까지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삶의 근거가 되어 왔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의 장이고, 일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언어, 습관, 태도, 규범,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곳이며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돕는 교육의 장이다(김 지자 외, 1992). 이러한 가정의 고전적인 역할과 기능은 청소년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인간발달단계에서 볼 때 태어나서부터 아동을 거쳐 성인기로 진입할 때까지 가족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가정은 청소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사회화와 교육의 장이 된다. 많은 연구들은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성장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성수, 1991; 김성이, 1992).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서 비롯되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책임은 많은 국제적인 선언과 규약에서 약속되고 있고 법과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³⁾의 제16조는 '적당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는 결혼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가정은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의 기초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⁴⁾은 제10조에서 가족의 보호와 지원 및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⁵⁾은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아동에 대한 특별보호와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조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의 제공, 아동에 대한 사랑과 이해, 부모의 보살핌, 교육의 권리, 무관심,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 기본법은 제6조에서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언, 규정, 법률들은 현대사회의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해체의 상황 속에서 선언적 의미 외에는 현실적인 구속력을 상실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가족의 변화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포기하거나 상실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되는 사회지표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 그리고 연구의 결과들은 인간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현상들은 청소년과 가정의 근원적인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오늘의 청소년은 집(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병원에서 태어난다.
- 오늘의 청소년은 어머니의 생명을 건 진통과 고통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학의 도움으로 태어난다.

- 오늘의 청소년은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탁아소에서 양육된다.
- 오늘의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나 TV와 함께 놀고 자란다.
- 오늘의 청소년은 그들의 문제나 고민에 대한 대화의 대상을 가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속에서 찾는다.
- 오늘의 청소년은 부모부재증(parentless complex)을 경험하며 가정내에서 역할모델을 찾지 못하며 역할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다.
- 오늘의 청소년은 가족갈등과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자살과 가출충동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보여지는 현대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이혼이나 별거, 사건이나 사고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정, 그리고 침묵이나 폭력이 지배하거나 정신질환에 의한 문제가족의 가족내적인 갈등요인을 고려하면 현대사회의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요람'이 아니라 '상실과 소외의 이방지대'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기의 연장이라는 청소년현상과 결부되어 청소년과 가정의 관계를 더욱 회의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역할유예(moratorium)에 따른 청소년기의 연장은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의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으나, 가정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청소년의 한계지위(marginal status)가 갖는 과도기적 위기를 더욱 증가시킨다.

현대사회의 가정은 오늘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난 집이 싫어. 모두가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식구 중엔 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란 말을 쓸 수 없겠지...죽일지도 몰라...더이상 견디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왜 나 혼자만 이런 슬픔을 지녀야 할까?'(십대들의 쪽지모음 1)라고 눈물어린 편지를 쓰게 만들며 근본적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원망하게 만든다. 그들은 '하얗게 파도치는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가정에 나타나는 변화와 청소년의 삶에 주는 변화의 모습은 첫째,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됨에 따라 고립화가 증가되고, 가족의 사회통합의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들에 이양되어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성인모델과 눈에 보이는 성인노동, 그리고 가족내의 동기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문화와 배치되는 또래집단들과의 결합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청소년문화의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로 근대적인 가정은 많은 고유한 기능을 포기하여 스스로 특수화된 집단으로 전락되고, 산업사회적 환경에서 증가되는 상실과 고독, 그리고 몰가치적 상황(anomie)으로 인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세째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권위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동반자적인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 역할이 수반되는 엄격한 행동은 최소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극대화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네째, 오늘의 청소년들은 가족이 갖고 있었던 가족의 지위부여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정에서의 독립은 개인의 고립을 증가시켰으며, 1차집단으로의 가족의 성격이 변하고 2차적인 사회제도들이 가족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회화의 내용과 방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Sebald, 1984).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 부모들의 행동은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한승희, 1992). 그리고 '화목한 가정'은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이며 청소년의 삶에 만족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과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3. 청소년현상과 가정적 요인

가.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상실과 소외

오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현상들은 그들의 언어와 행동 속에 투영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불안, 좌절과 방황, 상실과 소외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순응과 적응으로, 반항과 도전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일탈과 비행으로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려 한다. 사회는 그들이 기존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언어와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을 문제행동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그들 자신에게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서 현대사회의 가정은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생각을 알아본 한 조사는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부부싸움, 가족간의 불화, 부모형제의 불인정, 가정에서의 고립, 과잉보호 등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표

1)하고 있다(최윤진, 1993).

<표 1>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가정적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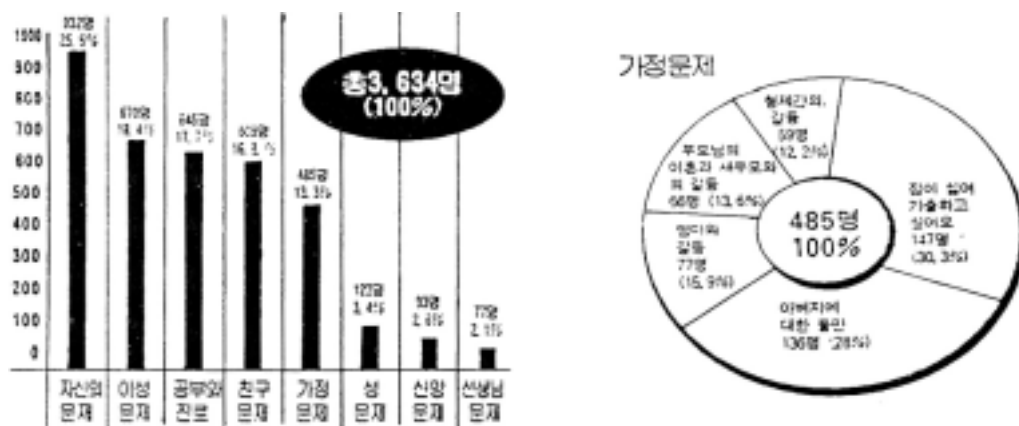
유	형	학부모	청소년
부모가 바빠서 혼자 외롭게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16.8	14.9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		51.7	47.0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		22.9	29.9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경우		6.8	6.2
기타		1.8	2.0

X = 1003.07 (P<0.001)

자료 : 최윤진,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1993, p.1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상담내용의 분석결과(그림1)에서도 그들의 고민으로 나타난다. 1993년에 '십대들의 쪽지'에 상담편지를 보내온 3,634명의 청소년 중 13.3%인 485명이 가정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문제의 내용은 아버지에게 대한 불만 28%, 엄마와의 갈등 15.9%, 부모님의 이혼과 새 부모와의 갈등 13.6%, 형제간의 갈등 13.6%, 가출하고 싶은 충동 30.3%로 나타나고 있다(십대들의 쪽지, 1994).

<그림 1> 청소년의 상담내용



자료 : 십대들의 쪽지, 아흔 네번째 호, 1994.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가정상황이 청소년들에게 갈등과 긴장을 조장하며 문제행동을 일으킬 개연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갈등과 가족해체라는 가정의 위기상황이 주는 소외구조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정속에서 경험하는 청소년의 고민과 슬픔은 그들의 편지⁶⁾ 속에 생생히 드러나고 있으며 현대의 가족현황을 잘 보여 준다.

'저희 가족은 겉으론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큰 단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명문고를 나오신 엄마, 명문대학에 다니는 언니, 직장을 다니다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둘째 언니, 저희 집안의 정성과 귀여움은 다 차지하는 남동생, 평범한 직장인이신 아빠 그리고 항상, 덤으로 불리우는 저...저 자신은 아무런 의미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이유는 혹시나 아들일까 하는 이유에서입니다...어머니가 제일 신경쓰는 것은 돈과 남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음담패설과 욕을 하십니다. 심지어 제가 처녀가 아닐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어머니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인지 생각도 안되나 봅니다. 때론 그 말 때문에 정말 타락해서 어머니 말대로 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엄마와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두 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한테 복종만 원해요. 뭘 시켜서 '싫어'하면 '어디서 싫어 하는 소리가 나와'하면서 두들겨 패는 걸요...대들 수도 없지만 대들었다간 엄마가 가만 계시지 않거든요'

'6월 00일. 시간만 나면 공부 공부다. 이러다 신경쇠약증에 걸릴 것 같다. 어제는 아빠한테 무지 맞았다. 좀더 오래 그 난리를 쳤더라면 아마 칼을 갖다주고 날 죽이라고 했을 것이다. 집이 싫다.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16년을 지냈다. 자유. 내겐 없다. 6월 00일. 난 부모와 대화가 없다. 무조건 내겐 '명령'뿐이다. 이미 비뚤어져 버린 나를 이제 나도 주체하기 힘들다. 어릴 때부터 인간되긴 클러버린 아이가, 부모에게 미움받는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정말 죽고 싶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들도 떨어진 성적에만 호통치실 뿐, 좀처럼 저의 기분이나 마음을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나에 대해 갖는 사랑은 결국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더 슬펍습니다. 무조건 나쁜 아이로만 몰리는 동안 내 마음 속엔 나쁜 생각들로만 가득 차고 전 지금도 자꾸만 엉뚱한 길로 빠져듭니다. 어쩔땐 가출을 계획하고 어쩔땐 다시 한 번 자살을 계획하면서...전 지금 불안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위기현상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가족관계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세대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동과 갈등을 경험하며, 편애와 폭력, 그리고 대화부족에서 오는 단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가정내에서의 청소년의 경험은 청소년기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과 결부되어 청소년을 상실과 소외의 아픔 속으로 몰아넣어 문제행동을 촉진한다.

나. 가정과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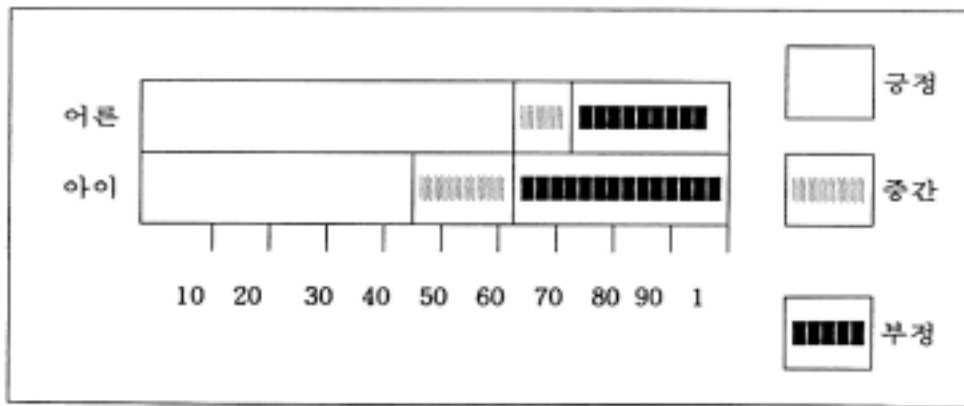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족현상 중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내의 폭력이다. 가정내의 폭력은 현대사회에 들어와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이면서 가정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폭력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

가정은 역설(paradox)의 장소로서 애정(affection)의 중심이며 역경(adversity)으로부터의 피난처(refuge)이며 동시에 폭력의 온상이 되어왔다. 가정은 인간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실한 얼굴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로서 가정 속에서의 폭력은 일반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가족의 성격상 가정내의 폭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가족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유일한 목격자는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특수성은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체면(image)이나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강요한다. 가정은 본능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이며 가장 폭력적인 장소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정은 그 가족의 행위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장소이며, 가정은 인간의 생활을 그 스스로의 불문률에 의하여 외부세계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불문률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하나의 규칙은 상호간섭(intervention)과 처벌(punishment)의 권리이다(Jean-Claude Chesnais, 1992). 상호간섭과 처벌의 불문률은 청소년 대한 가정내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부모들의 '잔소리'와 지시위주의 일방적인 명령의 언어적 폭력은 상호간섭과 교육적 배려에서 정당화되고, 별로서 주어지는 신체적 폭력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반응(그림 2)을 보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매의 사용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한승희, 1991),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내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림 2> 부모들의 벌에 대한 태도 조사

<자녀들을 위해 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자료 : 한승희,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1.

그러나 교육적 폭력의 한계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제는 가정에서의 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형성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온다는 데 있다.

'저는 올해 열여섯 소녀예요...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이 마구 쏟아 집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때문이죠. 저는 커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 되도록이면 빨리 죽을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면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아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 오면 엄마를 때리고...부모님께서 막 다투실 땐 저도 울면서 말리기까지 하면서 곁으로 표는 안내지만 정말로 아빠가 인간인가?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아빠는 칼질까지 하신답니다. 저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극단적인 '너죽고 나죽자'는 식이죠...전 웃음을 잃었어요.'

'아저씨, 엄마 아빠로 인해 제가 몇 번이나 죽고 싶었고 가출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술먹고 들어 오실 때마다 없는 집안 살림을 두들겨 부수는 아빠. 거기에 맞붙어 싸우시는 엄마, 지금도 두 분은 싸우고 계세요 이런 가정 속에서 전 벗어나고 싶어요.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어요. 진학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내비치면 욕 먼저 하시는 부모님. 이제는 상의하기도 싫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 아빠만 이럴까요?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부모님들은 모두 이럴까요?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생각을 안해주실까요? 저희들을 자식으로 생각이나 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가정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족갈등과 교육적 간섭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웃음'을 잃게 하여 결혼관과 가족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탈과 비행의 유혹에 젖어들게 만들고, 집을 떠나게 하고, 급기야 자살이라는 마지막 수단에 호소하게 한다.

다. 청소년의 반항-가출과 자살

청소년과 가정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가장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소년의 가출과 자살행위이다. 1992년의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한 해에 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꼈거나 느끼고 있으며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연구문헌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말하는 가출원인은 부모의 구타, 부모의 편애, 부모의 과도한 간섭, 재혼 등의 동거형태, 부모의 부정, 부모의 음주, 부모의 완고함, 가족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경제 문제 등을 들고 있다(장수환, 1993).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가족구조나 가정분위기 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태도나 이해정도 등에 관한 연구들은 결국 가출이 청소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질병에 대한 청소년 자녀측의 표현일 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나철, 1992).

<표 2> 가출청소년이 집을 떠난 이유

이	유	인원수
부모와의 연쟁		7
계부(stepfather)가 싫어서		1
부모가 싫어서		1
아버지의 성폭력		1
강요된 귀가시간(curfew)원하지 않아서		1
술먹었다고 아버지가 때려서		1
어머니가 때려서		1
집이 싫어서		1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서		1
자유가 없어서		1
동기간에 싸워서		4
부모가 남자친구를 싫어해서		1
남자친구문제로 어머니와 싸워서		1
남자친구를 따라서		2
학교문제 때문에		5

자료 : Spillane-Grieco, E.(1984), 'Characteristics of a Helpful Relationship : A Study of Empathetic Understanding and Positive Appeal between Runaways and Their Parents, Adolescence, 19, pp.63-75.

물론 이러한 가출현상이 가정적인 요인에만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그러나 비록 가출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가져야 할 응집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가출은 촉진되며 가출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가능하다. 1990년 서울 YMCA가 서울지역의 학교 청소년 1,6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자살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73.1%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기도나 자해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이 11.8%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990년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90년도 발생신고 사망자 수는 235,380명이며 연령별 구성을 보면 5-9세 2,295명, 10-14세 1,787명, 15-19세 3,803명, 20-24세 4,649명으로 신고되었는데 그 사망의 원인 중 10대와 20대의 자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청소년의 5대 사인 순위

(인구 10만 명당 %)					
연 령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사인(사망률)	사인(사망률)	사인(사망률)	사인(사망률)	사인(사망률)
1-9세	불의의 사고 (37.9)	선천이상 (7.1)	각종 암 (5.1)	폐렴/기관지염 (5.0)	수막염 (3.8)
10-19세	불의의 사고 (25.6)	심장병 (8.0)	각종 암 (6.6)	자 살 (4.3)	폐렴/기관지염 (1.8)
20-29세	불의의 사고 (55.5)	각종 암 (12.5)	자 살 (11.1)	심장병 (9.2)	뇌혈관 질환 (3.3)

자료 : 통계청, 청소년 백서, 1992.

현대사회에 들어와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social problem)로 대두되어 사회학적 논의에서 일탈행위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Merton & Nisbet, 1961).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의존과 독립, 종속과 해방의 과도기적 이념갈등 속에서 자율과 통제, 이중구속(double bind)²⁾의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특히 현대사회의 생명가치관의 변화는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황에 관한 연구보고를 보면(표 4), 부모의 잔소리를 들을 때가 21.7%로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

문항 내용	전체	성별		남 자			여 자		
		남	여	국	중	고	국	중	고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12.2	8.7	14.8	14.9	8.2	7.8	15.2	3.4	16.8
공부하기 지겨울 때	6.5	5.6	7.1	10.7	10.2	4.0	20.6	6.9	5.3
부모에게 잔소리 들었을 때	21.7	20.5	20.4	30.9	28.6	17.2	22.0	25.9	19.2
동성친구와 사이가 나빠졌을 때	2.4	0.8	3.0	0.0	0.0	1.0	6.6	1.7	2.6

자료 :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1993.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살은 그들이 죽음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첫째로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 생각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며(예 :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려'), 둘째로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죽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의 주의를 얻으려는 의도로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 향초, 1993). 십대들의 편지들 속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표현들은 가정, 학교, 사회의 상황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는 외침'으로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살행위는 부모들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가장 구체적 반항의 표현이다. '쓸쓸함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쌓여 괴로움이 되어버립니다.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 무시받고, 학대받고, 조롱받고, 놀림당하기 싫습니다. 저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격을 모독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시받았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의 행동 속에는 독립과 해방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비판이나 반항은 이러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 자주성에 대한 요구, 보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요구, 인격적 평등에 대한 요구, 공평에 대한 요구, 인간적 이해의 요구를 갖고 있다(장병림, 1982).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권위적 강제와 압박, 구속과 간섭, 질책과 모욕에 반항하며 기성세대의 이해부족과 허위와 부정에 저항하고 있다. (표 5)

<표 5> 부모에 대한 반항의 원인(%)

반 항 의 원 인		남	여
자유에 대한 침해	권위에 의한 강제·압박	24	10
	자유에 대한 구속, 간섭 질책, 모욕, 빈정댐	28 9	22 29
소 계		51	61
비판적 태도	이해성이 없는 것	16	12
	의견차이	13	9
	부모의 비위	12	10
소 계		41	31
기 타		8	6

자료 : 장병립,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2 p.147.

4. 청소년의 기대와 가정의 조건

청소년들이 쓴 편지와 상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그들의 가정내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갈등으로부터 매우 소박하면서도 의미있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로부터 바람직한 가정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추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기대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주세요.'

'명령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가져 주세요.'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해 주세요.'

'우리들을 <애>취급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가르쳐 주세요.'

'좋은 모범이 되어 주세요.'

'실수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들을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이러한 목소리들은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모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 유경(고 3)은

'가정 위기시대'라는 짧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청소년 무크 푸른나무, 1991).

"첫째, 청소년을 단순히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 연령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보아 달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부모가 될 수 없다.

둘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하에 지나친 요구나 간섭은 절제하여 달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 아래서 행하여지는 많고 무리한 요구사항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버릴 것만 같다.

셋째,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다스릴 때 이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지도를 바란다."

가정은 이러한 청소년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은 1차적인 인간의 공동체로서 인간의 요람으로

인간성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가치를 전수하는

심리적 매개체(psychic agent)로서, 삶의 사회적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회화와 교육의 생활세계(life world)로서, 그리고 노동이나 학습의 '외적 공간'으로부터 돌아와 휴식하고 반성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sanctuary)'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소년의 요청을 염두에 두고 가정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1)가정의 지배구조로부터의 적당한

해방, 2)부모의 건전한 사회적응, 3)본받을 수 있는 모델, 4)안정감이 있는 분위기, 5)애착심과 자신감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가정과 청소년의 역동적 갈등현상을 바탕으로 8가지 항목의 바람직한 가정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Cole, 1948; Rice, 1990).

1) 부모의 관심과 조력(Parental interest and help)-청소년은 부모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는 부모가 모두 가정의 밖에서 오랜 시간 직업에 종사해야 할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와 주부취업의 증가로 '열쇠걸이 아동(latchkey child)'으로 전락하여 부모의 관심영역 밖에서 놓고 있으며 부모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한 동일하고 일관성 있는 관심과 공평한 조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과잉보호를 가져오는 관심과 조력은 오히려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립심을 저해한다.

2) 의사소통(Listening, understanding, and talking)-청소년들이 갖는 불만 중의 하나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며 그들의 느낌이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의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를 기대하고 있다. '뭐 그리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식의 일방적 명령은 청소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의 생각과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의사소통의 윤리'에 기초한 열린 마음의 대화를 그들은 원한다.

3) 사랑과 수용(Love and acceptance)-청소년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부모들은 애정을 나누어 주면서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의지가 요구된다.

4) 신뢰(Trust)-청소년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인정은 부모-자녀간의 신뢰의 관계에서 가능하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들의 편지를 읽거나 일기를 훑쳐보며 전화를 도청한다. 이성교제에 대한 고정 관념 때문에 이성친구의 전화를 바꾸어 주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 대한 과잉관심이거나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에 불신을 받을만한 요인이 없을 때에는 완전히 믿어야 한다.

5) 자율성(Autonomy)-정상적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자율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며 어른들과 협의하고 책임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며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6) 훈육(Discipline)-가정의 기능 중의 사회화와 교육의 기능은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훈육의 결과는 청소년의 성격형성, 사회생활을 위한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통제의 형태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하는 전제형(autocratic),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결정에 참여하는 권위적 민주형(authoritative but democratic), 자녀들에게 거의 모든 결정을 맡겨 버리는 허용형(permissive), 통제의 방식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변덕형(erratic)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위적 민주형이 청소년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결론 짓고 있다.

7) 행복한 가정공동체(Parental and home happiness)-가족이 만들어내는 가정내의 정서적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기쁨과 환희, 낙관과 행복이 지배하는 분위기와 두려움과 공포, 냉소주의와 적대감이 지배적인 가정의 분위기는 청소년의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 가족구조와 가족관계가 가져오는 가족 응집력과 가족 연대감, 그리고 가족협동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 청소년 자녀들에게 공동체의 정신과 윤리를 가르친다.

8) 부모의 모범(Parental model)-청소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를 원하며 그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시범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원칙들을 부모들도 지키기를 원하며, 부모들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나는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한다. 가정속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실천될 수 있다면 가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인간관계의 형성, 나눔과 섬김을 통한 역할과 책임의 협동적 수행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한 창조적 역동성이 실현되는 바람직한 가족공동체로서 '화목한 가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III. 「화목한 가정」을 위한 전제

오늘의 가정은 과학기술문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변화의 충격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외경과 자유·정의 평화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체계의 유지발전과 합리적인 가족체계의 탐색을 통한 인간성의 고양이라는 과제를 안겨 준다. 인간의 자기해방과 인간가치의 실현을 통한 자기성취는 인간의 영원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논의한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단순히 청소년을 위하여 이런 가정을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진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서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도 변화해야 한다. 인간생활의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진보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하며 그 성향과 열망들은 시대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인격적 결혼관계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참여가 허용되며 평등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이효재, 1979)를 담보하는 가족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통적인 가족윤리 가운데 그 타당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고 신중하고도 본질적인 접근방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재수용하거나 수정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념이 보다 새로운 가치관념으로 조속히 대체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 가치관념의 탐색을 위한 의식적 추구를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사회에서 생기는 소외나 비인간화, 공동체의 상실과 같은 문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스타일과 의미와 자기성취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정 재식, 1988). 그것은 현실적 상황과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최선의 원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찾아질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증가일로에 있는 이혼의 경우, 부부생활의 파탄은 즉 한가족의 파탄을 의미하며 어린 자녀들의 생활에 불안을 안겨주고 이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는 현상이라면 그 사회는 병들고 말 것이다(이효재, 1979). 이혼에 따른 재산분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가? 혹은 이혼의 부도덕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가정유지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인가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신념과 선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가족해체와 가정의 상실로부터 현대인이 경험하는 인간상실과 실망의식으로부터 인간성을 구원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얻기 위해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가치는 행동을 방향지우며, 기준을 설정해주며, 선택을 결정해주며, 인간의 삶의 의미와 질을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가치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되는 기준들의 총화이다. 가치는 재생과 적응,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지속성과 안전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Kirpal, 1986). 따라서 가족가치에 대한 재인식은 새로운 미래에의 도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둘째 가정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과 가정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가족의 응집성과 역동성이 보장될 수 있는 가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회복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족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셋째로 가정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사회는 가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해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을 꾀하는 제도들은 대중요법에 불가하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측면에서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시책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로 가정중심사회의 건설이다. 오늘의 과학기술문명은 새로운 가족형태를 가져올 것이다. 기술상의 변화는 사회제도와 관습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실업, 빈곤, 가족해체 등의 사회 각부분의 변화로부터 촉진될 것이다(Ogburn, 1960).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재택근무」도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은 「일터」로서의 기능을 다시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과거 전통적인 가정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가족주의의 모색이 필요하다.

IV. 결 론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지는 가족해체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인간과 가족의 고전적인 관계를 논의하고 청소년과 가족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찾아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청소년이 길러질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묵시적인 공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록 인간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었으나 가족역동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인간가치를 보호하고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역사적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족과 가정의 의미는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에게 삶의 터전으로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이중구속(double bind)의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다. 현대사회의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상실과 소외의 이방지대로 전락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을 좌절과 고독의 심연으로 몰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화목한 가정」을 회구한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인간적 책임에 기초한 사랑과 관용, 신뢰와 인정, 나눔과 섬김의 가족 역동을 기대한다. 그들은 인격적 대우를 통한 원만하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원하고 자신들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며 가족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며 책임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목한 가정」, 그것은 오늘의 청소년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가능한 성취목표이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 속에 투영되는 인간의 불안과 회의를 극복하는 확실한 선택될 수 있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즐거운 나의집」을 함창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쉼곳은 작은집 내집 뿐이리."

참 고 문 헌

고영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성취감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
김지자 외, 미래를 위한 가정교육, 서울, 양서원, 1992.

김향초, 청소년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1호,
1993.

나 철, 가출청소년의 가족문제 및 선도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보고서, 1992.

마찌니, J., 김광영 역, 인간의 의무, 서울, 박영사, 1977.

문용린, 나는 어떤 부모인가,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94.

박성수,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형사정책연구원, 1991.

볼노, O. F., 이규호 역, 인간과 그의 집, 실존과 허무, 서울, 태극출판사, 1974.

세계로 열린 창, 1994 1월호.

심대들의 쪽지 모음 ①②③④.

이효재, 여성의 사회의식, 서울, 평민사, 1979.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2.

장수환, 상담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3.

정인석, 신 청년심리학, 서울, 대왕사, 1988.

정재식, 과학과 가치와 인간화, 김용준 외, 현대과학과 윤리, 서울, 민음사, 1988.

최운진,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토플러, A., 유재천 역, 제3의 물결, 서울, 문화서적, 1981.

푸른나무 (청소년푸크)①②.

한국여성개발원, 현대가정과 자녀교육, 교육자료 300-2, 1984.

한승희,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Berger, P. et al., The Homeless Mind, New York, Vintage Books, 1973.

Bloom, B. 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4.

Boyden, J., Families: Celebration and Hope in a World of Change, Unesco/Gaiga, 1993.

- Goode, W., Family Disorganization, in Merton, R. K. & Nisbet, B. A.,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1961.
- Hopkins, J. R., Adolesc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Kirpal, P., Human Rights: the Contemporary Situation — New Orientations in Education- Looking ahead, i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Unesco, 1986.
- Laing, R. D., The Politics of Experience, New York, Ballantine, 1978.
- Leslie, G. R., Larson, R. F. & Gorman, B.L., Order and Chan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Merton & Nisbet,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1961.
- Ogburn, W. F. & Nimkoff, M. F., Sociology(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50.
- Rice, F. P., The Adolescent, Boston, Allyn and Bacon, 1990.
- Sebald, H., Adolescence — A Social Psychology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1984.
- UN, Human Rights —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UN, New York, 1988.
- UNESCO,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132, May 1992.

주석 1)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족'이었으나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개념 대신 가정이라는 개념을 썼음. 가족과 가정의 개념은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워 학문적으로도 혼용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가족은 결혼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사회집단으로서 이론적 개념으로, 그리고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구조, 관계, 역동성이 빚어내는 가족현상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실천적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따라서 원인으로서의 가족과 결과로서의 가정을 가설적으로 사용하였음.

주석 2) 아직도 주부는 '무직'으로 분류되고 가사노동은 국민총생산 산출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주부 1200만 명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전업주부 10시간, 취업주부 5.6시간)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68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23%에 이른다(장 명수 칼럼, 한국일보 1994. 4. 10)

주석 3) UN 총회 결의안 217(III)호, 1948. 12. 10 채택.

주석 4) UN 총회 결의안 2200A(XXI)호, 1966. 12. 16 채택

주석 5) UN 총회 결의안 1386(XIV)호 1959. 11. 20 채택

주석 6) 여기에 인용한 내용은 '십대들의 쪽지' 1, 2, 3, 4에서 필자가 가족갈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뽑은 편지들 중의 일부이다. 필자는 그들의 편지들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에 묻어나는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행동예측을 위한 요인들을 뽑아보고 있는 중이다.

주석 7) Gregory Bateson은 그의 'Steps to an Ecology of Mind'에 현대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대부분의 정신분열증 환자는 가족관계에서 보여지는 의사소통의 혼란이 가져오는 이중구속(the double bind)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Bateson G., 서석봉 역, 마음의 생태학, 서울, 민음사, 1989, pp.213-280).

토론

최 윤 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발표자의 글은 청소년과 가정 문제의 실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언급하였다.

과도기의 자아정체감 등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에서 볼 때, 가정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 오히려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한다. 보충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추가로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정을 볼 때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은 물론 묵과할 수 없지만 그것과 더불어 현대 가정이 갖고 있는 잠재력, 순기능적 측면,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른 어떤 제도나 기관보다도 가족이 할 수 있는 기능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일례로 예전의 대가족에 비하여 핵가족은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가정의 힘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가정의 긍정적 기능에도 시각을 돌려보자.

둘째로, 가정의 문제를 보통 가정 내에서의 일반적인 문제와 문제 가정에서 보여지는 문제를 구별해 볼 수 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의 문제와 그것 이외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가정들의 유형은 별도로 파악하여 문제의 성격을 달리해 보고 그에 따른 대안도 다르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일반 가정에서 우려되는 청소년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정 내의 갈등 특히 부모 - 자녀 간의 대립과 의견의 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서로 자신들을 이해 못한다는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가 현대 일반가정에서 보여진다. 다른 하나는 가정 교육의 문제이다. 도대체 가정 교육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다. 기존의 학교 교육과 비교해 볼 때 가정은 학교에 미루고 학교는 가정에 미룸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간과된다. 또 어린 시절에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만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과 공부에 중점을 두고 그 외의 인성교육의 측면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중심의 교육은 가정에서조차 학교 공부의 연장인 학과 공부, 과외학습이 이루어 지게 한다.

문제가정에 관하여는 서덜랜드와 같은 학자는 여섯 가지의 유형을 내놓고 있다. 가장 청소년의 성장에 피해를 주는 가정은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1) 구조적으로 해체된 가정이다. (2) 갈등가족, 폭력과 싸움이 잦아지는 가족들이다. (3) 방임가족이다. 부부의 맞벌이나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는 가족이다. (4) 빈곤가족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계층간의 차이로 인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특수한 가족들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편적 일반적 문제와 특수한 가정의 문제로 나누어 보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의 문제에서 가장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부모이다. 부모들의 역할, 생각, 관점의 변화가 크게 요청된다. 특수가정의 문제는 정부, 사회, 제도적 측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의 변화는 특히 자녀를 보는 관점, 기존의 출세다 성공이다 하는 자녀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점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동반자살에 있어서 세계 1위를 보이는데, 이것은 자식을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보는 생각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독립적인 주체, 권리의 주체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끌어갈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자녀관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이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내 가족을 넘어서 지구공동체 내에서의 세계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내에서 성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역할이나 진로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 스스로 자녀교육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부모들도 자녀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부모되기 교육이 필요하다.

문제가정, 특수가정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보인다. 이것에 대한 대처는 가족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매우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가정은 그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복지적 서비스가 과감히 지원되어야 한다. 폭력가정이나 이혼 가정등의 아이들에게는 대리가정, 쉼터 등이 마련되어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하고,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공적 부조등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 방임에 관해서는 탁아나 육아에 관한 뒷받침 등이 요구된다.

- 발표자 답변

답변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 토론의 내용들이 새롭게 보완 발표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족 속의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냐?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청소년 스스로 사회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가족의 역동성과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과정이었다. 평등한 인격적 관계의 상호보완성이 가족내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동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자체적으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어른들은 보편적인 인격의 개념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인간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가정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은폐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져야 된다.

- 청중질문

1.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전에 관한 앞의 말들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평등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발표 내용의 중간에 들어 있는 내용 -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탁아소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등 - 이 청소년 문제의 큰 원인인 것처럼 시사된다. 동등한 부부 관계나 가족으로 지향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발표자나 토론자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다.
2. 가정은 여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자들은 자기 반성을 해야 하고, 남자들은 흘려 듣는다. 가족관계의 문제는 여자들만이 담당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가족을 위해서는 오히려 남성들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살의 원인이 되는 아버지의 폭력, 부부불화, 성적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의 문제는 남자만 의식을 변화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한 국민학교 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교육이 부재해 있고, 학교에서 열심히 파란 불에 건너라고 가르쳐도 엄마랑 손잡고 건너면 괜찮아 하는 식으로 가정에서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어른들이 올바른 모델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못지 않게 사회교육도 중요하다.

- 청중질문에 대한 답변

본 논문에서 여러가지 모순이 한데 어우러져 어떤 때에는 전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현대적인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청소년들의 주장을 모아서 전달하자는 것이다. 그 청소년들의 소리가 전혀 근거가 없고 정당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기대하지 않은 청소년들만의 감수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혼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보장책을 만들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혼은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은 또 다르게 보여질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서로 모순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탁아소에서 자는 것을 언급한 것은 전통적으로 양육되어진 청소년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구자가 남자인 차원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나 자신도 남자로서 지금의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제 3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가족

손 승 영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II. 노인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

III. 노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변화

1. 전반적 변화

2. 노령자의 주요 특성별 가족관계 비교

IV. 결론 및 제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가족

손 승 영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지난 30년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사회 변동 중에서도 노인의 삶과 가족생활에 주어진 변화는 가히 괄목할 만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및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한 변화의 주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 목적이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노년기가 노인 개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다. 1960년에 남자가 51세이고 여자가 57세이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남자 67세와 여자 74세로 증가됨으로써 남녀 모두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무려 15년 이상이나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이 오래 살게 됨에 따라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과거와 같이 60세가 되고 환갑이 되면 이는 노인으로써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제 2의 생을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노인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 이제는 노인들 간에도 젊고 건강한 노인들과 연로하고 건강이 악화된 노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과거와 같이 노인을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해 획일시켜서 '주름살과 흰머리와 고리타분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정체감으로 대표되는 집단'으로 규정짓는 식의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보다 다양해진 노인의 모습을 조명하고 대표적인 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 노인들이 하위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자세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둘째, 노년기의 연장은 우리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은퇴 후에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노인단독가구에서의 노령자에게는 자녀 출가 후의 '빈둥지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며, 확대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노령자에게는 노부모와 자녀부부의 동거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년기의 연장은 또한 노부부의 관계나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셋째,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노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대를 주된 변화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1970년에는 한국 인구의 단지 5.4%이던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993년에는 8.4%로 증가하였으며,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 2000년에는 10% 선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왔으므로 이는 노인부양비 증대와 직결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에게는 노부모 부양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노령화 사회의 주요 양상으로는 이 외에도 경제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변화를 들 수 있다. 노동인구의 부족이나 어린이 위주의 산업으로부터 실버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개편, 정치적 보수화 등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가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노령화 사회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노인집단이 거대해짐에 따라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노인들간의 계층별, 지역별, 성별, 그리고 연령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노령화 사회에서의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한편 노인의 하위집단간에 보이는 다양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령자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이 될 2020년대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등장할 주제이므로 향후 30-40년 이후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작업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II. 노인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

우리사회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계속적으로 보급됨으로써 노령자가 소지한 경험이나 지식은 시대에 뒤진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으나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는 녹슬고 낡은 지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전통적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회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존경을 받던 노인의 지식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시대에 뒤진 낡은 경험으로 치부되어져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존경받는 위치에 머물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노인이 소지한 자원들의 중요성이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에 따라 노인의 지위 또한 심한 격하현상을 경험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산업사회에서의 젊음에 대한 찬양과 미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추구 논리와 맞물려서 상품화현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젊은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에 따라 젊은이는 상품광고를 통하여 개성시대로 표현되고 미화되는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별 요구가 없는 조용한 집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젊은이 위주의 상품 개발이나 문화공간의 형성에 기반을 둔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세대간의 차이는 사실상의 연령차이로 인해 존재하고 있는 격차에 비해서도 더욱 과장되고 심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모에 대한 효를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정부나 학교를 통하여 자주 강조하여 왔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산업사회 구조에 의해 특히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아래서 가장 심한 지위 저하와 차별을 경험한 집단이 현재의 노인 집단으로 여겨진다. 급변하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지위와 노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애매하게 되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집단으로 우리사회에서의 전통적 효 개념에 의해 대우를 받던 집단이 현대사회에서는 그 고유의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 굴절에 의해서 노인은 의존적이고 사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또한 자녀에게는 항상 요구만 하는 집단으로 또 하나의 다른 정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다.

아직도 노인의 대표적인 특성은 건강약화로 인한 젊은이에 대한 의존과 은퇴 후의 경제력 약화로 대변될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1984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 노령자의 약 70%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젊은층에 비하여 소유한 상대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의 상당수가 취약한 계층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노령자들의 모습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노인의 생활실태, 가치관, 생활양식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변화 양상이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세대차이였다. 대중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자녀와 교육받지 못한 부모세대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정착이 된 오늘날에는 평균 교육년한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좁혀질 전망이다. 즉, 근대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던 시기와는 달리 미래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세대간 격차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에 따라 세대간 지식이나 기술보유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일기 시작한 변화만 보더라도 젊은이의 전유물 마냥 여겨졌던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로 늘고 있다는 점도 그 좋은 예이다. 한국통신에서 주관하는 PC통신 원로방의 회원수가 예상외로 800명까지 달하고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원로방 회원을 지역별로 별도로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빈곤한 것이 노인의 전반적 특징이나 점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의 소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노인의 비율에 있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에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취업율은 28.1%이었으나, 1992년에는 41.9%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여자노인의 취업율은 같은 기간에 11.4%에서 30.3%로 거의 3배 증가하였다. 비록 노인의 취업율 증가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각 개인이 일하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노후에도 일정 수입이 있는 노령자의 비율이 증가되었음은 명백하다. 더우기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10년경에는 현재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노인은 의존만을 하는 집단의 이미지를 점차 벗어나고 있다. 자녀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노인들의 사회나 가정에서의 기여도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하고 젊은 편인 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손자녀 돌보기 등으로 노후에도 가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부양만을 연구하기보다는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노부모의 가족에 대한 기여를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을 위한 부양체제와 노부모의 기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교환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세대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노인들은 과거와 같이 구세대로만 표방되는 존재는 아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도 세대간의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하루에 상당수의 시간을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는데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차적으로나마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때문이다.

넷째,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최근에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노인패션쇼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상품의 개발을 주도하는 실버산업의 시작이 어느 정도는 그러한 변화를 입증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효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자녀의 효를 상품화하여서 대대적으로 효도관광을 주도하는 여행사에서도 최근에는 관광 상품 속에 노인 멋내기 교실 등을 포함시키고 있을 정도로 변모하는 노인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노인을 조용히 집에서나 또는 공원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연령층으로 보던 개념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회색과 우중충한 색으로 대변되던 노인들의 이미지가 이에서 탈피하여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상과 같이 노인들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층이 늘고 또한 노인 중에서도 어떤 노인을 의미하는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다양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은 의존만 하는 집단이 아니고 기여도 하는 집단이며, 낡은 지식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감각도 갖추고 있는 집단이라는 새로운 평가가 어느 정도는 가미되어진다. 따라서 노인을 획일화하는 사고틀 속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노인은 주름살과 구식이라는 용어만으로 대변되는 집단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고찰해볼 때, 우리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었던 산업화 초기 시기와는 달리 이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보다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대간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대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한편 노인들 사이에서의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엿보인다.

따라서 후기 산업사회의 노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노인의 주요 특징인 경제적 열악성, 소외의 문제, 건강악화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변화나 바뀌고 있는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실버산업, 여가와 레크레이션, 노인을 위한 시설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까지도 고려하여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Ⅲ. 노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변화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보다 뚜렷해지는 현상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나타나는 노인의 생활상의 차이이다. 이 장에서는 첫째, 노인 가족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구형태에서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의 주요한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노령자 하위집단별로 가구형태와 가족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서술하기로 하겠다.

1. 전반적 변화

1) 가구 형태의 변화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여진 가구형태의 주요한 변화로는 노부모가 장남부부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의 전통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삼세대 가족인 확대가족의 비율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결혼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자녀와만 동거하는 핵가족 유형이나 노령자 혼자서 또는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단독가구' 등 비전통적인 가구형태가 증가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비전통적 가구의 형태는 확대가족 내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서 장남이 아닌 아들부부와 또는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노령자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 이상의 노령자가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에 행해진 조사들에서는 장남과의 동거율이 한결 같이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장남과의 동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령자들만 따로 사는 노인단독가구는 증가 추세에 있어 1985년의 20.5%가 1989년에는 22.9%로 늘어났으며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35%로 그리고 2010년에는 45%로 추계될 정도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가구의 증가로 인한 여러 동거형태의 공존현상은 한국에서 노령자의 가족 구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도 노인들을 중심으로 핵가족화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추세에 미루어 서구와 같은 가족 구조로 변화하는 식으로 예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들이 제시하듯이 한국의 노부모들은 따로 살다가도 배우자 사망이나 건강 악화시에는 자녀부부와 합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가구형태는 급속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지에 대한 희망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현대 한국 가족과 관련된 주요한 한 측면으로 여겨진다. 이는 변화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다양한 가족들간에 새로운 문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통합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며 때로는 가족성원들간에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갈등의 소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의 노령자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성향을 보이거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문화적 갈등이나 저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를 추측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노령자 가구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노령자의 자발적인 측면과 비자발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가구 구성의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전통적인 가치만을 옹호하는 입장이거나 새로운 가치만을 강조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보다 가치중립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가구형태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노령자 개개인과 가족성원에게 보다 바람직할 수 있는지를 각 집단별로 노령자가 처한 현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관계의 변화

노령자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족 성원들간의 관계, 즉 노부부 관계나 노부모 자녀부부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자녀부부와 동거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한 가족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 부부관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문헌들에서는 결혼초의 높은 만족도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점차로 줄어들다가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출가를 하는 시기에 다시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노년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던 때의 많은 노동 부담과 시간 소요에서 벗어난 시기임으로 바빠 살던 때에 비해 이 시기에는 보다 나은 부부관계를 형성함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노년기의 부부들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오랜 기간동안의 적응기를 거쳐서 서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 있으므로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최근에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의 만족도는 계층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서 중상층의 노부부가 저소득층 노령자에 비하여 부부관계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동거여부나 본인이 속한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도 노령자가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노령자의 부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노부부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평등한 측면이 엿보였다. 이는 노년기에 속한 부인의 경우에도 남편이 부인의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반수가 통제를 받고 있는 편이었으며, 반수 이상의 노년층 부인들이 본인의 재산이나 저축이 전혀 없다고 답한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는데, 그 결과 노부부가 쇼핑이나, 친지방문, 산책 등의 목적으로 집 밖에서 공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활동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부부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0대의 '전기노인' 중에서 공동의 활동시간에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는 노부부들에게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부부 공동의 활동이 증가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젊은이에게서 뿐만 노령자에게서도 변화하는 부부 풍속도를 가까운 미래에 그려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결혼상당소를 방문하여서 재혼에 대하여 상담하는 노인의 수가 늘고 있는 점이나 실제로 노인의 재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노후에도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부모-자녀 관계

전통적인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효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 부모가 알뜰하게 저축하여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는 소위 '희생이데올로기'를, 한국의 부모는 중요하게 간직하고 실천하여 왔다. 한편 자녀에게는 부모가 노후에 연약해지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국의 가족은 이와 같이 젊을 때의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부모의 노후에 자녀가 그 대가에 보답하는 장기간의 교환관계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서 1981년도에 국가간 비교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조사 대상 노령자의 78%가 자녀로부터 생활비 보조나 용돈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72%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주된 수입원이라고 대답하고 있어 자녀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 포함된 외국 5개국의 경우는 모두 낮아서 일본 노령자의 15.6% 미국 노령자의 0.3% 프랑스 노령자의 1.0%만이 이에 해당하고 있어서 외국과는 매우 상이한 우리의 부모-자녀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부모의 성인자녀에게의 경제적 의존성은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부모는 젊을때에 벌은 수입의 상당액을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므로 노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일시점에서의 관계에 치중해서 파악하기 보다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부모는 젊을 때에 자녀에게 사회보험을 들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노후에 사회보장에 상응하는 혜택을 돌려 드려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환관계에서 한국의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회보험에 기초한 국민연금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가족이 노령자를 위한 주된 제도적 장치로써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부모와 자녀의 교환관계에 기반을 두고, 노령자의 부양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현재 우리사회에서 관철시키기가 어렵다. 이 변화는 부모나 자녀 중 어느 한쪽만의 변화도 아니며 양세대의 동시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경제력이 강화된 노인이 늘고 있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녀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로 사는 것이 보다 나은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60대의 노부모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측에서의 효이데올로기의 약화와 노부모측의 희생이데올로기의 약화도 주된 변화로 들 수 있다.

노동서비스에 있어서도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교환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노인의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 오히려 자녀측에서 부모의 가사노동에의

계속적인 기여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자녀의 과다의존을 피해서 따로 살고 싶어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 서술한 가족형태의 변화와 부모-자녀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지고의 가치였던 효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명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해진 노인의 삶과 가족형태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일방적인 가치만을 주입시키기는 힘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가족에게 명목상으로만 효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상으로는 노인세대를 위하여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못했으므로 노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한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윤리만을 강조하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든 노령자에게 적용하여서 기대하기 보다는 각 개인이 위치한 범주 내에서 이들의 구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알맞는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노령자의 삶과 가족관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노령자의 주요 특성별 가족관계 비교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노인을 획일시키는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노년층의 다양한 집단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노인의 삶을 조명해봄으로써 이들 각 집단별로 예상되는 상이한 요구와 필요성에 주목하여서 가족관계를 논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획일성을 요구하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건강하고 열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여서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적 특성인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인집단별로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규명해 보기로 하겠다.

1) 지역별 차이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상 중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이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는 노령자에게 있어서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현재 한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3.5%로 도시지역에서의 노인인구 비율인 5.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농촌에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한국 농촌의 인구 노령화 현상은 농촌지역에서의 자녀 이농현상에다가 농업종사인구의 평균연령이 높은 점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되어진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중상층 노령자에게서 자발적인 노인단독가구가 형성되는 경향이 새로운 변화로 보여지는 점과는 달리 농촌에서의 노령자단독가구는 비자발적인 성격이 뚜렷하여서 거주지역별로 노령자의 핵가족과 현상에 있어 자발성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 노령자의 경우 본인들의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자녀가 직장을 찾아서 도시에 이주하게 됨에 따라 농촌에 홀로 남아서 노령자 단독가구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1985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 노령자의 43%가 노부부만의 생활이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별거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농촌 거주 노령자는 약 60% 정도가 자녀의 직장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또한 명절때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대이동 현상을 보더라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자녀를 도시지역에 두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 비자발적인 노령자 단독가구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노령자의 부양이나 병간호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농촌 노인의 경우에는 농사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부족과 이에 따르는 노인간호문제와 부양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신속한 해결책을 요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족의 사적인 부양에만 책임지우는 현 정책하에서는 농촌의 노인단독가구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농촌에서의 노령자 단독가구수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에의 요구가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고려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연령별 및 성별 차이

노인 문제의 많은 부분이 '후기노인'의 문제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노령자들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된다.

비교적 젊은 편인 60대에 속한 '전기노인'들은 70세 이상의 '후기노인'들에 비하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부의 생존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노인 부부의 경우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이 집단에서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여서 노인단독가구의 형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전기노인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과다 의존을 기피하여서 자녀와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바로 이 집단이 노부모의 의식 변화에 따라 가구형태의 변화를 주도한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시에도 전기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부부와 합치기 보다는 재혼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높은 유배우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은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사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54.9%가 배우자가 있으나,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단지 38.6%만이 배우자가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후기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또한 여성노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1993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65.8로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의 수는 65.8명임을 의미한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성비가 53.6으로 남자노인의 수는 여자노인의 수에 비해 절반을 넘는 정도이며, 80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34.7로 노인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연령이 높을 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자노인의 86.3%는 배우자가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는 단지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34.5%만이 배우자가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도 유배우자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에 따른 남녀간의 재혼을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어진다.

남녀 노인간의 유배우자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부인이 간병인으로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취업 주부나 부업을 가진 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확대가족의 경우에도 며느리가 노부모의 간병이나 서비스 부양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점들이 많다. 이러한 부양의 어려움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가중되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별율이 높은 후기노인의 경우에 혼자된 노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할 때에는 자녀에게는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대가족이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남아있으며 양로원이면 아무리 시설이 좋은 유료기관일지라도 무조건 꺼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후기노인에게서 더욱 빈번히 나타나는 치매가 심각하게 닥친 경우에도 노인을 가정에서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생각에 따라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 때에는 주간병인인 며느리가 겪는 부담과 고통은 매우 크다. 하지만 노인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한 한국의 실정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고려하여서 재가노인복지에 초점을 두고 노인과 가족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3) 계층별 차이

사적인 가족제도에 노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층간의 불평등이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 자신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상층의 노부모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녀를 둔 중산층의 부모와는 달리 하류층의 노령자가 가족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으로부터 어긋나지 않게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지닌 한국의 노령자는 공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수가 퇴직금으로 간신히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이며 퇴직 전의 수준에는 전혀 못미치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의 과반수가 용돈이나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외출시에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지역에서 노부모의 자발적인 의지가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노령자 단독가구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있으며, 교육정도가 높고, 젊은 층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으나 아주 가까운 거리나 같은 아파트 내에서 독립가구를 이루면서 확대가족에서와 유사하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근거리 주거방식을 택함으로써 '수정

핵가족'의 형태를 띠며 갈등은 최소화하는 반면에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서 만족도를 높이고 상호 부조의 성격을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지 못해 따로 사는 경우와는 달리 상호간에 안정된 독립을 배려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노인과는 달리 상류층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다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노령자들의 계층별로 차이가 뚜렷한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 국한시켜서 노령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족 차원에 국한시킨 해결 방안은 노령자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노령자간의 이질성을 조장시켜서 계층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노령자의 문제를 지역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하지 않는 한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기가 힘들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의 삶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노인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전형적인 평가에 의해 의존만 하는 존재로 노령자를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이제는 노인의 실제 역할을 중심으로 노령자의 가정을 위한 기여도 고려하여서 '자녀층의 노부모를 위한 부양과 노인층의 가족을 위한 기여의 교환체계'라는 보다 종합적인 틀 속에서 노인의 삶을 조명해 볼 때이다. 또한 노인의 삶이 가치나 의식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았다.

이와 같이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변화는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노년층의 가족구성이나 가족관계도 획일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노령자 집단간에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가장 비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노령자의 연령이나 성별, 지역별 및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삶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중에 우리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경험하던 데서 파생된 결과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생각이나 갈등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가구형태는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삼대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점이나 노인단독가구는 노부모가 젊고 건강하며 부부로 살 때의 한시적 모습으로 비쳐지며 건강이 악화될 경우나 배우자의 사별시에는 자녀와 합치기를 희망하는 점 등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전통적 효의 개념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가족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촌에 홀로 남은 노부모의 증가라거나 도시 지역에서 삼대가족으로 살고 있을 때도 며느리나 딸들이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노부모 부양에 관련된 가치나 생각은 별로 바뀌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자녀들은 전형적인 틀에 맞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갈등과 죄책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으며 독립적인 삶을 원하는 노인의 경우도 혹시 자녀의 불효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다른 노인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삼대가족을 고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개인의 효와 노인존중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는 한편 자녀나 가족에게 노인 부양의 의무나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령자를 위한 사실상의 정책들은 거의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노인존중 이데올로기는 명목상으로만 그치고 있고 실제로는 젊은이 위주의 정책과 산업만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문화 공간의 부재, 경제적 지위의 약화, 소외 문제등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실과 노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의 삶과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실제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과 자녀간에 상호 각자의 생활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세대간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형식적이고 이상화된 효이데올로기에만 얽매어서 실제적으로는 세대간의 관계가 소원한 데서 오는 노인 소외의 문제라거나 젊은이에

대한 물이해에서부터 탈피하고 보다 열린 관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으로서는 자녀에게의 과잉 기대를 줄이고 형식적으로 부과된 의무와 권리 중심의 관계를 탈피하는 한편 양세대간에 서로 진정으로 우르러 나오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제적 관계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모시기만 하면 효자나 효부라는 형식적인 관계의 틀을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효의 개념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적 차원에서는 단기간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기업의 생산논리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금융상품 개발이나 효도관광 차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버산업을 진정 노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도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적 차원에서도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나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서 노인의 의식주, 교육문제, 의료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 개발과 치매 치료센터, 장단기요양시설, 주간단기 보호시설 등이 생겨남으로써 노인이나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노인의 삶과 가족생활을 돕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노인존중 사회라는 원칙만 내세우면서 '선 가정 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원리가 널리 통용되는 현 실정아래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 주도하에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재가노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몹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대거 개발하여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이 노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령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모색될 때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넓혀지고 이에 따라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은 매우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령자의 변화하고 있는 가족구성도 염두에 두어서 가족성원간의 상호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이 유도되고 사회서비스 제도들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가족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가족에게 과다하게 부과된 노부모 부양의 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와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으로써 보다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세대간 상호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 자혜, 1992. "노부부 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제 9장.
- 김 종숙, 1987.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 태현, 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박 제홍, 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5 (여름):1-20.
- 서 병숙, 1989.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133-148.
- 손 승영, 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제 8장.
- 송 현애, 김 순옥, 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83-101.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5. 「노인복지편람」.
- 이 숙현, 손 승영, 1992.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26 (겨울):145-164.
- 조 병은, 신 화용, 1991. "맞벌이가족의 성인자녀 노부모관계," 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 논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Dowd, J.J. and LaRossa, R. 1982. "Primary Group Contract and Elderly Morale: An Exchange/Power Analysi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6:184-197.
- Mutran, E. and Reitzes, D.C. 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117-130.
- Stoller, E.P. 1985. "Exchange Patterns in the Informal Support Networks of the Elderly: The Impact of Reciprocity on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335-342.
- Suitor, J.J. and Pillemer, K. 1987. "The Presence of Adult Children: A Source of Stress for Elderly Couples'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717-725.

토론

신 화 용 (덕성여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연소노인의 증가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인들의 삶의 변화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의 노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노인의 삶을 보고 그것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개선할 것인가가 서로 혼동되고 있다.

노인의 변화에 관한 많은 부분이 새로운 노인상에 강조를 두고 있다. 특히 신세대 노인들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도 높고, 경적으로 여유있는 중산층 이상이므로 전체 노인의 변화하는 삶에 대한 전망으로 미비하다고 본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중요한 변수가 안되고 배우자의 유무도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인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에 한정을 둠으로 인해 어떠한 정책이 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논의가 부족하다. 논의들이 전반적으로 추상적, 일반적, 보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노인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는 '세대간의 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립이 먼저 요구된다. 즉 '효'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존중이라든가 현대적인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효'란 무엇인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이다. 1984년 아산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노인은 3%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공적 소득을 받는 인구가 13%이다. 1992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공적 소득을 받는 인구는 13%이다. 21세기에 국민연금이 보편화되고, 공적 소득을 받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자녀 외의 사회보장적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극소수이다. 변화하는 노인의 모습은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노인층을 부각시키면서 현재 관찰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를 결여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 발표자 답변

오늘날의 노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에 변화의 싹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효'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의 모습을 정형화시키거나 일관된 정책을 끌어내지 말고 다양한 유형을, 다양한 상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에는 20%이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노인의 문제가 자녀의 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의 노인과 미래 노인의 복지 수준의 차이는 크다고 본다. 급속히 바뀌는 노인생활과 인구구조를 고려한다면, 노인들도 가정 속에서 권위로만 억누르는 권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집단으로 형성될 수 있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 청중질문

1. 혼자 사는 노인은 질병, 죽음에 대하여 힘들어 하고 전혀 준비가 없다. 외로운 노인들이 더 많은 현실에서,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주위의 이웃이나 자원봉사자, 종교단체와의 연결, 동사무소 등이 그러한 노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들 역시 질병,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 질병,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 효이데올로기는 노인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 맡겨버리는 것이다. 노인문제가 가족에게 맡겨짐으로써 가족관계에는 갈등을 더 만들어낸다. 노인들이 가족 속에 통합되고 화목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노인들에게 다른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시설 양로원이나 최근에 생긴 유료 양로원에 국한된다. 양로원 보다는 노인공동체, 가족내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겪기 보다는 노인들간의 공동체, 노인 문화를 만들고, 노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식사, 간병, 세탁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양분화되어 있는 양로원이 아닌 계층별로 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설을 국가에만 일임하지 말고 노인 자신이나 자녀,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동체는 탁아시설과 함께 연결시켜서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교사를 두어 아이들 교육도 하고, 서로 세대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발표자 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문제를 가정으로만 일임해 두고 있는데, 건강이 악화된 노인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 가족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외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사봉사원들은 숫자가 적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말상대가 되어 주는 정도이지 노인들 목욕을 시켜 준다거나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시,도 가정 복지과에 속해 있는 가정 봉사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노인들은 집에서 아이도 돌봐 주고 빨래도 하는데 왜 월급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한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주부들에게만이 아니라 젊은 노인들에게도 나 올 수 있다. 따로 살 경우에도 유료 양로원의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양로원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이다. 양로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등이 개발되어 양로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주제 4

폭력없는 가족

윤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I. 머릿말

II. 가정 폭력의 개념규정과 범위

III. 부부간의 갈등과 아내구타

IV.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

V. 노년기의 특성과 노부모 학대

VI. 종합 논의 및 결론

폭력없는 가족

윤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I. 머릿말

어찌보면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우 단순한 계기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사건의 연속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다시금 어느 한 순간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것이 한평생(life-span)이다.

그것이 길게는 120년(생존가능수명)이오, 짧게는 20-30년에 불과한 요절의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그 품안에서 죽어간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 부모의 슬하에서 크다가 장성하여 「결혼」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자기자신의 「가족」 을 형성한다. 물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족은 이런 「행복한 결혼」 에서 출발하여, 원만한 부부금실, 따뜻한 자녀 양육, 효성스런 노부모 봉양 등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덕목을 지키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게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일생을 꾸려 나가는 것이 아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갈등 - 성격 또는 가치관의 차이, 성생활의 부조화, 경제적 빈곤, 종교적 갈등 등 - 으로 말미암아 감정대립,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하여 별거 · 이혼 등 극단적인 파국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부간의 불화는 아동학대와 노부모, 그리고 형제 · 자매 등 기타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과 갈등 · 고통 · 위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에 대한 습관적인 구타 · 욕설 · 유기와 같은 행위로 어린 그들의 신체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과 정신건강의 도모를 불가능하게 하여 성인이 된 후에 가서 까지도 우울증 · 불안등, 정신질환과 사회비행이나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왕성하던 정력과 청춘을 자녀양육 · 사회 및 국가건설을 위해 모두 불태운 노부모들은 이제 모든 역할을 상실한 가운데 외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과 같은 황혼기는 당연히 '영광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성인자녀들은 이들에 대한 홀대 · 유기 · 무관심은 물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므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흔히 우리들이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게 되는 시립양로원 등 복지기관에 수용된 상당수의 버려진 노인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제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를 맞아 한국 가정에서의 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그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그동안, 가정 폭력에 대한 원인과 현황에 대한 국내 자료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종래에 거론된 원인론 및 현상론보다는 그 대책 및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II. 가정 폭력의 개념규정과 범위

인간행동의 기제를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접근해온 기초 심리학에서 「폭력」이란 「공격 행동」의 한 형태일 뿐이며, 또한 공격행동은 공격동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런데 공격과 폭력은 개념 규정에 있어서도 특히 두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공격(aggression)이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The intentional injury of another)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폭력(violence)은 그 상처입히는 정도가 매우 극심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려는 시도(deliberate attempt to do really serious physical harm)이다(Berkowitz, 1974).

둘째, 공격행동과 폭력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준거는 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가치(value)」의 문제이다. 즉, 공격행동은 긍정적 측면(예: 경찰관이 폭력배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는 경우)과 부정적 측면(예: 폭력배가 선량한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은 언제나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측면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폭력을 논의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격동기와 행동의 기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윤리적으로 '부정적'이란 가치 측면을 덧붙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격행동은 도구적 공격(instrumental aggression)과 증오적 공격(hostile aggression)으로 다시 세분될 수 있다. 즉, ① 다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공격하는 경우(예: 돈을 빼앗기 위해 길가는 행인을 때린다.), 와 ② 공격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예: 사람때리는 것을 즐기는 강패가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특정한 상황과 기준에 따라 공격행동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리적 · 신체적 효과 대 심리적 효과(physical effects vs. psychological effects)이다. 즉, 공격행동을 통해 신체적 · 물리적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단순히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효과를 논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 다음 두가지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이란 부부 자녀 노부모 · 형제들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 성적 폭력을 말한다. 물론 언어적 · 성적 폭력등이 더 심각한 결과와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 신체적 폭력만 취급하고자 한다.

둘째, 가정폭력 가운데 ①부부간의 폭력 ②부모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 자녀학대, 그리고 ③ 성인자녀에 의한 노부모학대 등 세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III. 부부간의 갈등과 아내구타

부부간의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폭력은 주로 아내구타로 나타난다. 물론 최근 아내에 의한 '매맞는 남편' 문제도 간혹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기에는 그 정도와 심각성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맞는 아내'의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국내에서도 10년전 「한국여성의 전화」의 창립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고 마침내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한국여성개발원(1993)이 종합연구보고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의 세미나 시리즈를 묶은 김광일(1988)의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김익기 심영희(1992)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현황을 중심으로)」 등이 이어서 발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에 언급한 「한국여성의 전화」의 자료집뿐만 아니라,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1992)의 세미나 자료집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이 가정폭력의 생생한 측면을 증언해 주고 있다.

1. 아내구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

여성개발원(1993)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이란 제목으로 최근 제시된 연구가 매우 포괄적이며 중요한 자료이다.

그들은 ① 아내학대의 발생이론 ② 아내학대의 반복성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내구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① 폭력의 빈도, ② 폭력의 유형, ③ 폭력의

영향·신체적·심리적·정신적 영향 그리고 세대간 학습 등을 취급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예방과 대책」 방안을 전형적인 정신건강접근 방식에서 찾고 있다. 즉, 아내구타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1차적 예방,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대책과 같은 2차적 예방, 그리고 폭력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자의 재발을 돕는 3차적 예방으로 나눈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1) 방안 마련의 기본 원칙 수립 - 아내 구타는 사회문제이므로 사적(私的)이 아니라, 공적(公的)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 규범 및 법 제도의 동시 개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고려한 대책,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피해 여성 등, (2) 여성과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3)교육프로그램제공 - 부부교육 및 관계자교육, (4) 법적보완장치- 가사소송법에 '보호명령' 조항 삽입, 간이재판제도의 도입, 신고제 도입, 가족재산 부부 공유제 인정, 수사당국이나 사법기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무조항 삽입, (5) 경찰제도의 개선보완 - 경찰내 가정 중재 프로그램개설, 가해자 구속, (6) 사회적 서어비스-응급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주거서비스, 재가서비스, 가해자 프로그램 등.

2. 부부관계의 심리적 기제 :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갈등과 아내구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녀의 성역할 사회화과정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우선 심리학적 기본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예를 든다면 ① 사랑의 기본적 기제, ② 남녀간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③ 상호매력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원리 등이다.

1) 사랑의 기본적 기제 :

부부간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금실이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이때 문제된 부부는 서로 어떤 점에서 합치되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또는 연인간의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최신 이론이 있으나 Robert Sternberg(1986)의 삼각형이론이 가장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사랑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그리고

의사결정/개입(Decision/Commitment)의 세가지 차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 부부 두사람(즉, 두개의 각각 다른 삼각형)은 서로 적절히 조화(match)를 이루어야 금실이 좋아질 수 있다. 어느 한가지 차원이라도 서로 맞지 않고 괴리가 크면 부부화합은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결정"은 있으나 "열정"이 예전보다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고 또 친밀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부는 금실이 좋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부간 서로 어떤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화합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가를 세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탐색을 거쳐 특히 열정과 친밀감이 되살아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별거와 이혼 등 법적·사실적 결별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별거와 이혼은 무조건 나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어 왔다. 특히 아동양육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가정폭력과 아내구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종래의 고정관념은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폭력을 어린 자녀에게 보여주므로써, 사회학습과정과 모델링(modeling)효과를 통하여 더욱 아동의 폭력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

2) 남편과 아내의 시각차이 이해 :

흔히 부부는 각각 다른 생활의 장(life field : 場)에서 생활하며 일생을 보낸다. 남편은 직장과 바깥사회를 중심으로 시간과 정력을 쏟는 반면에 아내는 가사운영과 자녀양육이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현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귀속(attribution)도 달라진다. 즉, 만일 회사에서 사업이 부진하여 남편이 감원 실직 당하게 되면, 남편은 그 책임을 회사의 주인공인 사장의 경영실수나 시대적인 불경기에 그 원인을 돌린다. 하지만 가정이란 장내에서만 생활해 온 아내는 회사의 사정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집안에서의 가장 주인공인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Jones과 Nisbett, 1972).

이와 같은 부부간의 시각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려면 부부 모두 '동일한 생활의 장'속에서 활동하거나 공동주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적어도 이들이 하는 권리·의무역할의 중요성은 같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관점 역시 비슷해지게 될 것이며, 부부사이의 갈등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아내구타 장면에 적용해 보자. 때리는 남편은 아내의 가사운영이란 역할을 매우 경시하고, 또 맞고 사는 아내는 그 남편이 직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므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아내 자신은 한두번의 실수에 대해서도 구타를 당할 수도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원천적으로 평등한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부부간의 매력과 자존심의 증가-감소론 :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호감을 갖거나 매력을 느끼는 중요한 원리는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 이론(gain-loss theory of esteem)이다 (Aronson과 Linder, 1965). 우리는 항상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중립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칭찬을 더 많이 해 주는 사람(자존심의 증가효과)을 더 좋아한다.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중립적으로 보거나 또는 호의적으로 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자존심의 감소효과)을 우리는 더욱 싫어하게 된다

이 원리를 결혼기간이 오래된 부부관계에 적용해보면 상황이 더욱 분명해진다. 부부사이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칭찬과 매력·호감이 전제된 관계다. 따라서 더이상 자존심을 높여줄 말이나 행동이 별로 없다(이를 ceiling effect라 한다). 그러므로 자존심의 증가효과가 없고 혹시 한가지라도 섭섭한 일이 있으면 실망과 자존심의 감소효과만 커질 뿐이다. 이에 반하여 새로이 만난 다른 중년남녀는 서로 상대방에게 중립적인 지점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갈수록 점차 칭찬의 정도를 높여갈 수 있으므로 증가효과가 커질 뿐이다. 이때 오래된 결혼은 과정에 이르고 새로이 만난 남녀끼리 애정관계가 새로이 형성되기 쉽다.

그러므로 아내구타가 남편의 성격장애·알콜중독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금실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자존심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의 원리를 잘 고려하여 중재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3. 무기력의 탈피와 자기주장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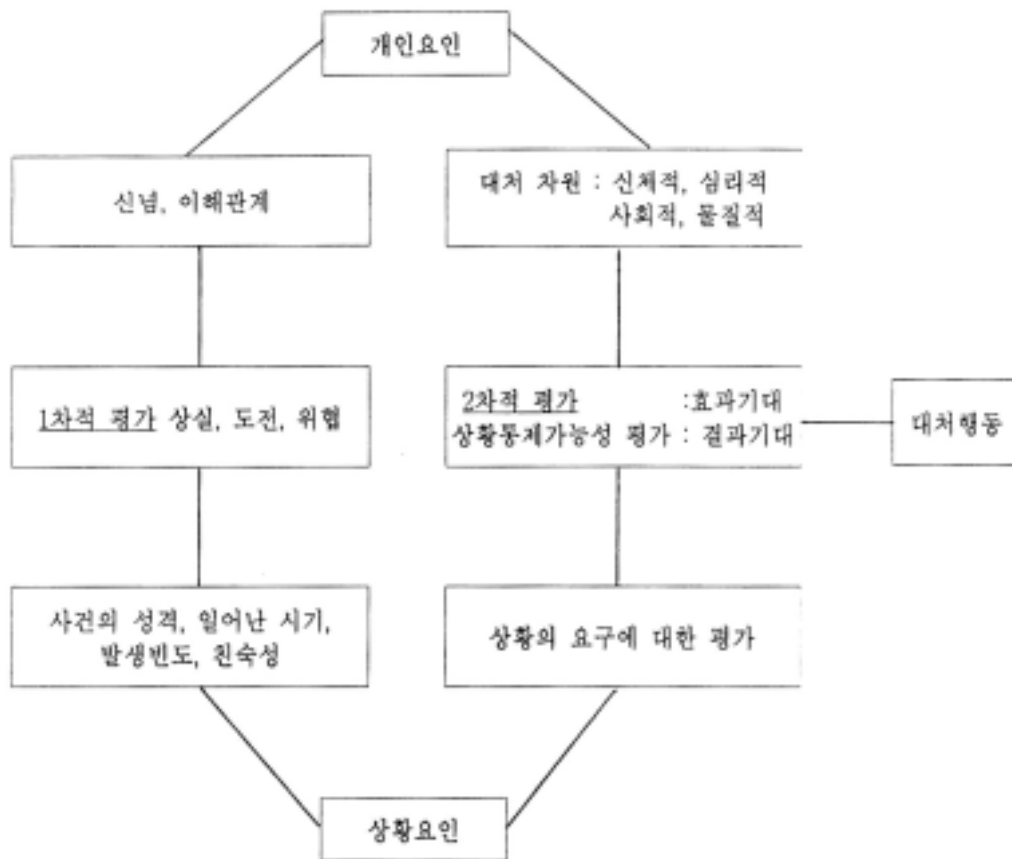
매맞는 아내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다(Seligman, 1976). 이러한 무기력을 배우게 되면, 인지적 정서적 및 동기적 무기력 등 3가지 차원 모두에서 무기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피격 박해·고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도피 또는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도망칠 동기도 상실하고 만다 (윤진·조궁호 번역, 무기력의 심리. 1983).

매맞는 아내문제도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의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학습된 무기력'이란 악순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자기주장훈련(assertive training)등 상담기술을 통하여 자아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없이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구타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구타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빨리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강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인지 현상학적 접근이 크게 지지받고 있다(김애순, 1987; Folkman 과 Lazarus, 1980; Folkman, 1984). 그런데 아내편에서 볼 때, 남편으로부터의 구타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인지·현상학적 접근이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그림 1. 대처행동에 대한 인지현상학적 접근(Folkman & Lazarus, 1980)



이 그림에서 개인(매맞는 아내)요인은, 자신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일차적 평가를 먼저 하게 된다. 그 내용은 매맞는 상황을 상실·위협 또는 도전으로 먼저 평가해야 된다. 물론 상황적 요인(구타의 성격, 빈도, 시기)등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 2차적 평가로 들어가는데, 이때 자신이 가진 대처자원(신체적·심리적·사회적·물질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구타당하는 상황을 방지·제지·통제할 수 있는가를 다시 평가한다. 이때 자신의 대처행동이 어떤 효능을 갖게 될 것인지? 또는 그 결과가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지를 검토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매맞는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들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두가지 평가과정을 통해 대처행동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격, 경찰 등 사법기관에의 고발, 부모 형제등 가족의 도움요청, 별거, 이혼 등 여러가지 방안 중 한두개로 택하여 그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매맞는 아내 자신이 상황을 평가하는 방향에 따라 그 대처양식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며,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편의 구타행동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이라는 점이다.

IV.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아동학대문제를 폭넓게 취급하여 이제 이 주제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결과가 이미 자료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 학대의 기존 연구 현황, 관련 변인, 예방 및 중재 대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연구 동향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자료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광일 고복자(1987)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혀 매맞는 경험이 없는 아동(제1집단: 33.8%), 매맞는 경험이 있는 아동(제2집단:58.0%), 그리고 매년 12회이상 심하게 매를 맞은 아동(제3집단:8.2%)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유치원생(2,792명)을 대상으로 한 김정준(1988)은 7.8%의 아동들이 심하게 구타당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개업의들과 소아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강의와 안동현(1987)의 자료에서는 46%가 구타당한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6사례는 사망한 경우이다(김광일, 1988).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989)

그리고 홍강의 등은 아동학대는 주로 그가 속한 가족내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1994, 3, 23) 이러한 자녀 구타 및 학대는 이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행동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민학교 3년생 136명 (남 222, 여 214)과 6학년생 542명 (남 288, 여 254)을 대상으로 한 연진영(1992)의 연구(「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에 의하면,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아동구타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도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12%에 불과했을때, 전반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구타나 매질은 아동 훈육의 방법으로써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친 욕설 등 언어적 학대에서 12%정도가 노출된 경험이 있다.

둘째, 아동학대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이 가정의 갈등적 및 전제적 분위기, 그리고 부부간의 불화이다. 이는 저소득층, 낮은 교육수준 등이 자녀구타의 직접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부의 금실, 가정의 온화한 분위기 등이 아동학대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가족의 분위기와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 등이 아동의 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Patterson 등(1989)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들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언어적 폭력(욕설)이나 체벌이, 나중에 그 자녀로 하여금 공격적인 비행, 범죄자가 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2. 아동학대 가족의 특징

아동을 학대하는 가족 내에는 몇가지 요인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①학대하는 부모의 요인과 ②학대받는 아동의 요인 그리고 ③기타 환경적 요인등이 있다 (Berger, 1985).

1) 부모의 특징

첫째,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모는 성격특성과 정신병리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narcissism, 성격미성숙, 공격성·충동성의 소지자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empathy)이나 자아존중감(self-esteem) 수준이 정상 부모보다 상당히 낮다. 또한 학대부모들의 심장박동율, GSR, 피부온도 등이 정상적 부모와는 다르다. 특히 학대 어머니는 유아의 울음(감정의 변화)에 대해 그 반응이 무디고, 불쾌하고 해로운 사회적 자극(noxious social stimuli)에 대해 과잉반응적이다. 즉, 그런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과 활동성 경향을 보여준다.

둘째, 일반적으로 첫아이를 낳은 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예: 10대 미혼모) 아동학대가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여러 상태에서 산모가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미혼모 상태 등에서 경제적 빈곤, 가정 내의 갈등, 배우자와 불안정한 관계 등 다른 변인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째,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정상부모에 비해, 그 자녀의 나쁜 행동을 나쁜 특성에 원인귀속시키고, 그 특성이 내적이며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정상부모는 아동의 말썽이나 나쁜 행동을 외부적 원인과 불안정한(변할 수 있는)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대 또는 유기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의 행동을 악의적인 것으로 보며, 또 부모인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Larrance와 Twentyman, 1982).

네째, 이들은 피학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를 갖고 있다. 예전에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그 부모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한 나머지 학대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대인관계나 어려운 과제 해결장면'에 있어서 학대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능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반면에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아이가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arrance와 Twentyman, 1982). 그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4단계 인지

행동모델'(Cognitive-behavioral model of child abuse)을 제시했다.

단계 1: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아동행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을 갖게 됨

단계 2: 그 아동은 부모의 기대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됨

단계 3: 이때 부모는 아동의 행동이 '의도적인 불복종'이라고 잘못 귀인시킴

단계 4: 부모가 아동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함. 이는 아동의 행동을 없애기 위한 도구적 공격일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좌절한테 대한 반응일 수도 있음

2) 아동의 특징

일반적으로 아동이 갖는 특징·행동등으로 인해 부모의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내용은 신체적·행동적 특성 그리고 발달상의 이상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출생시의 미숙아 체중미달, 혼전임신과 혼외출산, 정신지체, 신체적 장애 등의 경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며 그 양자간의 기질적 적합성이 중요하다. 또 Martin(1972)은 흔히 ①무감각하거나 비교적 무반응형과 ②공격형의 아동들이 학대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3) 기타요인들

학대하는 부모는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해 '적절한 보살핌(Care)'을 제공하지 않고 아동 역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또 가족간에 신체적 처벌이나 비난이 많고, 또 아동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동에 대해 사랑을 주거나 버릇훈련 등을 시킬때 일관성이 없는 양육방법을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편모가정에서 그리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갈등이 나쁘고 갈등이 심한 경우에 아동학대가 많다.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매우 지배적일때 아동학대가 더 많다. 즉,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다른 한편의 비공격적 부 또는 모가 이를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히 지역사회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일수록 학대가 많고, 저소득층, 최근에 커다란 생활사건의 변화가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아동학대를 하게 되기도 한다.

3. 사회·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우선, 부모의 연령, 성별, 경제수준, 직업유무 등과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실직상태에서 좌절된 부모는 정상적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더 학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조병은, 1993).

그리고 지역사회 및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 지역 사회의 폭력적 분위기, 아이는 회초리로 키워도 좋다는 문화적 규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 또한 "부모자녀 공생관계" 집단주의적(collective) 태도 등은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소홀히 다룰 위험성이 있다(김재은, 1974).

그리고 이와같은 가족·사회문화적인 요인은 마침내 청소년 비행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발달과정에서 아동기의 학대받은 경험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서 반사회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론적 연계를 밝힌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Patterson, De Baryshe와 Ramsey(1989)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훈련부족, 감독소홀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학령기인 아동중기에 와서 '성적불량'과 '또래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고, 마침내 청소년기에는 일탈집단에 가담하여 비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물론 이 모델은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방법과 감독기능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 가족 관계 요인은 조부모의 특성(반사회적 행동경향)→부모의 특성(반사회적 행동)→부적절한 가정관리→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때 부모의 특성변인에는 경제적 수입,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실직·부부간의 갈등, 이혼 등과 같은 가족내의 스트레스 요인들도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특성'이 아동 구타·유기·가정폭력 등 여러가지 부정적 행동양식을 보이고, 또 자기의 욕구좌절(실직·이혼 등)을 제3자인 아동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일시적인 카타르시스 효과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가족내의 스트레스 요인을 무기력한 어린 아동에게 전가하는 일은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다.

4.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질 적합성

아동 학대의 기제를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영아의 경우에는 분리불안(seperation anxiety),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서 보는 관점이 우세하며, 아동중기에는 아동양육과정이나 감독의 불충분을 이유로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Herrenkohl, Herrenkohl, & Toedter, 1984). 이는 서로간에 접촉과 긍정적 관계가 부족하며 자녀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고, 신체적 접촉, 애정표현, 언어적 자극도 정상적 부모보다 더 적게 준다. 또 가학적 어머니는 학대받는 아동에게 우울한 감정을 보이고, 주고 받는 상호교환적 행동이 매우 부족하다(Wasserman, 1983).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Thomas, Chess와 Birch(1968)가 주장한 기질(temperament) 문제와 "조화적합성 모델"(goodness-of-fit model)이다(Lerner, 1983), 이는 아동, 청소년,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의 활동수준(activity level)과 정서성(Emotionality)차원 등에 따라 환경에 대한 반응양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에도 서로 기질이 잘 "맞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갖고 호홉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부모가 원하는 기질(예: 긍정적 기분, 낮은 활동수준 등)을 갖고 있는 자녀는 칭찬과 사랑을 받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예: 우울한 기분, 과잉활동, 주의집중력 저하 등)에는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윤진 · 김정민, 1991).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기질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중재자(치료자)의 태도와 중재 방법

그동안 아동학대사건을 다룰때, 아동은 피해자이며 부모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들 부모 역시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궁핍, 직업적 고통등으로 인하여 좌절된 희생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 뿐만 아니라 가학적인 부모도 치료나 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홍강의(1987)는 아동학대와 구타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순서와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즉각적 개입(위기개입)

의사 · 간호사 · 사회사업가가 즉각 나서서 아동을 구원하고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입원치료를 받거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해야한다.

2) 가학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흔히 가학적인 부모는 이상 성격소유자가 아닌 한, 만성적인 자신감 결여와 몇가지 정신병리 현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과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지적 정신치료

②상담

③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④ 집단치료

⑤ 가족치료

⑥ 가정방문과 직접적 도움

또한 Parke와 Collmer(1975)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① 부모집단-자조집단

② 부모지지(보조자) 프로그램

③ 응급전화(hot-line)

④ 위기 유아원과 일시탁아소

⑤ 부모역할 교육 훈련(Parental Effectiveness Training)

㉠ 아동행동의 관리방법 - 체벌이외의 행동관리법 (소거, 대리적 반응에 대한 강화, time-out, 대화)

㉡ 부모의 훈육방법 - 긍정적 행동에 대한 강화, modeling과 role · playing

㉢ 분노의 조절법

㉣ 사회와의 접촉증가법 -- 대인관계 skill증진, 고립의 방지

㉤ 학대의 결과로 오는 큰 상처와 부작용 재인식

3)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의 개입

피학아동의 인지적 · 정서적 · 행동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아동이 부모에 대하여 갖는 증오심은 억압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들 자신이 자녀를 키우게 될 때 다시 폭력적인 부모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1) 영아와 학령전기 아동 대상

㉠ 적합한 운동과 자극을 제공하여 환경결핍을 예방함

㉡ 장난감 제공 -- 놀이 촉진

㉢ 구조화된 놀이 활동 촉진

㉣ 또래들과의 협동놀이 제공

(2) 학령기 아동 대상

㉠ 정신치료

㉡ 집단치료

㉢ 학대의 원인이 아동자신에게 있지 않고 부모때문이란 사실을 인식시킴

4) 예방책 대책

(1) 학대위험성 높은 집단의 색출과 교육

(2) 젊은 부모 및 결혼 전 교육

(3)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Gil, 1970, 1974)

㉠빈곤의 제거 ㉡실직의 감소 ㉢종합적 보건정책 및 서비스제공

㉣아동의 권리 존중 ㉤아동 훈육에 있어 체벌 사용금지 등

6. 한국에서의 개선 방안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방안을 임상적 · 제도적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해 온 홍강의(1987) 등은 그 방안을 다음 8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1) 아동학대 증례 발견 및 기초자료 수집

2) 병원과 의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 병력, 신체검진

3) 보건소 등 의료전달 체제와 기존 시설의 이용 : 간호사, 사회사업가

4) 유아교육시설(유치원 교사 등)을 통한 부모역할 교육

5) 부모 · 부부문제 등 가정폭력의 치료 (알콜중독, 반사회적 성격 등)

6) 학대위험성이 높은 가정의 색출

이상아동(저체중아, 기형아, 미숙아), 부모자신이 학대받고 자란 경우, 부모의 성격장애, 알콜중독, 저소득층 및 실직 가정

7) 일차적 예방 -- 사회 대중의 교육

특히 중,고교에서 심리학 · 정신건강 등 과목을 개설하여 건전한 기초 시민교육이 확충되어야 함.

8) 아동학대의 신고 및 피해아동의 보호체제확립

이와 같은 선행연구자료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더욱 적절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겠다.

V. 노년기의 특성과 노부모 학대

오늘날 의학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호전으로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동시에 출산율이 저하되어 노령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는 60세이상 노인이 4,037,000명(전체의 9.0%), 65세 이상은 2,397,000명(5.2%)이며, 2000년에는 60세 이상이 4,984,000명(10.7%), 65세 이상이 3,168,000명(6.8%)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평균수명도 1995년에 71.2세(남자 68.2세: 여자 75.0세), 2000년에는 72.6세(남자 69.3세: 여자 76.2세)로 예상된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2 「사회복지 장기 발전계획」).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노인복지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1) 신체적 · 정신적 건강

(2) 경제적 어려움

(3)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4)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

자녀양육과 가족을 위한 희생, 직장에서의 헌신적 직무수행 등을 위해 일생을 보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노인들은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위와 같은 4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들 노인들은 모든 어려움이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보살펴야 할 '성인자녀'와의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 생활에 있어서 노인학대 및 가정폭력과 관계된 구체적 사항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특히, 여성)에 의한 노인학대(피해자는 남성)의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인자녀에 의한 노부모 학대에 국한시켜 문제를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문제들

1) 성인자녀측의 문제들

이들 두세대 사이에는 여러가지 심리적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성인자녀측이 노부모에 대해 갖게 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이 특히 두드러진다.

① 긍정적 감정 (사랑, 열정, 존경, 온화함, 슬픔 등)

② 부정적 감정 (분노, 증오심, 수치심, 멸시, 두려움, 질시, 경쟁심, 죄의식 등)

물론 자녀측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고 노부모에 대한 사랑, 열정, 존경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무관심,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증오심 등이 있는 경우에 노부모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자녀들은 어릴때부터 부모에 대하여 질투와 경쟁심을 느꼈던 경우는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가 젊고 능력 있을때는 관계 없으나, 부모가 연로하고 능력과 역할을 상실했을때 거꾸로 보호자 위치에 서게 된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측에서 갖는 가장 최악의 감정은 '수치심(shame)'인데 거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노부모에 대해 제대로 자식노릇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특히, 성공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둘째, 그 부모가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난한 경우(또 알콜중독 또는 문제행동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자수성가한 성인자녀들은 그러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웃 친지들에게 이를 숨기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두가지 수치심으로 인하여 노부모에게 잘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자녀 자신이 '스스로 갖는 또 다른 수치심'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부모 봉양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죄의식"으로 발전해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와 같은 죄의식(guilt)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낮아지고, 처벌받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감정들은, 마침내 성인자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Silverstone, B. & Hyman, H.K.;1976)

① 노부모와 접촉회피와 철회

② 노부모에 대한 과잉애착과 접촉

③ 남의 탓하기 -- 노부모와 자기자신 이외의 제3자를 탓하기 (친구, 회사직원, 가정부 등)

④ 부정 -- 노부모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부정한다

⑤ 청소년기의 반항과 맹목적 과잉관여행동을 성인자녀가 계속한다

⑥ 희생양 만들기 -- 질병 · 실패 등에 대해 그 원인을 자신이나 노부모가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 증오심을 해소한다.

2) 노부모의 특이한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

노부모가 가정내에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동특성은 다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자녀 · 친척들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조종함

(2) 신체적 질병(와병)이나 허약함을 부인함

(3) 신체질병이나 허약함을 과장함

(4) 자기자신을 비하시킴

(5) 금전문제로 일어나는 분규

(6) 가족구성원 모두가 정서적으로 격앙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

비록 성인자녀들이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노부모측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면, 학대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2.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요인들

1) 세대간의 역동관계와 노인의 통제욕구

흔히 사회에서는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큰 세대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여전히 약간의 세대차이는 있다. 그리고 노부모 세대와 성인자녀세대가 의견충돌 및 심리적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결국에는 자녀세대가 이기게 된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투자한 시간 정력 · 금전이 노부모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세대는 오히려 버틸 수 있고, 노부모 세대는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권력소유가 어느 세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람은 노소를 막론하고 환경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controllability)을 갈망한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기보다는 여러가지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즉, 이들은 돈 음식 · 옷 · 여행 재산처분 등 모든 문제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예전 젊은 시절에 누렸던

자율성을 누리고 싶어한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경직성·조심성 그리고 어른이라는 권위의식 등 심리적행동 특성들이 연관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성인자녀들은 노인들의 이런 심리적 욕구와 갈망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노부모들은 단순히 그에 따를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와 같은 노년기의 통제욕구 및 자율성 욕구가 성인자녀 세대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2) 부부의 연령 차이와 여성의 장수

앞에서 제시한 인구통계와 남녀 간의 평균수명 격차는, 부부해로가 매우 어려움을 예언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40세의 중년 남자는 앞으로 30.6년 더 여생을 살면서 29.0년간 부인과 해로할 수 있고 오직 1.6년만 혼자 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같은 40세의 중년여자는 앞으로 37.8년간 여생을 살면서 23.7년은 남편과 해로하나 남편 사망 후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14.1년이나 된다(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2(12), p.384). 따라서 만일 20대에 동갑나기 부부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약 7년간 미망인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보다 더 오랜 기간(현재 40세인 여자는 14년이상)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구추이는 한국노년기의 가정생활의 어려운 단면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때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10여년을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신체적·지적·경제적·사회적 능력이 제한되므로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른바 노년기의 고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좌절과 욕구불만, 정서적 불안정, 등을 가족내의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 많다. 만일 젊은 여성들도 이러한 역경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이와 비슷한 좌절을 겪고 심리사회적 갈등을 보일 것이므로, 이는 연령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3) 노년기의 의존성과 경제적 빈곤

노년기의 의존성에는 ① 경제적 의존(생활비, 용돈부족), ② 신체적 의존(신체적 기능 쇠퇴), ③ 정신능력의 의존(기억·판단력 쇠퇴), ④ 사회적 의존(대인관계·친목모임참석), ⑤ 정서적 의존(정서적 안정감) 등 5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는 앞의 4가지는 모두 국가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의존성만 가족이 돌보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5가지 의존성 모두를 성인자녀의(특히, 며느리) 책임이 되므로, 가정내의 폭력이나 학대, 무관심, 유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양의 경우 여성이 55세쯤 되면 모든 자녀가 장성·결혼·독립하므로, 그때부터 65세까지 약 10년간 경비지출은 없으면서 수입은 일정하게 있는 '경제적 회복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도시여성이 57세가 될 때 막내자녀가 결혼하므로(이때 남편은 60세가 넘어 대부분 은퇴한 상태이다)(유영주, 1984), 이러한 경제적 회복기가 없다. 따라서 연금제도, 노령수당 등 적절한 노후복지 제도가 확충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하여 살게 되며 노인은 가족내에서 학대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쇠퇴

노후에는 신체적·생리적 건강쇠퇴와 더불어 정신적 건강도 악화된다. 특히, 고혈압당뇨·암·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은 가족보호자로 하여금 커다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또한 Alzheimer씨병을 비롯한 노인성 치매의 경우 그 가족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이들 와병노부모로 인하여, 자녀들편에서는 경제적 부담, 사생활의 제약, 사교활동위축, 신체적 피로, 건강악화, 근무 및 작업능력저하 부부생활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장, 정신적 부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의견 충돌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불건강한 노인들이 갖는 우울증경향, 타인에 대한 의구심 등은 평범한 가족원들로 하여금 정상적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5) 노년기 적응양식 차이에 따른 갈등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은 크게 ① 성숙형, ② 은둔형, ③ 무장형, ④ 분노형, ⑤ 자학형 등 5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적응을 잘하는 첫 세가지 유형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④ 분노형과 ⑤ 자학형은 가족 간에 커다란 갈등을 노인편에서 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분노형은 지난한 일생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이 노인자신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 "국가나 시대"의 책임으로 돌리며 항상 불평하고 남을 탓한다. 그러므로 이런 노부모는 그 가정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자학형도 자신의 일생을 "실패"라고 보고 한스러워 하며 다만 그 원인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분노형과 자학형 노인들은 모두 정신치료가

카운셀링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다(윤진, 1985).

3. 성인자녀가 처한 현재의 상황

흔히 노부모부양을 논의할 때 오로지, 노인들이 가진 욕구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부모를 돌보는 주체이며 책임자인 성인자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노부모봉양이 어려워진다. 이들은 위로는 노부모 봉양과 아래로는 자녀양육이라는 두가지 책임에 힘겹게 살아가는 '협공받는 세대'(The sandwich generation)이다.

즉, 이들은 스스로가 신체적·생리적 노화를 경험하는 중년세대이며, 자녀양육과 대학진학 뒷바라지, 직장에서의 막중한 책임과 업무수행 부담, 경제적 곤란, 신체적 건강쇠퇴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년자녀세대가 처한 현재의 사정과 노부모에 대한 학대·폭력 등과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노부모 학대예방을 위한 기본자세와 방안

위에서 우리는 노부모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일으킬 여러가지 영역에 걸친 노년기의 특수한 상황과 변인들을 살펴 보았다. 물론 여기에는 성인자녀층의 성격특성, 가치관, 경로효친사상의 결여, 신체적·물질적 안락추구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개재된다.

이와 같은 노인 학대와 폭력을 예방해결하는 방안을 몇가지 살펴보자. 물론 아내구타와 아동학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위기개입 및 중재(crisis intervention) 방법에 있어서는 예방요건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8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경제적 자립

② (필요한 경우)독립가구 유지

③ 가족관계 역동이해

④ 노년기의 정신건강증진

⑤ 새로운 역할을 찾을 것 -- 사회적으로 고립을 방지할 것

⑥ 국가의 노인복지제도(연금·정년연장·의료보장 등)확충

⑦ 유로양로원, 요양원, 노인홈, 취업알선센터, 탁노소 등 노인 복지시설 확충

⑧ 특히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 스스로 자립하거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상담소, 경찰, 동사무소 등에서 도와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노인부양과 학대·폭력을 없애는 길은, 인간 본연의 자세인 효도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따로 없다. 비록 업무의 중요성, 성공과 실패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지만, 자녀양육, 국가건설, 생업종사 등에 일생을 보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신체적·정신적 쇠퇴를 경험하며 마지막 인생의 단계를 조용히 살아가려는 이들 노부모세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존경이 없이는 노인복지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이론적 제도적·법적 논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위치에 선 이들의 존재를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가정 내의 갈등과 홀대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VI. 종합논의 및 결론

위에서 우리는 아내구타, 아동학대 그리고 노부모학대 등 가정폭력의 세가지 주요 측면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동안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체계뿐만 아니라 위기개입 및 중재방안, 그리고 예방대책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여 특히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바탕을 두고 가정폭력문제해결을 위한 몇가지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우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싸움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여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묵인·촉진되는 사회규범이 아니라 이를 억제·고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타파해야겠다. 이런 문제는 '가정내의 처리'가 어려우면, 사회복지적인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형사·사법적인 대응과 처리 대책을 동시에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복지적 대책마련에는 심리상담, 기술훈련, 쉼터(숙식처)제공, 경제적 원조, 법률자문, 의료적 처치와 도움 등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에는 오늘날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등 기타 아동·부녀자·노인 복지등에 대한 특별법들이 속속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 탁아소 및 아동보호기관 이용, 요양원 입원 및 탁노소 이용).

2. 아내구타와 아동학대는 모두 아동양육과정 및 사회화과정과 크게 관련을 맺고 있다. 폭력은 대를 물려 계속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 역시 폭력적이기보다는 타협에 의한 평화적 타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공격행동 분위기가 각 개인에게 금지해제(禁止解除, disinhibition)를 일으켜 그동안 억제해왔던 공격행동을 자유롭게 표출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정 및 사회의 분위기가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흔히 좌절을 경험할 때 공격행동을 통해 감정적 정화 효과(Catharsis)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학습과 강화' 과정을 통하여 후속되는 공격행동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실직, 경제적 곤란, 신체적 질병, 부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좌절되었을때 어린 자녀, 귀한 아내, 또는 연로한 노부모를 그 희생양으로 이용하지 말고 문제해결의 탈출구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역시 당사자들간에 조건화 내지 습관화형성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어디선가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맞는 아내는 남편의 구타가 시작된 첫단계에서 과감하게 대응하고, 또 아동이나 노부모 역시 가족, 친지, 경찰, 일선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하여 이런 폭력행동이 조건화 또는 습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한시 바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남성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갖는 태도와 신념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즉, 아내, 자녀, 노부모는 모두 자기의 가족이므로 가부장적 제도 아래 마치 자신의 '소유물' 내지 '종속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따라서 부당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적어도 이들 가족구성원 각자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공생관계(共生關係)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특히 아내구타의 경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 및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다. 법률상의 불평등한 지위, 교육 및 취업기회의 불균등, 인습적인 성역할 구분,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여성을 비하한 나머지 아내구타 등 남성의 폭력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적지위, 재산소유, 교육 및 고용기회, 인습적 성역할의 타파 등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면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아내구타가 줄어들 것이다.

7. 모든 공격행동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보면, 인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기처벌'을 중립화 내지 무효화시키는 기제가 있다. 즉, 공격행동이 '해서는 안될 일'이었을때 누구나 스스로에게 '처벌'을 가한다. 이것이 '자기처벌'인데, 자기정당화 과정을 통해 이런 자기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때 그의 가정폭력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거나, 더 심하게 구타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혼내주었다고 말하는 '정상을 참작한 비교', 자신의 폭력은 처벌이나 공격이 아니라 단순히 혼거나 '사랑의 매'라고 말하는 '완곡한 명칭부여',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기', 피해자의 상처가 별로 크지 않다고 우기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오류'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가정폭력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비판 등이 적절하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8. 특히, 노부모 등 존속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은, 모든 사회적윤리적 규범뿐만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노인들은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에서 수준이 낮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었다는 죄책감때문에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정적 인지와 자기평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앞서 Lazarus와 Folkman의 도식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가정 내의 위기를 "상실 또는 위협"으로 보지말고 "도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주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 36년, 해방이후의 혼란, 6.25전쟁, 경제적 빈곤, 농업사회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교육·직업 등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오늘날 노인복지제도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한 것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양육 등에 모든 자원을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예금·보험 등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적 준비의 여유가 없었으며 사실상

'자녀양육' 자체가 '노후 복지 보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인 자신들의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현상학적 스트레스 대처 모형은 단순히 노부모 학대뿐만 아니라.

아내구타 · 아동학대 등 모든 가정폭력의 예방과 중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9.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가족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역기능으로 인하여 생겨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은 보다 분명해 진다.

사실상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이론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Murdock(1949), Parsons와 Bales(1955), Ackerman(1968), Duvall(1979), 유영주(1984)등의 다양한 주장을 통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순옥, 1994에서 인용).

- (1) 성욕의 충족과 통제
- (2) 자녀출산
- (3) 자녀교육 및 사회화
- (4) 가족원간의 상호애정욕구의 충족
- (5) 경제적인 상호협력
- (6) 안식처의 제공(휴식 및 오락 포함)
- (7) 노약자의 보호
- (8) 종교적 기능

이때, 애정욕구의 충족, 자녀교육과 사회화, 노약자의 보호, 경제적 협력, 안식처 제공 등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부 가족구성원에게 공포와 불안, 신체적 상처와 피해, 심리적 압박, 경제적 손실 등을 안겨준다면, 이는 이내 더 이상 '기능적으로' 가족일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단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을 평온한 심리적 복지상태(psychological well-being)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도록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규범적 · 경제적 애정적 · 사회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 법적 ·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다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고복자 (1987).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광일 편(1988).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순옥 (1994). 가족의 기능과 위기. 생명문화연구소(서강대) 주최 세미나 『생명과 가정』
발표논문집, 25-37.
- 김애순(1987). 성인기의 연령증가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지 : 일반, 6(1), 1-9.
- 김익기·심영희(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김준호·김선미(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변화순·원영애·최은영(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
발원.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1992).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3회 여성사목 세미나 자
료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안동현·홍강희 (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53-65.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유영주 (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 진(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 부부와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
계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세대학교), 50, 83-97.
- 윤 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윤 진(1988). 폭력의 기제, 김광일 편(1988), 가정폭력(p.15-32), 서울: 탐구당.
- 윤진·최상진 역 (1990). 사회심리학(E. Aronson 원저, The social animal, 5th Edition),
(제 5 장, 인간의 공격성), 서울:탐구당.
- 윤진·김정민(1991). 인간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 "조화의 적합성"모델의 이론적 기초
와 그 유용성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43-60.
- 조병은(1993). 가족의 위기와 해체.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제12장), 서울 :하우,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89). 아동학대: 한국의 현황과 치료개입,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홍강희 (1987). 아동구타의 대책과 예방. *정신건강연구*, 6, 82-93.

Aronson, E. & Linder, D.(1965). Gain and loss of esteem as determin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v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56-171.

Bandura, A. & Walters, R.H.(1963).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 Y.: Holt.

Berger, A.(1985). Characteristics of abusing families. In L'Abate, L.(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ume II).(ch.29).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Folkman, S.(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Folkman, S. & Lazarus,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Gil, D. (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 Physical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Herrenkohl, E. C., Herrenkohl, R. C. Toedter, L., et al (1984). Parent-Child interaction in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ology*, 23 : 641-648.

Jones, E.E. & Nisbett, R. E.(1972). The actor and observer : Divergent perception of the causes of behavior.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 Greneral Learning Press.

Larrance, D. T. & Twentyman, C. T. (1982). *Maternal attributions and child abus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Rochester.

Lerner, J.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soci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s :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49-157.

- Martin, H. P. (1972). The child and his development. In Kempe, C. H. and Helfer, R. E.(eds.).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 Silverstone, B. & Hyman, H.K.(1976). *You and your aging parents*, N.Y.: Pantheon
- Sternberg, R.(1986).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 Parke, R., & Collmer, C. (1975). Child abuse : An interdisciplinary review. In Hettierington, E. M.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5,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tterson, G. R., DeBaryshe, B.D., & Ramsey, E.(1988).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Thaxton, L.(1985). Wife abuse. In L'Abate, L.(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ume II).(ch.28).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 Thomas, A., Chess, S., & Birch, H.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sserman, G. A., Green, A. H. & Allen, R. (1983). Going beyond abuse: maladaptive patterns of interaction in abusing mother-infant pai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2, 245-252.

토론

남 정 현 (한양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

폭력이 발생되는 기제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급하다. 순간적, 찰나적 해결책이 급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여건상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힘들다. 정신과의 입장에서 매맞는 아내의 남편은 사랑 없이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것은 서로 고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폭력 남편들에 대한 해결책, 치료책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없다고 본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혈연에만 국한지어 보기 보다는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로 보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독립된 영역을 가지며, 각자의 영역은 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상호협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거의 가족처럼 한 두명의 희생으로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다. 핵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두명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이 모두 소중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족 안에서의 폭력의 문제는 아내구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경우, 형제간의 폭력도 존재할 수 있다.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의 처벌에 대한 교육적 개념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의 가능성은 도처에 있다. 문제의 해결책을 법개정이나 제도의 변화로 찾지만. 결국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다. 성폭력법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수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혼을 한 이웃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폭력, 사회적 공격성의 측면도 있다. 대문 밖의 성적 표현물, 4대 일간지의 광고, 여성 잡지, 스포츠 신문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중문화는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문화이다. 메스컴이 남성,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델을 보여주기 보다는 각각의 대상에게 아부하는 모델들을 제시한다. 대중문화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태도를 고쳐보자. 첫째 솔직해지자 노인의 문제는 막연한 생각 보다 훨씬 심각하다. 많은 노인들이 술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치매 노인의 숫자도 증가하리라고 본다. 문제를 솔직히 밝히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사회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자. 셋째 복지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 각 계층에게 알맞게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여야 하나, 현재의 모든 행정들은 결과 평등주의로 되어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의 모델을 비롯하여 각 계층에 맞는 다양한 선택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발표자 답변

폭력이 없는 가족은 이렇게 살아간다까지도 언급하여야 했는데, 문제의식에서 일반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다. 사랑에 관한 논의에서 볼 때, 폭력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애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갈라서야 할 때에는 갈라서야 한다.

가정의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폭력의 문제도 심각하다는데 동의한다. 폭력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도 보통 사람들은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조계사 승려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은 이렇게 억제하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해체시켜 버리게 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억제하고 있던 감정을 풀어버리게 한다. 그러한 사회 폭력에 관한 연구와 올바른 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청중질문

1. 앞선 청소년과 가족에서의 문제와 유사하게 일반적 가정의 폭력과 병리적 현상을 보이는 가족의 폭력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 가정에는 우리가 폭력이라고 의식하지 않는 폭력, 예로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 때려야 한다. 농촌 가족의 경우 뺨을 한 대 맞거나 발길로 채이고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 대화나 사회적 계몽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폭력과 사람을 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이 두 유형을 서로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2. 실제 상담을 해 보면 정말 사냥'이라는 말에 동감하게 된다. 저희 상담소에서 7000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고, 그 중에서 10%정도는 직접 면접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면접상담중 80%가 매맞는 아내였다. 컴퓨터에서 머물고 간 여성이 113명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다. 사랑이나 스트레스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치료책은 있는지 듣고 싶다.

3. 발표자가 아동학대를 보는 관점과 아내학대를 보는 관점이 차이가 난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아동학대를 보는 관점은 즉각적인 개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가 나서서 아동을 구원하고, 아내학대의 관점에서는 부부간의 심리적 기제를 말하고 있다. 또 노인문제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볼 때, 가장 큰 역할은 며느리이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지워 볼 때는 아들, 며느리뿐 아니라 딸이나 사위도 함께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정법원의 '화해조정위'가 있는데, 법원의 법률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병이라면 효과적이고 과학적 치료책도 병행하여야 하는 것인가? 심리학이나 신경정신과 등 전문적 인력이 참여해야 하는가?

- 청중질문에 대한 답변

(남 정 현 교수)

병리적인 것과 관습적인 폭력이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3-4번 이상 상투적으로 매를 맞는 아이가 8% - 9%이고, 한 대도 매를 맞지 않는 아이가 12%에 불과하다. 병리적인 부모가 있는 경우가 8% - 9%가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은 응급상황이다. 꼭 구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12%를 빼 나머지 88%에 대하여 법적 구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젊은 어머니들이 꿀밤 주는 것이 나이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폭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꼬집고 귀찮게 하는 것도 아이입장에서는 폭력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9%이지 나머지는 상담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 그 9%의 아이들이 병을 일으킬 경우 치유하기가 어렵다.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매맞는 아내의 경우도 정신과 의사가 이혼하라고 할 경우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다. 이혼하라고 하지는 않고 상담소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대신 공동으로 법률적인 자문은 상담소에 일임하고 심리쪽 치료는 정신과에서 하는 합동치료를 현재 하고 있다.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자아가 순간적으로나마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치료가 된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과가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다. 여성의 전화 센터를 다녀 간 여성들의 지속적인 구타 남편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나 아니냐는 것은 본인의 심리적인 욕망이 없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저 사람은 마누라 때리는 사람이니 상종을 하지 말자, 술도 같이 마시지 말자, 이렇게 에이즈 환자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같이 살아도 될 에이즈 환자는 회사에서도 내쫓는데, 마누라를 두들겨 패서 마누라 다리를 부러지게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옆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에이즈 환자와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결국 자기가 때리고 싶을 때는 병원을 찾아오거나 자제를 하게 하는 치료적인 욕망이 개인에게도 생길 것이다.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야, 너 말대답하는데 가만 댔냐?' 라든지 '야 잘 때렸다' 이런 식으로는 반응하는 상황에서는 치료에 대한 욕구는 평생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치료는 안되는 것이다.

(윤진 교수)

상습적인 매 맞는 아내의 경우 습관적인 것인데 그러한 습관의 연결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용기가 없거나 사회적인 기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앓을 수록 여성은 계속 매를 맞고 살아야 한다. 가능한 한 어디선가 혁명을 일으켜서 대결을 해야 된다.

부부학대를 보는 눈과 아동학대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 매 맞는 아이들은 특수한 아이들만 맞는 것은 아니다. 학교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며느리 이야기만 하느냐, 딸이나 사위도 논의를 해야 하느냐에는 동의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짐을 노인복지법의 경우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라고 하여 가정에서 다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 가정은 누구나 결국은 며느리이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 고민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권한이 너무 없다. 일례로 감호소의 경우 소년원이나 성인범들이 출소하기 전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 그 업무를 7급, 9급 공무원들,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가정 법원의 조사관도 심리학 전공자들이 없다. 법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일반 상담소들도 심리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협동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주제 5

공동체적 삶을 향한 가족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1. 서론: 무엇을 공동체적 삶의 단위로 볼 것인가?
2. 우리가족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
3.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가족운동
4. 결론: 미래의 가족

공동체적 삶을 향한 가족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1. 서론: 무엇을 공동체적 삶의 단위로 볼 것인가?

가족의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결혼과 법적 혹은 생물학적 부모됨에 기초를 둔 적어도 2인 이상의 가족원이 주거를 같이 하며 정의적 유대, 보호와 지원, 공통된 정체감으로 통합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과 세대, 시대에 따라 다르다. 특히 모든 사람은 가족에 속해 있으므로 가족은 성과 연령 및 입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의식하고 대단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족은 자연스럽고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된다는 입장에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해 향수를 느껴 '엄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가 있는 부계 중심의 대가족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면서 가족은 평등과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 대한 합의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양성평등에 입각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지난 60, 70년대 경제발전기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이었다. 따라서 가정하면 바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이요,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중심의 핵가족 유형을 쉽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전통사회에서 중요시 여겨지던 '가족의 통합'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가정에서 구성원간의 대화단절, 성(性)과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개별화 현상이 두드러져 통합적 단위로서 가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구성원은 각기 다른 경험과 삶을 영위하고 가족은 더 이상 정서적인 '안식처'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족내에서 개인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가"하는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은 개인을 억압하는 장소로 보고 가족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가족안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각 구성원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두 논점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가정내에서 진정으로 개인이 존중되면 결국은 조화로운 삶을 유지해 통합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가정내 평등과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는 높은 차원에서의 가치라 할 수 있다.

핵가족 구조가 가지는 커다란 장점은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에 맞게 '개인의 정서적 만족'과 '아동의 사회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아버지의 경우 직장에서의 장시간에 걸친 근무와 동료와의 교제에 따른 가정에서의 상대적인 소외를 겪는 반면, 어머니는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소외현상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자녀교육의 과열화로 인한 가족관계 및 기능의 마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가족원의 불의의 사고, 혹은 가족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면 남성은 가정내에서 정서적인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노인의 부양문제, 청소년문제, 가정내 폭력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가족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성질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삶이 특수주의적 혈연중심에서 지역 및 이웃중심의 관계로 확대된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보편주의적 가치관은 혈연이나 지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웃과 지역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움직임의 밑바탕이 된다.

그러면 무엇을 공동체적 가족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이효재는 가족의 공동체적 기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차이에 따른 차별없이 사랑과 협동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로서 이해타산과 경쟁보다 협조와 이해를 강조하며, 부모·자녀·형제 간에 전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개인적 성장을 위해 서로 지지하는 것을 기대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동과 소비를 공동으로 하며 경제생활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동에 참여한다. 생로병사를 통해 서로 돌봄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은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가족공동체는 자율적, 자치적, 총체적 삶의 단위로서 외부의 간섭이나 억압적 권력의 지배없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이다. (이효재, 1985)

본 논문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형태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경제적, 정서적인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혈연·비혈연의 핵가족들과 개인들로 구성된 확대가족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가족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운동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체 농법에 의한 먹거리를 거래하는 생협운동에 참여하고, 자녀의 교육문제 및 탁아문제를 논의하는 대안적 가족문화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삶의 형태도 여기에 포함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핵가족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도 가족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적 삶의 한 시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데에서 시작할 것이다.

2. 우리가족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

고대 철학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사상의 주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공동체적 혹은 공동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진 퇴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저서에서 공동체적 사회는 정서·애착 정신적 흡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의식적으로는, 전통을 통해 자신의 자기 정체감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공동체적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보았다. (1) 자손관계(혈연 혹은 법적관계로 간주되는 것), (2) 공동거주로 특징 지워지고 부부 및 가족관계에 고유한 관계, (3) 우애관계, 정신적 친근감과 유사성의 인지에 기반하며, 이 인지는 이웃과 '함께 함'을 요구하고 또한 이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코르 S. 콘, 1992) 현대가족과 사회에서 우리 가족의 이기적인 삶은 이웃간의 인간관계의 불신과 단절을 낳았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사랑, 평등,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잃어 버렸던 초기 공동체적 사회의 목적과 본질을 되찾아서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도와주는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유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대처

전통사회의 대가족제도에서는 개인이 생로병사의 위기에 처하면 가족공동체에 의해 처리되었다. 위기에 당면했을 때 최소한 가족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서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현실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병을 치료해야 할 경우 또는 불구가 된 경우 핵가족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부간의 사별이나 이혼은 또한 한 가정의 생활 특히, 자녀의 삶을 위협한다.

한국가족의 경우 서구사회에 비해 가족의 혈연적 기반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린다는 징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가족세대별 구성이 보다 단순해지고 있음을 볼 때 전통가족에 비해 친족관계망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가족의 경계가 부계가족중심에서 양계가족으로 이어지는 "공간적으로는 축소되고 시간적으로는 현재화"되는 현상을 보이며(함인희, 1993), 가족형태는 핵가족, 직계가족, 편부모가족, 단독가구 등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기능, 관계의 변화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 구조에서 볼 때 세대구성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녀 수의 감소로 소인수화되고, 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의 감소로 인한 탈자녀 양육기의 부모의 여가시간의 활용,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가족 기능의 변화는 전통가족은 생산 소비의 자급자족에서 생산기능의 약화와 소비기능의 강화, 출산 기능의 상대적 약화, 부부간 성생활 기능의 강화, 가족의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의 강화, 여성의 가사노동 절대시간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함에 따라 부부의 평등관계의 중시, 부모-자녀관계의 애정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문제를 보면, 첫째, 부부간의 역할이 여성은 주부로서, 남성은 경제적 생활의 부양자로서 고착되면 성(性)을 불문하고 개인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남성은 생계유지자로서 지나치게 도구화되어 가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고, 여성의 경우 가족집단의 안녕과 감정관리의 역할을 혼자 떠맡음으로써 자신의 자아 정체성 보다는 남편과 자녀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 가정주부의 불안정한 사회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자녀의 교육에 열을 올리게 되고 자녀들은 모성적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부모의 의사에 따라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성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면 여성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나 홀로서기를 원할 때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크다.

둘째, 가정내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핵가족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국가나 사회복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보장은 자녀들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인력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산업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와 가족을 관련시켜 본다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맞벌이 가족의 증가현상과 변화된 직업생활로 인하여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출타하는 '비동거(非同居)가족' 형태의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박숙자, 1991) 이들 두가지 유형의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 즉 가족원이 모두 함께 동거하며 남편만이 직업을 갖는 형태의 가족과는 기능이나 역할분담체계면에서 다를 수 밖에 없으나 전자의 경우 자녀양육이 가장 큰 문제라면 후자의 경우는 서로 떨어져 살면서 오는 정서적 역할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적응과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신세대의 삶의 유형 중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해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이혼율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고 가부장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자기주장이 강하다. 기성세대의 부모는 자식의 교육에 모든 재산과 정력을 투자한 만큼 신세대의 자기자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하다. 따라서 결혼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양육도 서로 상대방에게 떠 맡기거나 아니면 입양기관에 쉽게 맡겨버리는 경우를 빈번히 경험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훈련받지 못하고 있어 극도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로 치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섯째, 핵가족하의 개인의 사생활 보장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으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나쁠때 가정내에서 폭력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아내나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남자중심의 각종 문화유산이나 잘못된 관습이 가정내에서 가장의 폭력을 용인하고 있어 가정내 아내학대, 아동학대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부부중심의 핵가족마저도 개인의 기본생활의 보장과 안정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으며 성과 대상에 따라 가족의 문제는 다각도로 일어나고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가족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부계중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제도로서 사회변화와 관계없이 전통적인 삶을 고수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함으로써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가족이기주의의 극복

가족이기주의는 가족원 각자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중심적 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우리들은 가족의 일원이고, 더우기 가족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기반인 점을 인정하는 이상 이웃보다도, 친구보다도, 가족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가족이라는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 존재하는 이상 가족이기주의는 존재하므로 가족이기주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가족이기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 가족구성원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나 기타 공동체의 발전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표명도 하지 않아 공동체적 연대감을 잃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자아내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재은, 1991)

가족이기주의적 현상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달과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특징은 서구 자본주의 윤리인 경제와 성취 이외에 친족관계와 같은 세습적 귀속관계 및 지연·학연과 같은 다양한 귀속적 유대와 떼어놓을 수 없이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박영신, 1987) 정부는 경제성장의 발전과정에서 잘 살아 보자'라는 이념을 내세워 새마을 운동사업을 벌였는데, 이러한 슬로건은 우리사회의 가족주의적인 성취지향성에 부합되어 각계 각층의 집단에게 호응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목표로 광범위하게 동원할 수 있었다. 즉 '우리 집안이 잘살아야 한다'라는 이기주의적 가족주의의 성취지향은 성공과 복지를 지향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낳았던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순조로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조건에 가까운 헌신을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동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의 전인적 교육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라는 동기, 곧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동기는 자유경쟁 체계의 산업사회가 갖는 합리성은 외면하고 경쟁논리만 부추기는 이 사회의 부조리 내지 병리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일류대학에 입학해 좋은 학연을 맺는 일이 중요하므로 학업성적의 향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안가리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다. 한동안 신문기사에서 떠들썩했던 소위 강남의 명문교의 비리사건, 내신조작 사건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과내용은 관심없이 어쨌든 대학에만 진학하면 된다는 학부모의 전형적인 가족이기주의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이기주의가 사회의 지도층에 속해 있는 부모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은 더 하다고 보겠다. 지난해 사회의 고위층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사건이 터졌을 때 한결같이 아이의 아버지는 모르는 사실이고 엄마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여성 또한 가족주의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성역할의 분리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이상화하면서 여성을 가족이라는 제도로 묶어냈기 때문이며 자식이 잘되면 곧 어머니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주의적 사고의 발상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가족간의 연대감, 의사소통, 상호부조가 감소되면서 가족은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간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족만이 잘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가족만이 잘살겠다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주의적 가치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가 밀접히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 일의 개념변화 인식

자본주의의 발달단계에서 현재까지는 생산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사회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터"와 "가정"이 명확히 분리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품생산의 기본과정들이 사회화되었으며 개별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의 개개인의 노동을 파괴하고 그것을 거대한 회사라는 단위로 집중시켰다. 물질적 생산과 사회적 관계가 가족에서 국가차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가정은 개별적인 사적공간으로서, 비정한 사회에서 벗어나 설 수 있는 안식처로, 그리고 주관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남게 된다. 개인생활'과 정치생활', '가족'과 경제'와의 분리는 자본주의의 가족구조에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립은 대중의 개인생활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영역을 창조하면서 가족을 사회화된 생산에서 격리시켰다. 이 과정은 여성과 남성을 철저한 방식으로 격리시켰으며 남성지배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주부들과 어머니들은 가사일, 자녀양육 등 전통적인 생산행위를 계속하게 된 반면 그들의 노동과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화된 생산과의 격리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저하시켰다.

(EliZaretsky, 1976)

그러나 21세기에는 여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현재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응용은, 생산과정과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로봇이나 컴퓨터제어 기계로 대체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체는 작업공정에서의 기술혁신과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질도 변화되어 육체적인 물리적인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반면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술 및 생산방식, 노동공급구조 및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고용관리제도를 전환시켜 여성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여성 고용형태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시간제, 파견, 계약고용, 재택근무 등과 같은 방향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다. (김태홍, 1993) 새로운 기술로 꼽히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의 광범위한 확산은 우리의 산업구조나 직업구조 등 경제활동, 가치규범, 가족구조, 교육제도 등 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비정형고용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기혼여성의 공급이 증대됨에 따라 시간제,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제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 중에서 결혼, 출산, 육아기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¹⁾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에서 일과 가정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탄력적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탄력적인 역할분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뜻이 맞는 가족이 함께 모여 가사역할과 자녀양육의 공동분담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하는 공동체적 가족의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가족을 둘러싼 환경문제의 개선

21세기의 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발전과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대사회의 제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비관론자들은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자원의 고갈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은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공업화를 통한 GNP 증가를 최대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경제발전은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무책임한 산업의 확장만을 일삼았다. 이제 우리의 좁은 국토의 자연환경은 공해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하고, 생활환경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얼마만큼 인간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진정한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인가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이용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서는 200여년 걸렸던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난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룩하면서 생활환경은 상당히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빈약한 부존자원과 자본이라는 한계속에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국가개발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불충분하였던 것이다.

환경문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장(場)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가족을 둘러싼 유해한, 혹은 친밀하고 풍요롭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의 가족은 환경문제에 개인적으로 접근하거나 단지 소비하고 낭비하는데 그쳤다. 가족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삶의 유형에 익숙해지고, 소비행위, 에너지의 사용 및 여가를 통해 자연과 접촉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가족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의 변화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 내에서 여성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변화의 주체라는 인식이 최근에 들어 싹트기 시작했다. 즉 여성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새로운 눈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는 맥을 같이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된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1993b)

가족원은 환경교육을 통해 동기유발, 혹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생각, 미래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 및 창조적인 측면에서의 협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세력화(empowerment)란 '사람들의 의사결정 및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위를 가능케 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은 분명히 세력화될 수 있는 대상이다.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가족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학습을 한다 이것을 가족이 가지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볼 때 가족은 단체정신, 문제해결, 토론, 의사결정. 판단 및 융통성을 배움으로써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United Nations, NGO Committee on the Family, 1992)

그러므로 가족은 개인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관한 개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동반자이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가족의 참여는 결국 가족의 세력화와 지위상승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의 경제·정치구조와 맞물려 있는 가치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비분리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환경운동을 통해 유기적이며 평등한 인간관계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방자치시대에서의 가족정책 변화모색

지금까지 중앙집권하의 권력구조는 국민생활에 관한 행정을 획일적으로 시행하여 각 지방의 특수성이나 다양성을 무시하며,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나 애郷심을 기를 수 없었다. 현대적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의 공동체적 연대가 한국의 전통적 종교나 전통적 공동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미약하다.

현재 중앙집권제의 우리나라의 가정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는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문제가 가정내에서 해결되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가정을 그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따로 떼어 취급함으로써 분명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기는 하되, 한 가정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은 분명히 가정복지의 중요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전부는 아니며(남성이 빠져있음) 무엇보다도 그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욕구를 집단적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속한 가정과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복지는 가정문제 해결을 돕는 기본대책이 없이 가족원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상태에서 그들이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 다루고 있다. (성민선, 1988)

현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의 해체와 동시에 맞벌이 부부가족, 편부모 가족,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비동거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families)'이 출현하고 있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협의의 복지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사회내에 통합시킬 수 있는 광의의 가족정책을 철저히 요구하는 단계에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될 때 각 지방정부 가정복지국에 주어지는 과제가 민주화, '전문화', '공동체화(communalization)'라 한다면 (김성이 1988) 중앙정부는 전국민 또는 동일한 욕구를 가진 전체인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가족정책을 수립·수행하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하에,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각 지방 특유의 가족문제점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민주적, 전문적,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시행은 각 지역사회 특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들이 문제의 확인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시행, 평가과정과 다음 정책에 '피이드백'과정까지 참여하는 속에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이 수립되고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비로서 혈연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 만들어진다고 보겠다.

3.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운동

현대에 와서 세계 각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소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였다. 캔터에 의하면,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선택한, 그러면서도 보다 높은 자연법칙과 정신적 법칙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질서 안에서 친밀하게 행동하면서 함께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효재, 1985) 이들은 공동체에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하며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과 합치하고 개인적 성장과 자유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을 통해 경쟁이나 자기보존적 행동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며, 대신에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상호책임과 신뢰의 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조화, 형제애, 상호협조, 자원과 재원을 공유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체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들을 그러한 가치관 위에서 내린다.

정치·경제·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전부가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를 띠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혈연의 핵가족으로 구성된 확대가족, 한 지붕아래에 사는 가족, 개인들이 함께 모인 가족을 위시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생협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공부방운동 등에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도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가족에 포함시킬 것이다.

가. 더불어 사는 가족

1)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가족

아직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사는 소위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직종에 근무하거나 종교가 같은 경우 혹은 동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웃하여 지낸다는데 의의를 두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작게는 4가구에서 20가구 안팎인데 이는 20가구 미만의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인 듯 싶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는 대지를 6명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은 동호인 주택이 있다. 이들의 주택은 1층에 2가구씩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과 다락방은 공동의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이곳의 지하실에는 공동응접실로 쓸 수 있는 홈바가 마련돼 있으며 바둑판, 당구대, 헬스 시설을 갖추어 놓아 훌륭한 가족오락장 겸 체력단련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붕 아래 다락방에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로 꾸며 역시 공동으로 사용한다.

뜰과 주변환경의 청소는 하루에 한집씩만 관리해도 일주일이면 되므로 늘 정돈되어 있고, 경조사에서는 늘 한집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점이 함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취미생활을 공유하기도 좋고 방법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각출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는 집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겨울에 난방을 위한 기름비, 관리비 등을 함께 공동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의식이 없다면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으나 이들은 서로 한 식구처럼 아끼며 함께 나누어 지불한다. (「여성동아」, 1993 4월)

각 가정마다 교육관(觀)이 다소 달라 처음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고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질서를 찾아가고 있으며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함께 살면서 가정생활에 미치는 좋은 점은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의 내면을 들여다 보기 어려우나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니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다른 가정의 좋은 점은 본받게 되고, 나쁜 점은 고치게 되는 판단력이 길러지고, 대가족제도는 아니지만 위 아래 질서가 있어서 좋다"고 하는 심씨(42세)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남편은 가정일은 소홀히하고, 두루두루 바깥 일을 돌보던 바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니 남편도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이 단합하게 되었고 다른 가족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부부싸움시에도 남편은 남편들끼리, 부인은 부인들끼리 충고를 해줄 수 있어 가정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점이 매우 좋은 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세대간의 단절이 심해지는 요즘 '부부는 부부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하는 식으로 수평적인 유대가 중요한 것 같다"며 "노후에 이보다 바람직한 일이 어디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2) 집안간의 담을 허물고 사는 가족

원이네(5식구)와 민화네(6식구)가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두 가정은 10여년전부터 알고 지내왔는데, 새로운 신앙운동의 대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기농법으로 지은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계기가 됐다.

이들은 생활운동 성남지구 분당지역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활동은 생산지 견학, 환경살리기 운동(쓰레기 매립장, 탄천), 어머니 학교, 통일관광, 수입개방저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생활협동운동을 통해 나라살림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두 가족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점점 더 개별화되어 가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생각과, 불신과 탐욕, 과소비와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생각해 볼 때 공동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공동생활이라면 수입까지는 같이 합쳐서 살아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는 못 이르고, 지출도 전체 살림에 드는 비용만 공동부담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자 해결한다. 공동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점은 처음에는 많았지만 이제 많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공동생활의 좋은 점도 많다. 부모의 외출시 아이들이만 남겨두고 나가려면 걱정이 되는데 서로 안심이 되고, 집안행사를 치러야 할 때도 서로 도우니 큰 힘이 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여성동아」, 1994년 3월호) 큰엄마 역할을 하는 김씨는 '자기생각을 많이 억제하고 남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살때 남편은 바깥 일이 많아 가정 일에 소홀히 했어요. 그러나 같이 살면서 남편이 바깥 일을 억제하고 가능한한 집에서 집안 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동료애가 생깁니다. 특히 두 가정이 함께 생활운동을 하게 되니까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작은엄마 역할을 하는 박씨는 "현재 남편이 회계사 공부를 하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데 떨어져 살고 있어도 일이 많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공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질서가 없어서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동생들이 오빠에게

잘하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어요. 특히 작은 딸이 큰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속상할때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았으나 말을 안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큰아버지 역할을 하는 장씨는 "아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아 잘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스트레스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요.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 서로 상의하고 대안을 생각하지요""함께 살면서 본인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깥 일에 신경을 쓰다보니 집안 일에 소홀히 했으나 이제는 가족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 오는 시간이 매우 기쁘므로 가능한한 집에 일찍 오게 되지요. 밖에 나가도 즐겁고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당초 2년간 함께 사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그 후에도 계속 같이 살게 될지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들은 1,2층을 나눠 쓸 수 있고 가족공동공간과 문화공간을 갖춘 집을 꿈꾸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 그리고 내 식구'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소외된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진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여자 30명이 한집살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자활교육을 위한 생활공동체 '맑음터'가 있다. 이 여성 장애인 공동체의 첫 출발은 지난 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신지체와 자폐, 뇌성마비 등 중복장애를 가졌으면서도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어중간한' 장애여성 4명과 권원장은 합정동에 살림을 꾸렸다.

그 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자활책이 없는 장애인을 비롯,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 25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

작업장겸 교육장겸 생활장으로 이용하기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자, 이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팔을 걷어 붙이고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 교실을 마련했다. 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에 색칠하고 봉투까지 수공으로 제작한 카드를 비롯해서, 쿠션 및 생활 소품들을 만든다. 그 외에도 도자기 소품과 수직발, 가방 등을 만든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재활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봉사자들과 미술대학 출신 전문직 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카드는 카톨릭 사회복지회 재활사업부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다른 작품들은 아직 상설 판로가 개척되지 않아 비정기적인 바자회에 선을 보이는 데에 그치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 통원이 어려운 9명은 맑음터 생활장에서 상근봉사자 3명과 함께 숙식하면서 신변처리, 간단한 가사 실습과 청소 등 일상적인 생활적응 훈련을 받는다.

장애자 수용 자활시설이라는 거창한 설명보다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정공동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곳이다. (평화신문, 1994년 1월 23일)

나. 지역사회운동을 하는 가족

1) 생활공동체 생협운동: 부천 YMCA 생협의 등대모임

부천 YMCA 생활협동운동은 생활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영역별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생명문화운동이다.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과 저공해 상품들을 직거래형식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고, 이런 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조직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꾸는 학습활동을 전개하여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구체적 생활영역별로 지역사회에 참여, 실천하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해당 등대는 1주일에 한번 주로 생협으로부터 공급받는 날에 모임을 갖는다. 시간은 그 전 주 모임에서 촛불(조합원)들의 외부활동(월례회, 분과활동)과 자녀들의 수업시간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모임장소 역시 그 전 주 모임에서 정하되, 각 촛불의 집을 돌아가면서 한다.

부천 YMCA에서는 등대 모임 일지를 각 등대에 배포하는데, 일지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모임이 진행된다. 크게 1.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의례화된 분위기를 띄고 이에 비해 2부에서는 생협이나 YMCA모임에 참가했던 촛불이 거기에서 제시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촛불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주부들의 자유로운 활동 및 토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아파트라는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촛불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몰랐다가 생협활동을 하면서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1992)

생활공동체 생협운동은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여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의식을 확산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히자는 운동이므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공동체 생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집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다소 만족' 이상 61.4%)는 일반여성(다소 만족 이상 34.6%)보다 더 높으며 불만족의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1991, 1992) 생활협동 참여주부들의 가족관계를 볼 때, 부부관계 만족도('만족한다' 이상 87.7%)를 일반여성('만족한다' 이상 70.0%)과 비교해 볼 때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 이들의 만족도(90.2%)는 일반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생협운동에 참여하는 주부들 중에서도 주부 스스로 단결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주부들의 영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2) 환경 운동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이 결성된 배경은 구로 1동 지역 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행정구역상 구로1동 지역은 '87년 이전까지는 공단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수도권 인구의 확산과 그에 따른 도시공해 문제로 난립되어 있던 무허가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된 후에도 이전 안된 공해유발 공장들이 많았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비행기 소음도 컸다. 주민들은 모였다 하면 소음과 냄새문제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었고 공통된 관심은 자연히 공해문제가 되었다. 결국 지역 공해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이 지역의 부부들은 지역과 공해문제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은 하늘·땅·물 살리기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맑은 공기를 숨쉬며, 깨끗한 물을 만들며 공해없는 우리 땅을 만들자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기오염 측정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 땅을 살리기 위한 생활협동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환경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키운 문씨(43세)는 '91년 회원들, 주민들의 권유로 광역의회인 구로구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 했고 망설였지만 지역운동의 어려움을 느껴왔고 관차원에서 포괄적이고 힘있게 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의의있을 것 같아 선거에 나선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1993a)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가 이 문제를 접해 보니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았어요. 여성들이 집안에서만 소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집안일 바깥일을 모두 내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매우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그는 사회활동의 고충을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자세는 매우 기운 빠지게 해요. 40대 주부들의 경우 이제는 가정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섰으니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는데 편리함만을 찾고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을 회피할 때 외로움을 느끼지요. 집안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사회활동으로 연결시키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은 힘들어요." 이렇듯 문씨는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는 환경문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사회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3) 교육운동

참교육 학부모회는 참교육에 대한 합의된 교육적 소신에 기반을 두고 회원 상호간의 강한 동질성과 열의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전국 본부 및 서울지부에서 활동 역량을 키워온 임원이 영입, 여기에 전국 및 서울지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에의 참여 등으로 지회활동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거나 힘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88년경 서울 목동아파트에 거주하고, 평소에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주부들이 독서토론, 강의 등을 받으면서 건전한 얘기를 나누는 모임을 형성했다. 모임의 활동은 전국 규모로 육성회비 반환 청구소송등이 행사진행과 더불어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참교육을 주제로 한 시민대토론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회내 전회원이 모이는 월례회를 시작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손으로 쓴 중.서부지회 소식지를 발간하였고, 이를 시초로 소식지는 4년여 동안 순수한 학부모의 힘으로 단 한차례도 중단된 없이 월1회 발간되었다.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수익사업을 벌였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주입식 수업이 아닌 참교육 이념에 맞는 시범수업을 실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동네 중심으로 모이는 지회 소모임을 개설, 주부이면서 전교조 회원인 교사들

모시고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갖기 위한 역사공부 및 품물익힘 등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회원의 확산 및 학부모 활동의 지역화를 위하여 동네 소모임의 구성을 시작한다. 먼저 지회 임원 해당 동네에서 같은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아파트 엄마들을 상대로 글쓰기 교육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학부모로서의 글쓰기관(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5회정도 실시하면서 회원으로의 유도를 위해 소모임을 시도하였으나, 모임을 주도해 나갈 활동 인원의 부족과 채워나갈 내용의 개발부족 등 훈련받지 못한 전업주부로서의 활동한계를 드러내면서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른 상시적인 모임들만 계속된다. (한국여성개발원, 1993a)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홍씨(36세, 남편 37세, 자녀 국3)는 일주일에 2일 아침 9시 30분에서 오후 2시경까지 참여한다. 그리고 컴퓨터 작업과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지고 와서 한다.

홍씨는 결혼 후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직장에 다녔다. 직장을 그만 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책을 읽던 가운데 주위에 해직교사가 있어 참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학부모 운동을 하는 아이의 친구 엄마가 있어 활동을 지켜보다가 일을 하게 되었다. 홍씨는 "처음에 회비, 용돈을 써가면서 일할 때는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신문, 소식지를 통해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을 볼 때 결혼전의 나의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같아 오히려 자기개발비를 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는 주위사람들이 교육문제를 생각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고 생각이 비슷해지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보람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홍씨의 남편은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고, 아이가 하나라 상대적으로 가사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다른 여성들보다는 적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며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과 자녀, 남편과의 결속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 준다고 한다.

"아이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부모를 찾는 일이 종종 있지만, 대신 자기 엄마는 다른 엄마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낮에 엄마가 없을 때 아이의 생활태도를 바로 잡아주는 기회는 적지만 친구를 데려다 집에서 재우거나, 다른 집에 보내기도 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보충해 주기도 하여 전체적으로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남편은 나의 사회활동에 반대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불편을 준다면 싫어할 꺼예요. 그러나 현재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설혹 남편이 있다 해도 남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정도에서 요령껏 일을 하지요. 남편은 혼자 벌어서 살아가기 힘든 요즘에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덕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지요."

4) 친구네 공부방

친구네 공부방이 위치한 봉천 6동은 1965년 청계천, 동부·서부 이촌동 등지의 수재민들이 집단 이주하여 정착한 동네이다. 이 동네 가구주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정규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보다는 건설 일용노동자나 기타 노점, 자영업 등을 많이 하고 있으며 무직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주거형태는 반수 이상이 전·월세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구원은 대부분 3-5명 정도고 그 이상인 가구도 상당한 편이나 이에 비해 사용하는 방 수는 1개 내지는 2개가 태반이다.

경제적 상황을 보면, 저축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빚을 진 가구도 많다. 그나마 저축을 하는 가구도 세입자인 경우에는 오르는 방값을 치르느라 저축한 돈을 몽땅 쓰게 된다. 봉천 6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문제이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공부방 시설,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실업문제, 노인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 특성상 봉천 6동의 가구원은 4-7명이 대부분인데 반해 사용하는 방 수는 거의 1개나 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환경과 아울러 교육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오락실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방이 문을 열었다. 매일 저녁에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놀이 및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한 문화공간을 창출하며, 학생자치회의를 통해서 민중적인 시민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자모회 구성을 함으로써 공부방 운영뿐 아니라 지역사회 사업에도 동참케 하며, 자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공부방에 등록된 부모는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며 자모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공부방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며, 자녀교육 부모교육도

해내고 자모간의 친목을 가지므로 가정과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93a)

4. 결론: 미래의 가족

미래의 가족을 내다볼 때 낮은 출산율, 높은 이혼율, 평균수명의 연장.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 동거부부의 증가, 단독가구의 증가를 예견할 수 있다. 현대가족은 어느 한 가지 형태의 가족을 이상적 모델로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 가족생활의 단위를 반드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나 부계중심의 3대가족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혈연중심의 자연적 가족 등 어느 한 가지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생활조건과 처지에서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조직하여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연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연관된 개인과 가족들이 생산 및 소비생활면에서 종합적으로 협동하는 생활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여러 가족이 자녀양육이나 소비생활, 또는 생산활동중 한 두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협동하는 공동체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종교적으로나 문화생활면에서도 공동의 이상과 관심을 살리는 공동생활의 기반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문제점은 개인이 정부기관이나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율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족적인 온정적 유대가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동양의 가족중심 사고 방식에서 좋은 점을 본받으려는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개별화된 가족에서는 부모-자녀간 그리고 조손간 뿐만 아니라, 이웃가족과 상호의존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가 없는 것이다. 즉 1차집단의 기반이 약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를 촉진시키는 산업사회에서 인간적 사랑과 정을 나누며 협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은, 비대해지는 관료체제와 시장의 횡포에서 사생활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호하고 그 한계를 넓히고자 하는 인간적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변화시키며 현대사회에 적합한 가족생활의 공동체적 기반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 병폐가 되고 있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가족문제를 논의하고,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생의 유형을 생각하는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이, 1988, "지방자치제와 가정복지국의 활성화" 토론,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6권 4호.

김재은, 1991, "가족과 교육, 「가족학 논집」 제3집.

김태홍, 1993,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1세기와 여성」.

박숙자, 1991, "가족과 직업" 「가족학논집」 제3집.

박영신, 1987, "한국의 전통종교윤리와 자본주의",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성민선, 1988, "지방자치제와 가정복지국의 활성화",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6권 4호.

이고르 S. 콘 위음, 김형운·노중기·유현 옮김, 1992, 「사회사상의 흐름」, 사상사.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평화신문, 1994년 1월 23일.

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생활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93, 「지역사회여성활동 사례집」.

한국여성개발원, 1993, 「환경과 여성」.

함인회, 1993, "변화하는 가족에서 여성의 지위", 한국여성개발원, 「21세기와 여성」.

「여성동아」, 1993 4월, 1994년 3월호.

Eli Zaretsky, 1976, *Capitalism, The Family, & Personal Life*, New York: Haper Colophon/ Books.

United Nations, "NGO Committee on the Family", 1992, *Family and Environment: A Partnership*.

주석 1) 1980년이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32.0%에서 1991년에는 42.9%로 증가하였다. (김 태 홍, 1993)

토론

장 경 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체로서의 가족과 反공동체적 가족

I.

계약적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많은 사회이론가들이 지적했고, 일반 시민들은 구체적 생활속에서 실감해 왔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은 여전히 국가 단위의 시민생활의 조직화와 다양한 사회집단의 내부 결속을 위한 원리로서 주창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구 사회들의 경우 2-3세기에 걸쳐던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사회변동을 불과 30-40년에 소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 부작용으로서의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청은 유난히 호소력을 지닌다.

굳이 사회이론을 빌지 않아도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단위는 가족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전통시대의 종교적, 학문적 사상체계에 따르면, 가족에서의 조화로운 삶의 원리는 이웃과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이론적, 경험적 기초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약화된다는 사실은 정치·사회·경제 생활에서 가족적 유대관계가 소멸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질서가 약화됨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시민들이 가족중심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가?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대답에 대한 설명이 변화순 박사 발표문 가운데 "특수주의적 혈연가족의 연대성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 속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보편주의적 인간공동체의 연대성을 통해 대안적인 삶의 단위로 가족의 다양성이 모색되고 그에 맞는 가족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들의 가족중심적 삶은 反공동체성을 띠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논평에서는 변화순 박사의 구체적 주장들을 검증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그 주장들을 이론적으로 보강하는 시도를 하겠다.

II.

변화순 박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가족은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연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보다는 그 자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적 삶을 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한국의 가족은 농민, 노동자, 상인, 기업가를 막론해 모든 시민들이 옹축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폭발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매달린 중요한 제도이자 조직이었다.¹⁾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족만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가족은 '기능적 과부하'를 겪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적응노력이 궁극적으로 가족을 약화·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여기에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족관이 대중매체와 상업자본을 통해 전파되어 가족관계가 도구화, 피상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가족내의 성역할, 노인부양, 아동양육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의 제도적 통합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더이상 가족 내부의 개인적 규범을 강화하는 노력으로써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이웃,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화로운 가정생활과 안정된 가족부양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변화순 박사는 '더불어 사는 가족'과 지역사회운동을 하는 가족'의 사례들을 들고 있다. 가족적 관계를 좁은 혈연관계를 넘어 이웃 친구에게로 확대하고, 중요한 생활문제들에 대한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물질적 생활여건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내에서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어디까지나 사회 일부에서 시도된 어쩌면 예외적인 경험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로서 제시된 '가족이기주의'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적 삶의 실현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태를 꼬집는 유행어인 가족이기주의는 오늘날 한국의 가족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질곡을 제대로 표현한 용어이다.

III.

가족이기주의는 가족 자체의 문제로써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연대 형성에 대한 장애로서 극복되어야 한다. 가족이기주의를 굳이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개개인의 자기 가족 중심적인 태도와 행위가 사회전체의 가족주의적 연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타적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기주의자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가족에 대한 '도덕적 헌신'이 다른 사람들 가족의 물질적,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한국에서의 가족이기주의는 권위주의적 정치 풍토와 계급편향적 경제발전하에서 사회 전체의 도덕적 통합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이기적 경쟁의 논리가 전통적 가족연대를 왜곡시킴으로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기주의는 한국인들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나타났다고 보다는 퇴행적인 반응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가족이기주의는 우선 계층간의 구조적 갈등을 반영하고 촉진시킨다. 개개인이 가족에 대한 도덕적 부양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경제상태가 전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바로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한 망각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분열을 야기한다. 일부 계층 사람들이 설사 그들의 개인적 가족부양 규범에 충신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들의 곤궁을 악화시키고, 그들의 가족의무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면 '사회적으로는 패륜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국을 돌며 부동산 투기를 해서 가족사랑의 표현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아파트와 땅을 마련해 두면, 그 과정에서 서민들은 가정을 유지하는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사거나 세들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정생활에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막상 빈곤계층 사람들이 여러가지 물질적 여건의 악화로 적절한 가족부양에 실패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들의 가정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는, 그들의 곤궁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느끼기 보다는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의 여유계층에 있지는 않은가 의심스럽다.²⁾

가족이기주의가 계층적 대립과 위화감을 악화시키는 문제는 이른바 '재생산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reproduction)'를 통해 상당 정도 극복할 수도 있다. 만일 다양한 사회보장적 생활보호와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모든 사회성원들이 가정생활의 기본적 욕구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일부 계층의 가족이기주의적 행태가 갖는 사회적 부작용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재생산의 사회화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짐도 없다. 대신에 내부지향적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가정생활과 가족부양의 많은 부분이 상품소비 관계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즉, '재생산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reproduction)'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정은 자본주의 시장기제의 침투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텔레비전을 켜보면, 광고에서 연속극에서 다양한 의식주 상품의 소비가 도덕적 가족관계로 미화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 관리가 유지되어 오던 아동교육 등에서도 시장관리화의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재생산의 상품화는 상품 소비의 주역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적 이미지와 지위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여전히 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이 지배적인 한국의 여성들은 일면으로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수고를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품소비가 대체된 가정생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인 반감을 갖고 있으며, 상품소비에서 나타나는 계층간의 불평등성 문제가 대두될 때, 여성들은 반가족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매도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여성을 가족이기주의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왜곡·약화시킨다. 가족이기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행위들에 거의 예외없이 이른바 여성의 '치마바람'이나 '과소비'가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가족이기주의적인 행위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늘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기주의는 특히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가족이기주의의 가족내부적 표현은 안락과 나태에만 익숙하게 만드는 육아법, 무조건적인 적자생존 의식만을 고취시키는 입시공부 압력, 성적과 학위를 돈으로 사서 주려는 왜곡된 정성, 인격적 사람을 물질적 조건으로 대체하려는 정략혼 권유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라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한데, 과연 이들이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도덕성을 갖춘 민주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앞설 뿐이다. 이들은 결국 스스로 가족이기주의자가 되고 마는 악순환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가족이기주의적 자녀사랑은 일종의 '자기학대적 기회주의'의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IV.

현대 한국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가족중심적 삶은 그들이 의식하던 못하던 다양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반사회성은 그들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이 진정한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최근 회자되는 가족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문제이고 우리 개개인을 얹어매는 굴레이다. 이 문제의 극복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가족규범만 돌아보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안녕은 타인들과의 밀접한 기능적 상호의존성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필요하다. 타인들의 안정된 가족부양과 건전한 가정생활이 궁극적으로 나와 내 가족의 복지 실현에 전제조건이 됨을 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남의 가족의 곤궁과 희생을 야기하며 기울인 나의 가족 보살핌 노력은 결코 내 가족의 행복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개개인의 봉사노력으로서 그리고 국가정책을 유도해서 모든 이웃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적 관계를 좁은 혈연관계를 넘어 이웃, 친구에게로 확대하고, 중요한 생활문제들에 대한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물질적 생활여건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내에서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늘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1. 국가의 시책으로 매맞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자매 복지기관을 만들었다. 93년에도 236명을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우리 기관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로 인해 가정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전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한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독특하다. 길거리에서도 술 마시고 추태를 부리는 남자들이 있다. 주벽만 고쳐도 가정 폭력의 70%는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유엔의 '가정의 해'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라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법률로 못된 주벽이 있는 사람을 가정 밖으로 부인과 격리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주, 금연운동도 가족을 구하는 하나의 길이다.

2.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가정 내에서의 평등화와 민주화에 있다고 본다. 가족의 폭력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가족내에 국한시켜서 본다. 사회구조적인 우리사회 전반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문화는 '자녀와 아내는 나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한 생각이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한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어머니 혹은 며느리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볼 때, 그것은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할 때,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아내가 자신보다 더 무기력한 존재인 자녀와 노인들에게 학대를 하는 것이 파장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럴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평등의 문제이다. 왜 남자가 화가 나면 아내는 남편을 안 때리는데, 왜 남편은 주먹이 나가고 아내를 때리게 되는지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의 폭력적인 분위기나 학교에서 아이를 때리는 것이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가 나면 폭력을 써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것의 원인은 또 우리사회의 군사문화나 남성적인 힘과 무력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게 하는데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론을 형성하여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지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정 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아내 구타 문제를 상담하면서 이것도 남성에 의한 일종의 성폭력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특별법에 아내 구타도 넣기로 하였는데, 사회적 성폭행과 함께 넣을 수 없어서 제외되었다. 절실한 것은 가정 내에 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에는 병리현상은 이혼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 주었다. 가정의 폭력을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보지 말고 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확산시키고, 또한 그러한 운동에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제안한다.

4. 지금 여성의 전화 대표의 아내 구타에 관한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아내들이 고소를 하면 법적으로 해결가능하다. 그러나 아내들이 맞고도 고소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소를 하여 경찰이 왔다고 하여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남편이 부부문제이니까 가시오' 하면 정식 고소장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냥 돌아간다. 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경정신과 의사의 말처럼 에이즈 환자를 법으로 처분하기 전에 주위에서 먼저 정그럽게 여기고 있다. 옆에서 그런 사람이 산다면 나가 달라고 하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 같이 사는 한 우리 남편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아내 구타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시자 역할을 하자. 병리적인 폭력이든 문화적, 인습적 폭력에 대해 맞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여자 자신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상태로 살 수 없다고 여기고,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동 학대의 경우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일제 시대부터 기함주고 때리는 것은 구타인데 그것을 미화시키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구타는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 문제의 경우, 노인을 돌보는 데에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개호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해 주고 정책 대안으로 우리에게 맞게 바꾸어서 알려 주었으면 한다.

5. 대부분의 세미나 혹은 토론회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개혁의 당사자가 아니고, 개혁의 당사자는 듣는 입장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반성'의 개념이 아닌가 한다. 나는 의사고 나 이외의 사람은 환자라는 생각 보다는 상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세 가지 접근하는 기본 개념이 있다. 하나는 2001년까지 인데 **anticipation, adaptation, concentration**이다. 즉 예기하고 적응해 나가고 특화시켜 집중을 해야 하는데, 많은 나라 중에서 저개발국이나 여성과 같은 소외받는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으로 95%와 5%로 현상이 보여진다고 할 때, 물론 95%에 집중을 하게 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는 소외받는 계층을 생각할 때, 참된 의미의 공동체가 된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들이 중산층 혹은 대다수에 중점을 둘 때, 그것은 현실을 반복시키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보여진 공동체는 우리 주변의 이웃, 현재에 많이 있는 같은 기호를 가진 신앙공동체 등이 있는데,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열린 사회는 아니라고 본다. 진정한 의미의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에게 열려야 하고, 우선적으로 소외받는, 예를 들어 매를 때리는 병리적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 이러한 방향과 발표한 내용의 방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차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윤진: 술 끊는 문제는 완전히 동감이다. 법 개정이나 제도의 마련에 함께 하고자 한다. 몇 년전 연세대 의대에서 강화도 지역사회 보건을 조사하였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알콜 중독의 문제이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일생동안 많은 알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교에서 체벌하는 교사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군대에서 체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학교가 체벌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제도로 만들어야 하고, 학부모들이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 사회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주위에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보고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순위로 폭력적인 해결방법을 갖게 된다. 경찰이든 아이든 먼저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머릿속에 폭력이 가득차 있다. 사회적 폭력이 큰 문제이다.

매맞는 여성이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자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 인권을 내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생각을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 여성들이 어떠한 일도 동등하게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손승영 :오늘 발표한 것이 예외적인 것이나 계층적으로 중상류층에 관한 연구가 아닌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같은 것이 일어나면 생수 판매를 금지하면서 항상 주장되는 논리가 계층간의 위화감이다. 생수를 시판하지 않으면 계층간에 위화감이 없는데, 생수를 시판함으로써 해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논리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져 있기 실제로 상대적인 위화감이

강하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계층간의 위화감을 내세운다. 그러나 오히려 계층간의 차이를 은폐시키는 논리로 보여진다. 현재 존재하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소외받는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와 부유층의 노인들의 문제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현재 온갖 음료를 다 판매하면서도 정작 생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를 띤다.

또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언급을 할 때, 흔히들 주택 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것들과 거리가 멀고, 또 사회복지의 교과서에서는 상세히 외국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노인들의 문제를 가정에만 돌려 버림으로써 노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식으로 은폐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강대근 : 청소년과 더불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의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청소년들은 가정에 폭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비디오나 장난감들을 통해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평화로운 것으로 만드는데 큰 위기를 가져온다. 이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우리 곁에 두고 그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자. 그들에게 평화의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변 화순 : 공동체에 관한 논의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연구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과 운동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킬 것인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 운동에 있어서 우선성에 관한 것은 다른 글을 통하여 다시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주석 1)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농민, 노동자, 기업가 할 것 없이 가족중심적인 경제활동 전략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농업이 가족생산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나, 수많은 노동자의 구직이 가족 소개로 이루어지며 가족단위 서비스업으로의 전직이 잦고, 재벌기업들이 가족중심적 소유구조와 경영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실례이다. 이같은 생산영역뿐 아니라 교육과 부양, 사회관계, 정치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가족을 통하거나 가족이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은 과거의 기능 대부분을 유지하며, 산업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들까지 추가하여 수행하고 있다.

주석 2) 이러한 여유계층의 위선은 정책·지식 엘리트의 잘못된 문제의식으로 인해 더욱 조장될 수 있다. 많은 사회문제들의 직접적 원인으로서는 가족해체가 대중매체를 통해 피상적으로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규범 강화의 필요성이 관료나 학자들에 의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물질적 여건의 구조적 악화로 인해 제대로 가족을 보살피기 어려운 곤궁계층조차도 우선 도덕적 타락을 의심받는 부작용이 있다.

발제

가족의 현황과 전망

장 현 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현대 가족생활의 다양성과 전망

2. 다양성의 원인과 대책

가족의 현황과 전망

장 현 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현대 가족생활의 다양성과 전망

현대 한국 가족생활의 특성은 한 마디로 '다양화'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현대 가족의 구성형태는 과거처럼 '부모-부부-자녀' (확대가족의 원리) 라든가, '부부-자녀' (핵가족의 원리) 와 같이 일정한 패턴(stereotype)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가족은 반드시 이렇게 구성되어야만 한다' (the family as an ideal type)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약해졌다. 대신 갖가지 형태의 가족생활들이 제자리 찾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주류인지 혼란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미혼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맞벌이 부부가족, 주말부부가족, 자녀를 남지 않으려는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계부·계모가족, 입양가족, 동거생활자, 동성연애자,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의 문화풍토 때문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짙은 형태의 가족생활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것도 있다.

사실, 이런 형태의 가족생활들은 전통적인 확대가족 체계가 산업화 또는 근대화에 의하여 핵가족화 함으로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아 왔다. 따라서 이념형적인 가족형태(the family) 에서 벗어나 버린 비정상적 (abnormal) 가족 또는 한계적 범주 (marginal category)에 드는 형태들로 간주되어 왔다.(Merton, 1968; Parsons, 1937) 하지만 오늘날 이런 종류의 가족들을 비정상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우선 숫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다. 한국전체의 일반적인 세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이 부류에 속할 정도(장현섭, 1993)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이 이와같이 다양해진 것은 가족구성원 자신들의 선택인 점도 있겠지만 가족내적 필요와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은 탓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사회, 경제, 정치,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개별가족들의 수입, 취업, 건강, 주택등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어떤 가족이라도 '비정상'이라고 터부시해 왔던 가족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Chilman et al, 1988) 이런 점에서 이제까지 '문제가족'이라고 편견을 가져 왔던 가족생활을 '다양성' 또는 '비전통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들의 갈등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숫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다양한 가족생활의 형태를 여섯가지로 압축해 보고자 한다.

편부·편모 가족 현대 한국의 11개의 일반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이 형태에 속한다. 이런 가족유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혼, 사별 등 다양하지만 오늘날의 원인은 주로 젊은층 사이에 이혼이 증가한 탓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결혼하는 일곱 쌍 꼴에 한 쌍은 이혼을 할 정도며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족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편부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더 많으며 한국은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주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참여가 낮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별 후 이런 형태의 가족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은 대단히 심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이혼시 재산분할권도 최근에 와서야 비로서 남여가 평등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편모가정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였다. (김성숙, 1990; 이화숙, 1990) 이러한 문제점은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적을 뿐아니라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단독가구 현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공적영역(사회, 직장생활)과 사적영역(가족생활) 사이의 이분화가 급속히 이루어 졌다. 즉 남편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맞는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였지만 가사 또는 육아와 같은 가정일에 대해서는 무력하게 되었다. 반대로 아내는 사회생활에 무디게 되었다. 자연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특히 배우자와의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부부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서로 굳게 의탁적인 상태에서 한 쪽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버릴 때 다른 한 쪽의 배우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생겨도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정도는 되지 않았다. 확대가족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가 사망해도 가족구성원 중의 다른 사람들이 정서적, 물리적, 복지적 측면에서 배우자의 공백을 메꾸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친족간의 관계망이 협소해 짐으로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약화해 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노인단독가구의 가족생활상의 어려움은 점점 더 심각해 지리라 예상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노년층이든 젊은층이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홀아비나 과부가 되더라도 혼자 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증가할 것이다. (표1 참고) 특히 2021년에 노년인구의 비율이 유년인구비율을 능가할 즈음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노인 혼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리라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1991)

<표 1> 자녀가 없거나 따로 사는 노인가구. '66-'90

	1966		1985		1990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합 계	98,500	1.9	394,602	4.1	579,883	5.1
노인부부가구	61,390	1.2	222,502	2.3	356,350	3.1
노인단독가구	37,110	0.7	172,100	1.8	223,533	2.0

노인부부가구 :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노인단독가구 : 60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출 처 : 이가옥,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미혼독신가구 <표 2>에서 보듯이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사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자의 경우를 보기로 들자면 1935년에는 20세가 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 20명 중에서 불과 1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30세가 넘어도 20명 중에서 1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가구가 생기는 원인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젊은층이 지니고 있는 가족에 관한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표 3 참고) 그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의 굴레에 얽매이기보다 직장생활만 보장이 된다면 사회에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훨씬 보람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현대 한국의 경제 수준도 미혼독신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사회처럼 토지가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는 재산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부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계가 도입되면서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 누구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서 굳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 개인이 받는 급여의 크기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혼자 살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면 미혼독신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Finch, 1989)

<표 2> 성별 ·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 : '35-'90

	남 자					여 자				
	'35	'55	'75	'85	'90	'35	'55	'75	'85	'90
전 체	19.4	31.5	40.7	38.5	38.2	6.8	18.5	28.5	27.8	27.8
15-19	76.5	94.3	99.7	99.9	99.9	38.0	85.2	97.4	99.1	99.5
20-24	35.2	67.1	92.9	94.4	96.4	4.3	20.8	62.5	71.8	80.5
25-29	9.5	25.3	47.0	49.8	57.3	0.7	3.0	11.8	17.4	22.1
30-34	3.1	3.7	7.0	9.5	13.9	0.3	0.6	2.0	4.3	5.3
35-44	1.4	0.9	0.9	2.2	2.8	0.2	0.3	0.5	1.2	1.8
45 +	1.5	0.8	0.5	0.8	0.4	0.4	0.6	0.5	0.6	0.3

출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표 3> 미혼독신여자에 대한 일반부인의 태도

연 령	합 계	혼자가 결혼보다 낮다	경제력만 있으면 혼자가..	개인적인 문제다	혼자보다 결혼이 낮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모르겠다
전 체	100.0	6.2	37.1	7.1	27.6	18.6	2.8
- 29	100.0	5.6	52.3	7.7	25.4	7.7	1.4
30 - 39	100.0	6.6	47.2	9.3	26.5	8.4	2.0
40 - 49	100.0	7.7	32.4	6.5	29.8	20.0	3.6
50 - 59	100.0	5.5	26.2	6.0	27.4	31.1	3.8
60 +	100.0	4.9	13.8	8.2	30.5	38.7	3.8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1990), 84쪽.

이 유형의 가구는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리라 본다. 늦어도 10년후면 성비 불균형 속에 자라난 젊은 세대가 결혼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들이 짝짓기를 시작하면 우선 결혼주도권이 여자측에 넘어갈 전망이다. 그 결과 '선택받지 못한 신랑감'의 수도 압도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선택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남여의 수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양가족: 입양가족은 개인주의적 사고와 성의식 개방, 이혼 등으로 버려지는 아이와 미아가 발생함으로서 생기는 가족형태이다. 경찰청의 전국조직망이 확립되고 미혼모들에 대한 홍보활동 덕분에 현재까지는 많이 줄어 들었다. (표 4 참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감소추세라 하더라도 미래에는 다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표 4> 연도별 기아 및 미아 발생 상황

	'89	'90	'91	'92
합 계	11,167	5,721	5,095	5,202
기 아	5,209	4,213	3,630	3,294
미 아	5,958	1,508	1,465	1,726

출처 : 『보건사회백서』

<표 5> 연도별 국내입양 실적

'85	'88	'89	'90	'91	'92
2,855	2,324	1,872	1,647	1,241	1,190

출처 : 『보건사회백서』

한편, 기아와 미아를 보호해야 하는 국내에서의 입양가정 수는 <표 5>에서 보듯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특례법을 비롯한 정부의 일련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한국 특유의 '혈연의식'에 기반한 가족가치관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가정이 증가할지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책관심과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입양가정수는 장기적으로 보아 증가하리라 전망한다.

입양가족은 이제까지 편견에 쌓인 상식, 즉 비정상적일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입양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족주기상으로 이들이 거쳐야 하는 과제가 정상가족에 비하여 과중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그런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야기하게 하지는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의 친부모-자녀 관계보다 더 긍정적인 일면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입양아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양부모와의 관계가 실패로 끝났을 때 대단히 심각하다. 교육이나 심리적 치료를 통하여 완화시켜야 하지만 가족관계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편 양부모가 느끼게 될 무력감도 심각할 수 있지만 양부모-입양아의 관계는 정상적 가족과 다를바 없다는 관점에서 보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양쪽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Chilman, ibid).

무자녀가족(부부가족) 가족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 말해 오던 핵가족의 원리마저도 거부하는 가족 유형이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 지는 형태라면 부부만의 가족은 자녀출산을 거부하는 삶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자녀없이 부부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점차 각박해지는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삶의 고통을 주느니 아예 낳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부모-자식간의 지나친 유대나 부부간의 애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탓일 수도 있고,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든 결국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해짐으로서 생긴 유형이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생긴 사회변화라 볼 수 있다. 단적인 보기가 '이상자녀수'의 변동추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70년대 이래로 이상자녀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본다. 통계청에서는 본래 2021년에야 한국의 인구성장이 정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바뀔 것으로서 결국 애초의 예측보다 무려 30년을 앞 당긴 1989년에 출산대치수준(replacement level)을 이룩함으로써 한국도 저 출산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어쨌건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서 부부만으로 살려는 가정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본다.

<표 6> 연령별 이상 자녀수 추이

연령별	1976	1982	1985	1988	1991
계	2.77	2.46	2.00	1.98	2.10
15 - 24	2.35	2.09	1.82	1.84	1.83
25 - 29	2.49	2.21	1.92	1.92	1.95
30 - 34	2.77	2.47	1.98	1.98	2.08
35 - 39	2.98	2.64	2.07	2.04	2.19
40 - 44	3.19	2.87	2.17	2.11	2.32

출 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1988).

재혼가족(계부·계모가족): 재혼가족(계부·계모가족)은 미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1990년 현재 결혼하는 전체 일곱쌍 꼴에 한 쌍은 이혼할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이혼이 폭증하고 있고 그들은 대개 결혼 후 5년이 채 못되어 거의 반이 이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80퍼센트 정도가 이혼을 (장현섭, 1994) 해버리기 때문에 재혼가족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금기시해 오던 부인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가족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본다. (표7참고)

<표 7> 재혼에 관한 부인들의 의견

	재혼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문제다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전 체	9.2	39.9	14.9	18.0	75.9	42.1
- 29	11.1	31.0	16.5	18.5	72.4	50.5
30 - 39	8.8	36.7	14.9	17.7	73.3	45.6
40 - 49	7.7	45.0	15.2	17.0	77.1	38.0
50 - 59	10.0	47.3	12.4	17.7	77.6	35.0
60 +	8.7	42.9	14.7	19.8	76.6	37.3

출 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1990), 88쪽.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배경에는 연령, 직장, 교육 및 수입수준, 딸린 어린이 수, 지난번 결혼에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 등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건 이혼과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딸린 어린이들은 친족관계에서나 관계규범상, 양육상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가령 어린이 경우 너댓살까지는 정상적으로 친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혼 직후 몇 년간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 다시 삼 사년이 지나면 계부·계모와 함께 지내다가 그 부모가 또 이혼을 하면 다시 편부모 가정에 편입되게 된다(Chilman et al., ibid) 이 과정에서 재혼하는 양쪽 모두에게 딸린 식구가 있고 그 위에 재혼한 부부 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녀까지 합치게 되면 친족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계부·계모가족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부부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부모-자식관계는 안정과 유대감을 지속하게 하는 갖가지 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양성의 원인과 대책

다양성의 원인은 크게 가족 내적 요인과 가족 외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가족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뀔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다. 앞서 이미 보기를 들었듯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고 이혼에 대한 태도 또한 30대의 젊은 연령집단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표8 참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약해지면서 대신에 개인의 권리와 자아를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독신가구로 지내거나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 증거가 이혼 사유에서 나타난다. 80년대 이전까지의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이나 학대, 모욕과 같이 어느 한 쪽의 잘못임이 뚜렷한 사유로 부부가 헤어졌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혼의 건수가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도 '기타'와 같이 어느 한 쪽의 뚜렷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헤어진다. 즉 성격상의 차이가 오늘날의 이혼사유를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 다양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희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할만한 도덕적 상식에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으로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생활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 보다 사회구조의 독특성으로 인한 속죄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부도덕하게 보던 관점을 탈피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에 서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표 8> 이혼에 관한 응답부인들의 의견

부인들의 연령	전체(실수)	할수도 있다	해서는 않된다	모르겠다
-29	100.0(588)	57.0	40.1	2.9
30-39	100.0(796)	53.3	43.7	3.0
40-49	100.0(584)	38.0	60.1	1.9
50-59	100.0(469)	25.6	72.7	1.7
60+	100.0(389)	21.3	76.3	2.3

출 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1990), 85쪽.

가족내적 사유만큼이나 중요한 이혼 원인은 구조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수입, 취업, 건강, 주택 등의 사정이 악화되면 어느 가족할 것 없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완전히 그들 자신만의 잘못이기 보다 가족 내 인간관계나 환경, 즉 실업, 생계비, 과도한 직장근무시간 등의 요인도 크다. 특히 70년대 이후로 펼쳐진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른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이들에 대한 법적, 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훈련, 고용, 주택, 수입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생활을 가능케 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규범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사실, 서구의 경험을 볼 때 다양성은 또 다른 다양성을 불러온다. 그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사회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두 가지 명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 안 밖에서의 남녀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둘째, 그 어떤 다양성 속에서도 부모-자식의 관계는 건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성숙,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문제점," 『여성연구』 제8권 1호(1990 봄), 119-148쪽.
- 변화순,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찰," 『韓國人口學會誌』 제10권2호 (한국인구학회, 1987), 1-16쪽.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 이가옥,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이화숙,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제8권 1호 (1990 봄), 149-180쪽.
- 장현섭,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논문집 제39집 (문학과지성사, 1993), 66쪽.
- 장현섭, "한국의 이혼경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하여," 『현대가족과 여성문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가족학회·한국부인회 공동주최, 1994).
-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 변화』 (199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1991), 435-438, 472-496, 509-512쪽.
- Chilman, c. S., Nunnally, E. W., and Cox, F. M. (eds.), *Variant Family Forms : Families in Troubles Series Vol. 5* (Sage, 1988).
- Finch, J., *Family Obligation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1989), p.86-114.
- Merton, R.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arged edition (N.Y: the Free Press, 1968).
- Parsons, 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Y: the Free Press, 1937).

사례발표 및 토론

1. 독신가구

산업사회가 끝이 나고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우리의 의식과 활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획일화, 규격화된 집단주의 활동도 차별화, 세분화되듯이 이제 가정의 개념도 부모와 자녀가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만이 더 이상의 중요한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 정보, 기술이 새시대의 생산요소이듯 가정의 형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

귀여운 여자보다 지혜로운 여자로 남아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삶에 대한 애정이 있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으며 푸근하고 인간적 채취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생활할 때 독신자 또한 한 가정이라고 본다.

일반인들은 독신녀 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한다. 무엇인가 결점과 헛점이 있고, 고집장이이고, 신경질적이며, 타협할 줄 모르고, 부도덕하고, 되바라졌다는 등 혐오스러운 단어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권에서는 결혼을 인생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여성은 남편을 통해 비로소 한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팽배하여,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이나 열정이 결혼 후 남편의 한 두말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신자들은 다만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에 민감히 반응하고, 자신의 허리띠나 땀냄까지도 오얏줄로 생각하는 일종의 유모스러운 정신의 소유자일 따름이다.

독신자는 생활속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겪는다. 말과 행동에 제약이 있고, 같은 나이층의 대화에서 밀려나며, 부부동반 모임에 소외된다. 또 개인적으로 사회관계에서 원하는 바와 실제의 수준이 달라서 오는 복잡한 감정, 쓸데없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독신 생활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들이 그 예이다. 정신적인 싸움에서 훨씬 위협을 받고, '애'취급을 받는다. 입양조건에서 자격이 미달되며, 세제상 많은 불이익(의료보험료, 가족수당, 학비보조, 연말정산시 공제내역, 주민세, 연금관리공단의 대부혜택, 아파트 당침권의 제약 등)을 받는다.

물론 혼자 삶으로써 긍정적인 면도 있다. 표면적 현실에서 깊이 들어가 자신의 실체를 응시하고 파악하려는 내면세계의 자아의식을 맞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삶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진다. 많은 기쁨을 맛볼 수 없지만 그 만큼의 슬픔을 줄일 수 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내 나이를 의식하고 살텐데 혼자 살면서는 나이를 느끼며 살지 않을 수 있고, 기혼자들에 비해 시간과 돈에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인간은 결국 혼자인데, 젊을 때부터 고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손이 필요한 곳을 살펴 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독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삶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성실히 채워나가는 것이듯.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는 하나의 가정형태임을 인정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생활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차별의 벽을 깨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더불어 함께 사는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삶을 너무 틀에 맞추려고 한다. 나이들면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무엇보다도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들은 대학에 꼭 들어가야 하고 등등 나 개인의 자유로운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열려진 시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산다고 하여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시책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삶의 형태를 인정하고 권장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정과 전혀 차별이 없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질의 응답

1. 현재 우리나라에 독신자들의 모임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우 노후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독신녀들의 모임이 있다. 나의 경우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혼자 보다 독신들이 많이 있다. 꼭 독신자 모임이 아니라도 내 주위에 혼자사는 친구들이 있다. 노후대책은 지금 내가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우며 살려고 한다.

2. 독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첫째로 어떤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 둘째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성취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취미활동에도 참여하고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3. 모 여성지에서 독신자들에게 3명 정도의 애인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애인이 있는지?

- 남자친구는 많이 있다. 직장에서도 같은 여성 직원들 보다는 남성들과 많이 교류하게 된다. 남자들 스스로도 독신인 사람들을 부러워 한다.

4. 일반적으로 독신여성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기혼여성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반대로 기혼여성들도 독신여성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아이들 치닥거리하고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이다. 나의 경우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얹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5. 본인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결혼한 일반 가정에 대한 부러움은 없는지, 그리고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독신을 권하고 싶은지?

- 전통적인 가족(기존의 혼인, 혈연중심의 가족)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그러나 그 가정이 더 나은 것이라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혼한 가정을 부러워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러웠다면 진작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러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야 한다.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혼자 살고 싶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2. 노인단독가구

완고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 당시는 여학생의 교육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고, 큰 형님의 반대가 커서 몰래 다닌 것이 중학교 2학년까지였다. 세탁복 옷을 몰래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다. 결국 졸업장을 못땀는데, 그 이후에도 후회가 되었다. 서울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귀향했을 때는 위안부 문제가 심각했고, 10일 만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였다. 당시는 결혼할 만한 집안이라고 부모가 생각하면, 신랑을 안보고도 시집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이 몸에 병이 있었다. 결혼하고서 남만주에서 남편과 살았는데, 결국 1년반을 고생하다가 폐결핵으로 죽었다. 조선에 나오니 생계가 막막하여 친정에서 1년을 보냈다. 시가에는 노인네만 남은 터라 시가에서 모시고 살아달라고 부탁이 와서, 노인네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시가에서 살았다.

무언가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때는 중국 식모가 한국 식모보다 샅이 많았다. 그래서 올라버니 댁에게 부탁하여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겁이 없었던 것 같다. 식모를 하고 있던 차에 육군병원에서 간호장교를 모집한다고 하여, 응시하였는데 다행히 붙었다. 점차 일본의 패망의 기운이 느껴져서, 중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하는 개인병원으로 옮겼다. 3년 되던 해에는 월급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어 '무역상' 허가를 받아 3년동안 그 일을 하였다.

폭격이 점점 심해지고 사상자가 많아지자 '조선에 나가야겠다' 싶어서 기차표를 마련했는데, 기차표가 준비되자마자 중국당국이 해방되었다는 방송을 하고 다녔다. 결국, 기차로는 고향에 못 왔다. 중국에 남아있던 조선사람은 당시 지하실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아니면 관로군에 의해 무차별 죽임을 당하였다. 다음해 5월 배로 인천으로 나왔다. 친정인 포천이 이북/이남으로 갈라지자, 갈수 없게 되어 서울에서 견딜 수밖에 없었다. 고무신공장, 양은밥통공장, 도시락공장, 육군 피복점 등 안해 본 일이 없다.

하던 일이 잘되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 사변이 났다. 서울은 텅텅 비어 할 일도 없었다. 미군부대가 파주땅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병원부대에 들어갔다. 군인옷을 고쳐주는 등의 일을 하다가 부대가 만기가 되어 떠나자, 보따리 장수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는 6촌아이들을 돌보면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등, 몸이 아파지기 전인 90년까지는 늘 활동을 하였다.

집안이 완고하여 재혼은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죽으나 사나 내 힘으로 살아야 했던 처지였다. 졸업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병원에 있던 경험이 도움이 되어 살아온 것 같다.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먹고 산다. 남부노인 종합복지관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 가정봉사원을 보내주고 있고, 통장님네(옆집 쌀집)의 도움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

도움받아도 미안해서 불편하기도 하다. 한 가지 걱정은 지금 살고 있는 상도5동이 개발된다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노인들을 위해 임대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정신이 이만큼이라도 있을 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고 말년에는 정부의 덕으로 사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아우들(이웃의 나이 조금 적으신 노인네들)이 도와주니 무척 고맙다. 상도동에서만 30년째 사는 터라 안면이 많아 도움을 많이 받고 산다.

젊어서는 살기에 바빴고, 욕심이 없어서 뭐 생기면 친척을 다 주는 바람에 지금 이려고 사는지도 모른다. 노후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젊어서 양자를 들여, 친정쪽의 조상을 모시게 해냈고, 남편의 시신은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 화장해서 나왔으니, 남의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게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이려고 사는 것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만 복잡해 지는 것이다.

질의 응답

1. 현재 할머니의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 정부에서 주는 쌀 8kg, 보리 2kg, 생활비 2만1천원, 사회단체에서 넣어주는 1만원이 수입전부이다. 겨울에는 연탄 사서 태고, 몸이 아파서 약값만도 한달에 작게 써도 3만원은 들어간다. 쌀과 보리는 석달치를 주는데 혼자 다 먹지를 못해서 한달치는 돈으로 바꾸어서 약값에 쓴다.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

2. 식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 혼자 먹는 거니까 대충 먹는다.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서 맛난 음식을 하면 조금씩 갖다 주고

입맛이 없을 때는 죽을 쑤어서 간장으로 간 맞추어서 먹기도 한다. 간장이며 그런 것은 사서 먹고 반찬은 그냥 있는대로 먹는다. 지금 사는 집은 우리 동네 통장네 집인데 방 한칸을 만들어 주어서 혼자 살고 있다.

3. 재혼가족

나는 어려서부터 불구여서 늘 결혼이라는 것을 내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친정식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74년 우연히, 너무나 분에 넘치는 건강한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면사포를 씌워준 사람이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남편에게 아주 잘했다. 남편은 나에게 남이 부러워 할 정도로 아주 잘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고 재미있게 살았다. 우리힘으로 집도 장만했다.

그런데 83년 3월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남편의 시체를 손으로 만져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주말에 1번 한달에 1번 그의 앞에 가서 대화를 하며 살았다. 그러기를 5년 정도하니, 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날 꿈을 아주 무섭게 꾸고는 그의 산소를 갈수가 없었다.

8-9년을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다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 재혼이란 감히 꿈도 못꾸던 일이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 너무 잠이 안 와 술의 힘을 빌려고 했는데, 집에 술이 없어서 집 근처 포장마차에 가서 1잔 마시고 오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왔다. 뒤를 보니까 아까 포장마차에서 본 못생긴 아저씨였다. 왜그러냐구 했더니, 술 친구나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불량은 없해보여서 서로가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다. 2개월이 흘렀는데, 어느날 새벽 2시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의 남자를 만나면 안되겠다 싶어서 알아보았더니, 이혼을 한 사람이었다.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도시락 반찬과 가끔씩 청소를 해 주었다. 반찬이 떨어지면 그 집 아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아줌마 반찬 떨어졌어요'라고 했다. 그래서 결합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내는 자기와 자식들을 버렸는데, 나는 자식들을 잘 돌본다면서 '자기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혼을 제의했다(남편의 자식은 중3 아들과 중2 딸이고, 내 자식은 고3 딸과 중1 아들이다).

현재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 해도 지금의 생활보다 10배 정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서로 참고 이해하는 것 외에는 약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삶은 그 고통도 내 것이고 내 발등의 불은 내가 꺼야지 남이 꺼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여성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재혼할때 아이들을 데려오면, 시댁에서나 주위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미완성으로서 나머지 50을 채우는 게 재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좀 넓게 생각해서 '너 참 고생한다'하면서 어깨 한번 두들겨 주면 좋겠고, 특히 모든 사람들이 타산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위의 시선도 너무 못마땅하다. 새엄마라면 '어머'하면서 놀래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혼가족이라고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알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남편의 자식과 나 사이를 확실히 하는게 좋다.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길러주는 동안 열심히 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엄마(생모)를 보고 싶으면 보라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참고 훌륭하게 크면 엄마도 좋아할 것'이라고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에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면 자식들도 따라준다. 특히 용돈문제 등. 누가 무어라고 해도 성실한 삶과 사심없는 대화가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질의 응답

1. 보통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남자가 갖고 있고, 아니면 여자가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재혼을 하는 데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을 할 수 있었는지?

- 처음에는 재혼할 남자가 아이를 하나만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을 했다. '나는 남편없이 10년을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 없이는 못산다'는 것을 남자에게 이야기했다.

2. 어머니가 재혼하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지?

- 결정을 하기 전에 큰 딸아이에게 물어보았다. 큰 딸아이가 드라마 게임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다가 늙으면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가 엄마를 안

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다. 작은 아이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었다.

3. 아내 쪽이 많이 참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아이들간에 문제는 없는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내 몸이 불편하여서 처음에는 나 같은 장애인하고 결혼을 할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또 건강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남편이 자기는 공무원이어서 월급도 적고 하여 네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말을 안했다가 나중에 내가 레슨을 하여 그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 아이들도 크게 문제가 없다. 내 큰 아이가 지금 재수를 하는데 나이 차이가 있고, 내 딸과 남편 아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싸움을 해도 남편네 아이들끼리 하지 우리 아이랑 싸우지는 않는다. 남편이 위아래를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우리집은 특별한 가정이다. 대들거나 싸워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토요일에 회의를 하기도 한다.

4. 입양가족

-행복을 나르는 천사-

결혼하기 전 입양기관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다. 미국에서 한 양부모가 자신이 입양한 5세 정도의 여자아이를 데리러 한국에 직접 나왔다. 이들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데리고 갈 여자아이는 사실 얼굴모습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외에서 양부모 찾기가 무척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 입양하기로 결정하여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된 것이었다. 조심스레 이유를 물은 즉, 그들의 대답은 "다 큰 예쁜아이들은 데려갈 양부모가 많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 큰 아이들보다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변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지나가버릴 뻔한 일들이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 조금씩 내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혼 후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응은 냉랭할 뿐, 오히려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인식될 뿐이었다. 첫 딸을 낳은 후 기어코 아들을 보고 말겠다는 아내의 굳은 생각을 밀치고 들어가기에는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반응을 유도할 뿐이었다. 오히려 본가의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들이실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하고 계셨다. 본인이 종가의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찬성하는 어머니의 생각이 너무나 진보적이지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마침 국내에 입양되었던 한 남자아이가 양부모의 급작스러운 이혼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입양되어야 할 형편에 이르러서, 재입양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집에서 양육시키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이 때 그 아이는 11개월쯤 되었으며 갓난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해외에서 가정을 찾아 떠나려면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반대하던 아내는 이 아기를 돌보며 점차 급속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며, 1개월이 채 지나지도 아니하여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입양을 자처하였다. 이 때가 첫째가 3세되던 해였고 우리는 정식 입양절차를 밟아 드디어 두아이의 부모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던 일이 발생하였다. 그렇게 찬성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손주에 대한 편애가 시작되었다. 생각과 현실은 분명 차이가 있었다. 직접 기르며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애정을 느끼게 될 때, 기쁜 정을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가급적 할머니와 손자간의 신체적 피부접촉을 많이 시도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귀여워 죽겠다(?)'는 할머니의 자백도 얻어내었다. 일단 계획을 현실로 엮어내는 처음 과정이 어려웠지만, 실행 후에는 인간 본연의 본능 때문에 자연스러운 애정의 흐름으로 기대이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아직 걱정하는 것은 주위 이웃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굳이 공개할 필요 때문이 아니라, 혹시 알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족 특히 아내의 행동을 제약 많이 받게 된다.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면 과잉행동 즉 쇼라는 개념이 들어간 행위로 간주될 것이고, 잘못을 심하게 야단치면 '입양아'이기 때문에 매정하다는 인식을 받을까 봐, 그러면 자연히 아이의 부모모써 모든 행동이 제약받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까 걱정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입양을 망설이다가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색하며 입양을 한 가정들이 주위에 여럿이었으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곧 주거지를 옮긴 가정들이 많다.

아직 입양을 우리의 문화의 한면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돌출되지 아니한 자연스러운 관심만 보여준다면 점차 생활속에 자리 잡혀서 자연스러운 입양문화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시작은 단 한번 우리 부부가 이끌었으나, 우리집의 딸과 아들이 날라준 행복한 시간으로 매일의 끝을 맺는다.

질의 응답

1. 발표자의 어머니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는 머리와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머니의 변화과정을 더 상세히 말해주기를 바란다.

- 어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성경말씀이나 동정심에서 시작하신 것 같다. 단순한 동정심에서 입양을 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아이가 미운짓을 하면 금방 애정이 떨어져 버리고, 내 피붙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입양할 때 혈액형을 맞추어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나와 아내는 A형, 0형인데 아이는 AB형이다. 같이 살면서 신체접촉을 통해 애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데려올 때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에 큰 아이를 먼저 찾는다. 단적인 예로 설날 세뱃돈을 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5천원을 주는데 이 작은 아이에게만 1천원을 주셨다. 어머니가 큰 아이만 예뻐하니깐 오히려 아내가 작은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자신이 많이 노력을 하신다.

2. 입양해 온 아이들에게 도벽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닐 때 그 아이를 다시 돌려 보내는 등의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내가 난 자식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 교육을 잘못하여 그럴 수도 있다. 입양에 대한 동기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아이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아이를 돌려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 친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3. 아이에게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인지?

- 아직 그 문제는 결정을 못했다. 아내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하는데 친척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이가 '나는 누구를 닮았어'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한다. 아마도 아이가 결혼을 하고 출가할 때 쯤에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4. 국내입양의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매우 어렵다. 아이를 선택할 때 일단 피가 같아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기왕이면 대학생들이 연애하다가 생긴 아이이기를 원한다. 아이의 출생 배경, 태어날 때의 몸무게까지도 알아야 하고, 태어난지 1개월 후면 얼굴을 알아보니깐 1개월 이내의 아이이기를 원하기도 한다. 시택 모르게 자기가 낳은 것처럼 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2-3개월 후에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바꾸려고 하기도 한다.

5. 공동체가족

- 두 가족이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공동체를 실험하며 -

우리들의 공동체는 두 가족- '원이네 집'과 '민화네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모여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우리는 아주 보통사람들이며, 우리의 공동생활이 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그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이른것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살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1. 공동체생활의 구성원

생활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두 가족을 소개하면 우선, '원이네 집'은 할머니(김순달 73세)와 아버지(장건 42세, 외대출판부 근무), 어머니(김금이 37세), 그리고 아들(장원 13세). 딸(원지 11세) 이렇게 다섯식구이고, '민화네 가족'은 민화아버지(최병주 38세, 주민신탁 부이사장), 어머니(박인수 34세), 삼촌(최병철 25세), 민화(딸 10세), 민지(딸 8세). 민규(아들 7세) 여섯식구로, 모두 열 한 식구가 한지붕 아래 모여서 살고 있다.

2. 함께 살게 된 배경

우리들 원이네 집'과 '민화네 가족'이 한 집에서 한가정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두 집은 오랫동안 함께 다니던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점점 더 개별화되어 가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신앙고백적 생각과, 또한 불신과 탐욕, 과소비와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의 고향도, 가족도 없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지금부터 하나의 대안으로 공동체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두 가족은 함께 협동조합운동을 해오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협동하여, 섬기며 나누는 것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깨달음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두 집이 분당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 계기를 통하여 한 집으로 합쳐서 살아보자고 서로 제안, 한달여의 준비와 토의를 거쳐서 공동생활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이다.

3. 공동생활의 실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제법 큰 평수의 아파트(최병주씨 소유 50평형)이다. 방이 네개, 화장실이 두개이므로 두 집 열 한식구가 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다.

입주하기 전에 미리 식구들의 생활에 맞게 내부구조를 일부 개선 보완하였다. 남자들이(삼촌, 장원, 최민규) 사용할 방이 작아서 베란다를 터서 방을 넓혔다.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들이 거처할 방에는 붙어있는 베란다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마루바닥을 깔고, 불박이 장을 설치하였다. 각 부부가 방을 하나씩 사용하며 식사에서부터 가사일, 교육전반에 걸쳐서 모든 문제와 생활비의 지출을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집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부르는 호칭은 큰 아빠, 작은 아빠로 하였다.

1) 가사역할 분담

아내들의 가사역할 분담은 특별하게 원칙을 정하지는 않았다. 식사준비는 두 사람이 같이 하고, 빨래와 청소 등도 서로 협동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수씨는 생활협동조합일을 주로 맡아서 지역에서 생협활동을 하고, 집에서의 일은 대체로 김금씨씨가 맡아서 하고 있다. 남편들은 각자의 일터와 집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2) 자녀교육 및 양육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수업과 집에서의 자율적 공부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가족들끼리의 합의를 통하여 각자의 재능과 역량에 맞추어 교육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피아노, 수영, 스케이팅, 글쓰기, 그림 등 -이 무엇인가 듣고 그 중에서 각자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하게 하였다. 특별히 과외공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학생인 원이만 다니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니지 않고 있다. 처음 공동체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질서를 잡아가기 위하여 열 다섯가지의 생활수칙을 정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각자의 생활을 점검하고 평가하였으나,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계적인 아이들로 키우는 것 같아 모든 생활수칙을 폐지하였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활의 원칙과 질서를 만들어갔다. 식사시간에는 꼭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른들에 대한 존경, 친구들과의 사귀, 모든 것을 잘해 나갔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TV를 끄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시간을 같이 하였다.

3) 의사결정

우리집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가족회의를 열었다. 가족회의를 통하여 서로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아이들의 용돈문제, 가족나들이, 가족신문 제작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을 결정하였다. 회의의 사회와 기록은 매월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하고 발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였다. 어른들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매번 아이들의 항의성 약속이행 요구를 받아야 했다.

4.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공동체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일 들 중에는 우리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큰 평수에 속하는 아파트단지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는 우리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궁색하게 보인다는 이웃들의 생각을 아내들이 잘 수용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밥을 같이 먹느냐? 빨래(속옷)도 같이 하느냐? 소란스러워서 어떻게 사느냐? 등 여러가지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을 다 설명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닫혀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우리 아이들의 활발한 모습, 생활협동조합과 우리밀 살리기운동 등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일가친척들도 남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별로 곱게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명절이나 제사 등의 모임에서 누구 집의 친척들이 모여들면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다. 이사 후 처음 맞이한 추석은 두 집의 친척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차례도 같이 드렸으나 도무지 이해가 힘든 것 같았다. 가족내부의 문제점도 살면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함께 살아보자고 생각한 때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가자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일이 많은 갈등으로 되돌아왔다. 그 첫째 요인이 아이들 문제였다.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라 정말 신나게 놀았다. 매일 집으로 친구들이 찾아오고, 집안은 항상 어지럽혀져 있고, 무엇을 필요로해서 사야할 경우에도 전체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원지의 위치(막내에서 둘째로)는 참으로 아이의 성격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아내들의 역할은 남편들과는 달라서 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접하고 -있기에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린다거나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았다. 그것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점차 해소되었다. 집안내에서의 어른들의 몸가짐도 처음에는 많은 조심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되었다.

5. 공동생활의 문제점 해결

일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각을 수렴하게 되고, 어쩌면 일정부분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 공동생활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문제의 해결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이해하며 풀어가야 할 필요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가정에서의 대화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형제자매처럼 어디를 가도 서로를 챙기며 생활하게 되었다. 참으로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많은 것은 포기하면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큰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6. 맺음말

공동체생활은 아주 기본단위인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가족의 생활이 즐거워야 직장과 지역, 나라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국제화, 개방화를 부르짖으며 무한경쟁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다. 그것에 발 맞추어 우리는 지금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공동체생활이 아직은 그 시작의 단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생명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질의 응답

1. 남편들의 공동체 만들기에 아내들이 설득당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이전에 같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마침 우리(작은집)가 큰 평수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를 서로 공동분담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의를 남편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찬성을 하였다. 남편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생활에서의 공동체를 실천해 보고,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싶어하였다.

2.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한 가족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보다는 단독 주택에 1, 2층으로 나누어서 사는 것은 어떤지?

- 현재 우리 가족들이 2년 계약으로 같이 살고 있다.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다는 여러가구가 모여서 공동 주택을 장만하여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아이들 문제나 아내들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큰집의 둘째 아이는 막내였다가 둘째로 위치가 바뀌자 크게 당황하였고, 큰 아이가 장난이 심하여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 큰 어머니는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였다. 아이들 문제나 아내들 문제 모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의 문제는 잘 해결되어 지금은 질서를 잡았다. 큰 아이가 중학생되면서 어른스러워지고 아이들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다.

- 아내들이 서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각자 일들만 묵묵히 하다 보니 집안에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먼저 큰아빠인 내가 두 부인들을 각각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 작은 엄마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이상 주위에서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게 서로 참으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6. 편부모가족

남편과 1973년도에 결혼하여 현재 대학 2학년인 딸과 고교 2학년, 중학 2학년의 아들 둘이 있다. 결혼생활 20년이 미처 못된 1992년 5월에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고 우리가족은 망망대해에 선장없이 버려진 일엽편주가 되었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면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인데, 내 경험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는 나의 것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우리부부가 해로하며 인생의 연수가 다하도록 함께 살리라 믿었는데...

그와 함께 살면서, 가족의 행복이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품안에서 그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사는데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철저히 그를 돕는 배필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기르며 살아왔다. 내 자신의 삶은 없었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이 되어 오직 그를 위주로 삶의 의미도 보람도 행복도 그를 통하여 느끼며 살았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금은 그의 아내가 아닌 내 자신으로 서야 한다.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살 때만 의미가 있고 홀로되면 과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일까? 남편 직위에 따라 결정되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남편의 죽음은 나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그가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던 모든 것과의 단절! 내가 누렸던 지위, 내가 받았던 대우. 심지어는 내가 살던 집과 내가 타던 자동차까지 새로운 이의 소유가 되었다. 남편만 갔을 뿐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인데, 내게 닥친 현실은 그와 함께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가장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단절과 빼앗김을 나의 자녀도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편부모가족은 늘 외롭다. 아무리 와글거리는 군중속에 있어도 아무도 살지않는 행성속에 있듯이 항상 공허하고 고독하다.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격려해 줄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대신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잃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회는 편부모 가족을 정도 이상 불쌍하게 보며 아비없는 자식을 홀대하기도 한다. 편부모 가족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공동체이다. 편부모가족이 고통을 받으며 행복하지 못할 때 그 적개심은 사회에 피해를 준다. 그 피해는 내가 입을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자녀가 입을 수도 있다. 결국은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지는 것이다. 저들이 독자적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내 자녀에게 울지도 모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회가 저들을 돌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저들의 자존심이 상처 받지 않도록 주변에서 배려하는 풍토가 아쉽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당한 문제는 우리 가족이 해결해야 하며, 세상에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수용해야만 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으랴? 내게 온 이 어려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알아야 하겠다. 더 이상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서기 위해서 나의 감정은 어때야 하는지, 내가 개발해야 할 잠재력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서 최대한 발휘하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향하신 귀한 심리가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가족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한다. 모든것이 변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는자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아직 나에게 남은 것이 있을테니까 말이다.

사회나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4,50대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편부모 가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1.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경제력은 남은 가족의 원동력이다. 직장이나 직업교육장 같은데서 우선권을 주는 혜택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 평소에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2. 가정에서 남편이 사회활동을 하도록 내조한 여자의 노동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실하게 가정을 지키며 남편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한 주부직을 무직으로 취급하고 과다하게 상속세를 물게 함은 부당한 것 같다.
3. 죽음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죽음도 함께 있는 것이다. 사회가 삶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죽음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삶과 함께 죽음교육도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을 공포없이 받아 들이고 삶을 더욱 값지게 살게 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나에게 닥칠 때 그 비탈에서 빨리 치유되어 일어나게 해야 한다.

4. 홀로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미망인이니, 과부의 자식이니 하는 칭호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편부모 가족이 된 것은 팔자가 드세서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도 아니다.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 듯이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역경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격려를 보내자.

5. 편부모가족을 위한 모임같은 것을 계획하자. 거기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얘기를 서로가 들어주며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며,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들도 서로 해결하며 큰 위로의 장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1. 친한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편부모 가족인데, 그 친구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지?

-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다. 너무 의식해서 말에 주의하는 것이 오히려 친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2. 여자들이 남편의 죽음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 두어야 하는지?

- 남편이 가고 나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관계들이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도대체 여자는 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남편의 힘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이를 기르고 난 후라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살아있는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랑을 주어서 좋은 추억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

종합정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든 아니면 주어진 여건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삶을 살아야 하든 특히 우리 한국사회에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가치관은 '결혼을 해야 한다',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친척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원만한 것이 좋다' 등등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다. 이 결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아니면 이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자는 남편 그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에, 불의의 사고나 이혼으로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 죄를 짓는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재혼가족, 독신가구, 노인단독 가구,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지만 이들 가족들에 대해 이해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

오늘 '열린 사회와 가족'이라는 주제 아래 사례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개인적·사회 문화적 이해와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구성원 개인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았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혼자만 참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참는 것과 더불어 대화를 통해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는 위의 사례들에서 나온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재혼한 가족 모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풍토가 요구된다. 정책적 배려의 측면에서는 각 가족사례에서 언급한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다. 부양하면 단독 가구에는 세제공제나 주택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노인단독가구들을 위해서는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공동체가족들의 경우 함께 살 수 있는 공간과 주택상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족들은 많이 있다. 장애자 가족들도 그 일례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를 그려 볼 수 있다. 대안적 가족은 혼자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록

1. 가족에 관한 사안들

2. 가족의 유형과 기능

'세계가정의 해'의 선포배경과 행동계획

UN이 '세계가정의 해'를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는 가족은 미래의 자원(family as a source of

future)임을 인식하고 사회의 심장부인 가족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Building the democracy at the smallest Heart of society) 세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UN의 IYF는 각 국가에 '세계가정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단체를 포함하여 지방과 중앙의 활동을 조정하여 정보교환, 범국가적 프로그램, 가족과 가족정책의 현황과악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정책의 수립을 위해 사회내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드러내고,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방식을 모색하고, 가족관련법이 국제인권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정 등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고, 가족을 위한 적절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현존 프로그램의 내용, 그 조화·조정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와 훈련의 종류, 가장 시급히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 및 추진저해요인(경제적, 법적,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심리적)을 찾아내고, 동일한 서비스로 더 혁신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IYF는 가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리즈를 소개하였다. 그 중 본 보고서에서는 No.1 Family Matters와 No.2 Family: Forms and Functions을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 No.1 Family Matters
- No.2 Family: Forms and Functions
- No.3 Family and Crime
- No.4 Older Persons in the Family: Facets of Empowerment
- No.5 Family as an Environment: an Ecosystem Perspective on Family Life
- No.6 Partnership Families: 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

부록1 - 가족에 관한 사안들

1. 가족 : 일치를 위한 다양성과 역동성

가족에는 국경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족은 유사하기도 하거니와 그 만큼 다르고 다양하다. 생산적인 가족들은 세계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가족들은 앞으로 올 세대의 요람이다.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대개 모든 나라의 사회적 뼈대를 반영한다. 세계의 가장 오래된 인간관계의 표현형태로서, 가족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인간의 진보에 적응하며, 수천년을 지속되어왔다. 현대의 세계에서 사회는 복잡한 관계들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족이다. 사실상, 가족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과 세대간의 형평성과 상호성은 생물학, 법, 관습이나 선택 때로는 경제학에 의존한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모든 문화와 전통에 걸쳐 국경이 없다.

가족을 단순히 볼 수는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定意도 없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구조가 다른 여러 유형의 가족이 존재해 왔다. 더구나, 새롭고 다양한 가족 유형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가족내의 대인관계의 종류는 국가사회간에 국가사회내에서도 다르다. 그러한 다양성과 분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문화적 다원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 예를 들면,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전통적 특징에 맞지 않는 편부모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법 체계와 정책결정과정은 그러한 변화에 뒤져 지체되고 있고, 완전히 통합된 가족의 맥락에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가 여성 세대주가족인 편부모가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법, 사회,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가족은 살아있고 진화하는 제도이며, 사회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여태까지 가족은 문명의 진화로 인해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변화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발생하며, 가족내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내면서 다양한 속도와 정도로 이루어진다. 가족들은 수 많은 요인들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인구학적 경향; 사회-문화적 변화: 경기의 후퇴 및 침체; 전쟁; 기아, 실업; 이민; 기술적 혁신: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요구: 여성에 대한 기회 확장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집합적 가치가 개인주의로 변화하기도 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가치가 집단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으로 보며, 자기-실현, 자기-표현,

자기-성취, 자율과 자유 등이 높은 가치로 인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은 지역마다 매우 다른데, 새로운 가족의 구조와 문화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가족 사회정책과 사회개발의 중심 주제

가족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심목표는,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을 고무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관찰을 통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a)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어놓은 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구성원의 성장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서적·물질적 지지를 위한 자연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가족들은 생산과 소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로서, 경제적 과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들의 욕구는 진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의 목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간략히 말하면, 가족들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과정의 원동력이며, 정책을 세우고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b) 가족에 관한 주제는 사회정책과 사회개발 이슈의 광범위한 범위설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다른 어떤 집단도, 수 많은 쟁점을 독특하게 수렴하거나 사회적 진화를 다루는 횡단적·통합적인 방법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개인의 기본권과 복지-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주변화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가족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하고 필연적인 귀결은 가족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안전 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전통적 가치가 변화하고 사회-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험난한 경제현실 속에서 최근에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c) 가족은 살아있고 진화하는 사회제도로써 인류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지도 모른다. 많은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그 변화의 속도 자체가 가족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전의 어떤 역사에서도,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그렇게 많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인류는 종종 변화하는 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 새로운 태도와 행동이 학습되고 내면화되기까지 시간이 요구된다. 많은 사회에서 양육과 배우자관계에 대한 오래된 전통들이 낡은 것이 된 반면, 새로운 것들은 아직 시작되거나 수용되지 못하고 일종의 규범의 진공상태를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개별 가족에게 도전하는 많은 사회적 변화가 생기고 가족의 수준에서 널리 퍼졌다. 가족들은 변화의 수령자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화의 주체로서 기능한다. 사회와 가족이 서로를 반영하는 상호작용(reflective interaction)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형태인 가족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요컨대, 가족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도전들과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수 없이 많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달과 다양화의 수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과 사회 복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족은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역기능적이지 아닌 적응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는 가족의 투쟁은 의미가 있으며 면밀한 연구가 될 만하다. 따라서 IYF는 이러한 적응과 변화의 노력을 하는 가족을 지지하고, 사회발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2. 왜 세계가족의 해를 갖는가

세계가족의 해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한 철학교수가 기말 시험에 페이지를 모두 비워둔 채 "왜?" 라고 질문을 한 것이 유명한 일화로 되어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왜 안되는가?". 이 이야기가 기말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철학생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IYF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족들은 여러 사회에 몇가지 형태를 보이며, 자신들이 부분으로 속해있는 사회의 구조와 행위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가족들은 인간의 사회경험에서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가족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학생의 표현대로하면 세계 가족의 해를 "왜 갖지 않는가?". 그러나 IYF의 타당성이 분명히 이해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왜 지금인가?"

지난 50년동안, UN은 더 큰 자유를 갖기 위해 인류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옹호하는 중요한 쏠 지구적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와 옹호는 그것만으로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UN의 주요 이벤트들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개인과 사회 집단과 전체 사회에 혜택을 주는 조치의 첫 걸음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의 10년은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해가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는 인간 개발의 선별된 측면에 주로 집중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부분적으로 접근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본다. 가족의 주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동시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은 기층의 수준에서, 사회적 및 발달적 복지환경의 강점 및 약점을 가장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가족을 통해 사회적 진보와 발달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첫 고려이며, 따라서 IYF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 될 것이다.

IYF : 가족지지의 노력

IYF의 선포는 직접적으로 가족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가한 결과에 기인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결집된 노력이며, 가족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지지하려는, 가족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이러한 쟁점들을 풀어갈 활동들을 시작하고 실행시킬, 그리고 가족을 강화하는 모든 수준의 변화를 실행하려는 제도적 능력을 창조하는 주요 동반자-정부, 민간 및 자원부문, UN기구와 다른 정부간 조직-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전의 비슷한 이벤트들과 비교해보면, IYF는 그 수행에 있어서 독특하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의 사회정책 영역에 적용되듯이, 그것들을 여러가지 사회적 쟁점을 결합하고 종합하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준에까지 끌어내려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IYF의 역할이다. 그것은, 이전에는 분리되어 함께 취급되지 못했었던 사회적 생활의 분리된 문제를 연결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관심과 고려사항

우선, IYF는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을 제기한다. 다음은 그 중 몇가지이다:

- (a) 가족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권리를 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국가적 · 국제적으로 이루어온 업적을 손상시킬지 모른다;
 - (b) IYF 인하여, 가족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정해지고 가족의 특정 모형이 추진될 것이다;
 - (c) IYF의 준수는, 가족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가족의 주요 책임을 강조하는데 소홀할 것이다.
- 그러나, IYF에 대한 초기의 논쟁 이후에 그와 같은 염려는 건설적으로 진보한 것 같다. UN의 관점에서 볼 때 IYF는, 가족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라는 대의명분과 양성간의 평등을 강조하려 하며; 기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권리와 책임에 기초를 둔 개념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갖는다.

IYF . 행동강령

IYF는 개별가족과 같이, 미분화되고 단일한 색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94년 IYF의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준비과정에서, 기층의 수준에서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국가 및 지역의 수준에서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IYF는 세계의 각 지역들의 가족의 다양한 강점과 약점, 문제와 잠재력을 반드시 부각시켜야 하고 그럴 것이다. IYF는 기층의 참여원칙에 기초를 둔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혁하고 향상시키는 강령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지방, 국가, 지역 수준에서의 정책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이다. 회원국가의 편에서 볼 때 IYF는 위임성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4년 IYF는 1989년 UN총회에서 회원 국가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포되었다. IYF의 선포는, 국제적으로 가족문제를 언급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회원 국가들의 의향을 가시화한 것이다. IYF는 가족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조사와 토론과 행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IYF는 가족을 동원하고 세력화할 것을 요구하므로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로서의 UN이 최선을 다하고, 주요 국가적 · 국제적 비정부기구가 결합한다 하더라도 가족 자체를 지지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정책의 기득 이권과 관계된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의 가장 큰 블록은 가족이다. 세력화의 원리는 IYF가 열망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운영원리이어야 한다.

3.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변화와 진화

가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 단순한 시대-규칙과 역할이 모호하지 않고, 미래가 덜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향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사실상 소위 과거의 덜 복잡한 세계는, 여성의 종속, 어린이의 착취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같이 여러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미래에도 살고자

하는 종류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IYF는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지니고, 현재 세계의 쟁점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사회와 똑같이, 가족은 전반적이고 변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변화의 조달자이며 동시에 수령자였다. 때로는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하고 대신에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되기도 했다. 어떤 경우, 이러한 과정은 적응적이었고, 때로는 파괴적이거나 가족의 생존에 위협적이기도 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건, 좋건 나쁘건, 가족을 구성한다고 향수에 젖어 이해되었던 많은 것들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져갔다. 더구나, 가족의 생활을 묘사하는 많은 고정관념이나 관례들이 종종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더 이상 실제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적 변동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의 예는 농촌과 도시의 가족들일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도시의 중심부는 파괴적인 경제와 개별적 기회의 부족에 직면하여 생존 전략으로서 서로 모여드는 확대가족 단위를 점점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예전의 확대가족의 지역이었던 농촌지역은, 지원금을 받던 토지가 제한되면서 스스로 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줄어들어서 점점 핵가족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한가지 이유는, 가족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점점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전 세계적 변동은 여러 형태로, 가족에게 독특한 기회와 위협을 각각 가져왔다. 예를 들어, 문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지형은, 역사적 시기보다도 신뢰할만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는 그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 세기동안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문화적 유산은 공고했다. 이러한 보호는 세계가 좁아지고 경제적 지역화가 도처에 있는 기업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전통적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태도와 같은 문화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다른 경우는, 좁아지는 세계와 국가를 초월하는 경제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핍이나 박탈이나 전쟁, 박해 등을 피해 이민한 수 많은 가족들은 지금, 안전과 가정과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지구를 헤매고 있다. 그러한 가족들은 특히, 구성원들과의 이별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기 쉽다. 그들은 종종 또 다른 문화적 변화에 대한 부담, 적응과 동화의 어려운 과정, 빠르게 변하는 가족내 인간관계의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

동시에, 이민 가족들은 친밀함,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충족의 場; 그리고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상호지지자 등과 같은 개인·집단의 정체감의 원천으로서의 강력한 가족의 예이기도 하다. 이민 단위는 현 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안락과 지지를 몹시 필요로 하는 이 지구의 원천인 가족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한다.

가족의 적합성은 인구학적이거나 지리학적인 변화로, 구성원의 감정적·정서적 지지로 확실하게 국한될 수 없다. 가족은 사회와 세계변화의 핵심이 되는 태도와 가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근원이 된다.

기회제공자로서의 변화

(예전에는)내외적으로 가족이 겪는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변동은 이에 대한 서술을 무력하게 할 정도이다. 그 계속되는 변화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적응하고 사려깊게 행동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의미있고 생산적인 행위를 통한 변화에의 적응능력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다.

모든 곳에서 가족은 변화의 요구에 적응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필요로 한다. 환경의 쟁점, 상업과 통신으로 좁아진 세계, 광범위한 정치적 변동과 기술적 혁신등이 모두 가족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도망자가 존재하는 것이 이 지구의 삶의 현실이다. 가난, 이탈, 굶주림과 폭력은 여전히 도처에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적응에 쓰일만한 선택은 매우 적은 그러한 무서운 속도와 힘으로 가족을 강타할 수 있다. 혁명 역시 비싼 희생을 치루며, 어떤 가족에게 이 비용은 너무 막대하다. 그러한 가족들은 어떤 형태든 결집된 노력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새롭고 긍정적인 사회유형이 낡고 부적합하거나 불공정한 것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때, 빠른 변화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역사는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예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변화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사려깊게 행위할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려깊은 행위는 인간이 건설한 사회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증거가 있다.

가족내의 변화

사회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은 가족내부에도 똑같이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특별히 선진국에서는 여성에 의한/그리고 여성을 위한 광범위한 업적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작업들이 완벽하지는 않고,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족내부와 인간사회에서 이미 일어난 괄목할 만한 개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는 여권주의적 사고와 집합행동의 거대한 물결에 대한 반응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러한 변화의 폭과 깊이이기 보다는 발생을이다.

가족내의 변화를 낳은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가된다. 임신을 통제하거나 자극하기도 하는 의료기술, 가족내 노령자의 증가. 어린이와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민감성 확대, 범죄와 학대의 증가. 이러한 것들 각각은 가족을 통해서 조정되고 가족생활에서 다양한 긴장과 변화와 협상으로 다시 드러날 수 있다. 급격한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내 변화도 역시 행운과 문제점, 혜택과 희생, 확실성과 위험 등을 낳는다.

가족을 인식할 때 근본적인 것은 가족생활에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과 도덕적 의무감,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연대의식의 부재, 한편으로는 힘과 통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가족원의 빼앗길 수 없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너무나 자주 가부장적 지배의 방편이었고 여성과 아동의 종속을 낳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생활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되었다: 독점적인 남성 우위의 주술: 위협, 강제, 협박: 경제적 학대; 아동학대와 아동노동: 그리고 소외나 기타 다른 형태의 정서적 학대.

긍정적인 성장

따라서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진보를 가져오는 변화에 필요한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가족생활에서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 (a) 일의 공평한 분배를 포함하는 책임공유를 위한 절차와, 가족을 단위로 묶어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 (b) 존경과 신뢰와 지지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꺼이 다른이의 말을 들어주고, 모든 성원의 의견을 가치있게 받아드리며, 정서적으로 확인해주고, 삶의 목표를 각자 지지해주고, 각자의 감정과 의견과 선택권을 갖도록 각 성원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c)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이 비-위협적 행위를 해야 한다.
- (d)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실수를 허용하며,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각자의 책임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e) 공정한 분위기에서 협상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상호간에 갈등을 풀고 변화를 받아드리고 기꺼이 협상하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의미한다.
- (f)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이 경제적 결정을 함께 하고 가족 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 (g) 책임있는 부모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공유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역할 모형을 가지며, 평등에 기반을 둔 동반자관계를 의미한다.

아버지 공유하기

20세기는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남성들에게, 적어도 서구의 경우,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의 문제들을 낳았다. 그러나 부성은 반드시 남성의 문제로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300년경 전에 William Penn은 남성들이 자신의 자녀 양육보다 점점 말과 개의 사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불평한 바 있다. 사실상, 많은 가족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에게 주요한 혹은 유일한 재정 제공자 이상으로 비취지지 않아 왔다. 어머니의 재정 제공자로서 역할수행이 늘어나고, 몇몇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경제적 재구조화의 효과가 남성의 가정경제 책임자로서의 우월한 역할을 이미 침해했다. 분명히 어느정도는, 사회 정책도 가족들을 위한 다른 유형의 재정프로그램과 소득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공헌해왔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과는 더 많은 아버지들이 그들의 책임감을 간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정책이나 법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적인 지원이 아버지만의 독자적

영역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서 아버지는 재정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해결책의 일부분은 가정내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의 비-재정적 차원인 아동에 대한 적극적 양육자, 교육자,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의 유기적 관점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왜 그러한 관점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한 사실적이고 교육적인 예를 제공한다.

부성의 경우는 우선, 가족내에 현존하는 중요한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둘째, 가족관계의 복잡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부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측면은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에서일 것이다. 더욱 분명히, 아버지의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현시대의 쟁점은 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성간의 평등

전통적인 가부장적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책임감은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 여성의 기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예가 가사역할의 불균등한 분배이다. 단순하지만 철저하다루어야 할 해결책은 가사의 책임감을 남성에게도 똑같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어머니가 가정 밖의 일에서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로이 접근하므로 해서 줄어든 가사부담을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더 넓은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만 의미있을 것이다. 비-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를 지지하는 등의 의미있는 비-재정적 방식에 아버지를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제재를 받아서는 안된다. 가정안에서 역할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내의 양성간의 평등을 이루는 것과 서로 얽혀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UN 기준에 기초를 둔 양성간의 평등을 향한 노력의 진보는 가족을 규정짓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조화된 유기체적 관점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내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제한하는 바로 그 구조가 남성의 비-전통적인 역할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두 제약은 가족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도전은 효과적인 가족정책의 발달과 IYF를 통한 가족의 지원으로 통합된다.

반면, 가족의 복지, 여성의 동등기회 성취, 여성과 남성의 역할공유를 추구하는 IYF 프로그램은 가족내에서 동반자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개념 및 유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연히 남성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고 양성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가정생활교육과 부성 및 부모 육아휴직 등의 유인책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새로운 역할 특히 가사일, 아동 양육, 아동성장 및 발달, 가족계획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부성영역을 넓혀 주어야 한다.

4. 사회정책의 도전들

IYF를 선언하면서 총회는 지방, 지역과 국가수준에서 주요한 활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관련된 국가의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간과 비정부조직의 협력하에 UN과 그 조직체계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방과 국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의 범주를 제안했다.

(a)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강화하기;

(b) 가족이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지와 공공서비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간의 균형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c) 가족관계가 사회적인 문제에 효과를 인식하고, 가족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나 착취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국가와 시민사회의 발전은 때로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과 부딪히는 여러 제도와 구조를 낳는다. 국가와 시민사회와는 별도로, 시장, 교회, 정당, 사회협의체, 다양한 생산 및 소비단위들이 있다. 심지어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개인주의와 개별적 소비가 있었고 전통적인 가족유형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의 거대한 움직임이 가족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족성원을 감싸주고 연결해주는 기본적인 연대감을 대체할 제도가 전혀 없다는 데에 가족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형평 : 특별한 관계

관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계속해서 소위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즉, 인간들 자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역사회. 기능의 지역사회, 책임과 의무의 지역사회 권리의 지역사회인 것이다. 이와같이, 가족은 사회내에서 다른 요소들이 할 수 없는 과대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은 성과 세대간에, 그리고 시민사회와 市場 및 국가사이에서도 여전히 특별한 관계이다. 연대감과 상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관계의 특별한 성격은 물질적으로도 심리-사회적으로도 가족쟁점을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를 낳는다.

가족이 여전히 주요한 요소인 사회는 세대내와 세대간에, 자원의 할당과 사용에 있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의 자원의 이전에 있어서 형평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세대간 형평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은 가족내이며, 어떤 것도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가족의 변화하는 성질때문에, 가족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 이러한 역할은 단순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특별하고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사를 똑같이 분담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조건으로 보여진다: 적극적인 부모의 참여는 어린이의 교육에 매우 중요하게 보이며: 마찬가지로 가족은 예방적 건강보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점점 더,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도적 역할로부터 후퇴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떠나거나 물러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높은 정책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현장 수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회사업가, 교사, 의료사회사업가와 기타의 전문직이 일상적으로 그들이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용 자원중에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탈제도화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의 움직임은 가족에게 다양한 인간육구 충족의 책임을 맡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은 항상 이러한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늘 충분히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IYF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사회정책의 사상의 관점에서 생각할 기회와,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더 많은 책임을 맡도록 장려하는 관점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족을 국제적 의제에 가족을 위치시키려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가족의 욕구와 책임, 국가의 욕구와 책임을 조정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균형이다.

다시말하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을 찾는 일이 과제이다. 함께 고려하자면, 이러한 것들은 사회내에서 가족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이론적 타당성을 형성한다.

자원 : 평가의 필요성

IYF의 가장 명백한 사회정책의 원칙중의 하나는 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가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힘을 북돋우는 것이다 그와같은 원조는 가족의 기능과 중복되지 말아야 하며, 가족이 사회에 제공하는 지지적이고 생산적인 공헌에서 가족을 유리시켜서도 안된다. 그러나 의미를 지니려면, 이러한 원칙이 정책과 실행에서 지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시민권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이 지니는 책임으로부터 가족을 떼어놓지 않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족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합법적인 관심중의 하나는 가족성원간에 가족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정도이다. 또 다른 쟁점은 가족중의 누가 이러한 자원을 받고, 가족 안녕에 대한 가족 성원의 모든 공헌이 국가에 의해 똑같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종종, 아동-양육과 가정관리에서 생기는 자원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소득에서 생기는 가족의 자원은 인정된다. 간략히 말해서, 가족자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사회와 가족의 특별한 때로는 생산성 관점에 의해 조건지워져온 것이다.

도전 과제

가족은 사회의 기층에서 묶어주는 요소로서, 다가오는 미래에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앞으로 도전받을 것이다:

(a) 개인과 사회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간, 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권리간에는 영원한 이분법이 있다.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원의 개인적 권리이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간의 평등한 성취라는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회는 경제 사회적 현상과 태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현상들은 비참한 빈곤, 실업, 기아, 무주택과 이민가족, 아동 방임 및 학대, 가정폭력, 마약 및 알콜 중독, 노인에 대한 허술한 보호, 장애인에 대한 기회부족 등의 주요 사회문제 원인의 뿌리가 된다;

(b)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진행과정은 자체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듯하다. 국가는 더이상 기꺼이 가족을 대신하는 전능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像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이며, 중요한 자원의 기반인 가족의 역할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c) 가족중심적 모형과 다른 관련된 접근들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고 있는 전환기의 많은 나라가 그러하다. 가족은,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자로서 시대적 평가를 받지 못한 몇몇 제도의 기능을 인계받아야만 할 것이다. 효과적인 가족지지 정책을 만들려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노력도 개발도상국의 가족상황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5, 가족의 교육적 기능

문화 : 인성의 기반

문화는 사회유산의 요소 이상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경험된 삶의 양식이다. 문화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 행동방식과 세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모든 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일정한 방식이나 불변의 정보로 이루어지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화적인 것이며, 인간의 문명, 특히 현대적 맥락에서 기술의 혁신과 진보에 의해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기술에 대한 조직화된 지식은 세계 전체의 문화변화를 낳는 주요하고 증가하는 힘이 되고 있는 듯하다. 문화는 새로운 생산물과 생산 과정이 빠르게 이어짐으로써 형성되며, 실제적인 문제를 사고하는 체계에 의해 제도화된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좁아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부각되는 세계 문화의 탄생을 목격하며 그에 동참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공간과 시간은 문화를 예전처럼 격리시키지 않는다. 통신, 이동, 전 지구적 시장 등이 개인과 가족의 삶 안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에게 유용한 문화정보의 다양한 원천들이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기회와 도전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화의 교환이 삶을 풍부하게 하고, 지구적 이해를 도모하며, 그 자체로 세계평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현재의 변화율과 정보에 있어서의 유례없는 성장이 문화를 심각하게 요구하고, 방향을 제공하고 안정과 의미를 제공할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가족과 교육은 개인에게 중요한 답을 제공하여, 복잡한 경험세계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해할 기제를 제공해준다.

모든 사회에서, 문화와 교육은 지역사회내의 개인과 집단의 조화로운 통합을 낳는다. 경제와 사회발전은 주로 각 사회의 세계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의 견해는 교육체계를 통해 전수되고 암시되는 가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은 문화 유산의 寶庫일뿐만 아니라 문화 변화의 기제로서 기능한다. 비슷하게, 가족도 개인을 전통속에 안주하게 하고 현존하는 문화유산을 전달하며, 더 중요하게는 변화와 개혁, 문화 혁신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족에 있어 교육과 더불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힘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주의깊고 보호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대안은 밝지 않다. "교육은 무기이다. 그것은 자신의 손에 교육을 거머쥔 사람과 교육이 겨냥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인간되기

문화의 발달은 계속성에 의존하며, 학습하고 후세대에게 지식을 전할 능력에 의존한다. 교육은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유용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세대간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의 지혜에 도전하고, 지식을 확장하고, 현존 제도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회를 재창조하고 변화 시킨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교육기관, 가족에서 시작하여 전체사회로 뻗어가는 광범위한 체계이다.

각 성원들은 문화화를 통해, 그들이 태어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인간 즉, 깨어있는 사회적 인간이 된다. 각 성원의 삶은 문화가 다른 것들과 조정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되며, 반대로 각 성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의 형성에 참여한다. 각 개인의 첫 배움이 생기는 곳은 모든 관계와 더불어 더 큰 사회에 대한 반향. 내적인 세계에 대한 각 성원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가족안에서이다.

원래 개인들에게 있어 문화화의 과정은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을 묘사해준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포함할 것이며, 지식의 내용이 매일매일 변하는 현대적 정보환경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가족내 보다 더 중요한 문화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 가족은 학습과 삶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얽혀있다. 가족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의 표현-어린이의 개방적이고

깨끗하고 호기심어린 마음-에 접근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형성하는 첫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능력을 맡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가족

만인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회의 '1990년 3월 5일에서 9일까지 타일랜드 잠티엔에서 열린 기초 학습욕구 회의는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학습"이라는 개념을 공인했다. 태어나서 6살까지의 기간은 지성과 인성 및 사회행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 생애의 초기에 일어나는 학습은 이후의 생활을 통해 학습을 향상시키거나 장애를 주거나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아동의 초기 발달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환경에서 일어나며,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가족은 역사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을 매우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이 높이 평가받는 문화에서 아동의 교육을 독려하는 주요 요인은 안정된 가족이라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몇몇 선진국에서 교육의 성취가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가족의 지원체계가 발달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이 인간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견해가 점점 지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적으로 사회가 하는 결정과 개인적으로 부모가 하는 결정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아동이 받을 교육의 양과 종류를 결정한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 현대화의 세력에 노출된 정도와 사회적 전통들, 학교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정도, 교육이 가진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들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이러한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우선순위와 경제적 조건이 또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관여를 제한하거나 혹은 향상시키기도 한다.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적인 위기는 부모에게 많은 교육의 부담을 옮겨주었고, 모든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의 능력을 요구하며, 거대한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부과되고 있다. 아동의 초기사회적 성숙, 가족의 독립적 수입능력, 젊은이 문화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내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동은 어린시절과 청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의 영향력을 모두 감소시켰다. 예를 들면, 편부모는 다른 부모의 필요한 지원과 협조없이 국가의 도움없이, 아이를 먹이고 채우고 교육시킬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통신 기술, 특히 컴퓨터과학과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학교와 대학의 강의 등은 점점 비디오와 오디오 장치와 프로그램이 다양해 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학창시절 동안 사회화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인 변화는 종종 부모가 자신의 아동의 교육적 경험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 결국, 많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가족들은, 변화되고 유동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의 교육에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6. 가족과 평화

평화로운 삶 준비

인간의 마음과 국제적 관계의 실행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국제적인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에 대한 지각은 오랜 전통과 행동기록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저자들과 사상가 및 정치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인간들은 평화로운 정서와 교육보다 호전적인 정서와 교육을 더 많이 개발해 왔다.

유명한 이태리 교육학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현존하는 장비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단위 규모로 평화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히로시마에서 첫 원자폭탄이 폭발함에 따라서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결론짓기를, 핵 에너지는 한 사람만이 직면하는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에 인간이 손을 위협스럽게 댄으로써 기술 문명의 진보와 인간 의식상태 간에 거대하게 벌어진 괴리와 같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UN의 기구들이 평화교육을 진흥시키려는 새로운 노력들을 늘려왔다. 계속되는 냉전시기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UN의 많은 해소책과 선언들은 평화교육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UNESCO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결속력에 평화가 미치는 영향을 찾으려는 노력들이다. UN의 축적된 노력인 평화로운 삶을 위한 사회준비에 관한 선언은 1978년 12월 15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한 사회준비는 특별한 종류의 교육이며, 전통적인 교육용어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상의 복잡하고 상이한 과정이다. 후자가 약간 제한적이고 일방적이라 한다면,

전자는 모든 인간을 하나의 과정에서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 학생인 동시에 교사로서, 인간인 동시에 가족과 지구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으로, 국가와 동시에 국민가족의 성원으로서 집합적으로 취급한다. 평화를 위한 준비는 모든 국민과 모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 사실상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갈등과 긴장은 모든 수준의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화는 사회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질을 구축한다. 평화는 하나의 구성물이다: 적어도 2가지의 부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구성의 계획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만들어 지며, 특별히 가족의 맥락에서 평화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평화로우움을 배우기

평화는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습은 성취에 주축이 된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폭력적이고 경쟁적인가 아니면 평화적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차지하고, 개인의 평화에 대한 경험은 종종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반면, 개인의 삶의 경험은 종종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전쟁과 갈등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 인간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집합적인 욕구에 조건지워져 있는 것은 다른아닌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이다.

평화교육의 문제에 적절한 인지적 발달영역에 대해서는 무수한 이론들이 있다. 물론, 그것들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인간발달의 차원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평화는 개인의 타인과의 그리고 자기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과의 관계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무엇이다. 이것은 진정한 국가간의 평화이고, 자연과의 평화이며 조화이고, 사회내의 평화이며, 인간들 간의 평화이고, 가족내의 평화이다.

평화교육의 핵심으로서의 가족

평화를 위한 교육을 볼 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제공될 교육에 있어서의 투자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가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인간교육은 제도적인 학습 이전에 이미 오래동안 이루어졌다. 사실상, 그와 같은 교육은 생애의 초기에 일어나며, 친밀하고 매우 제한된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학습과정은 가족에서 시작된다. 아동은 형제자매나 부모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와 접촉하면서 자아와 타인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 동정적인 이해가 생기는 곳도 바로 가족내이다. 처음에는 모방(몸짓과 억양과 행동습관에 대한)을 통해, 나중에는 역할 수행을 통해 아이가 제한적이지만 견고한 세계관을 형성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인지적이고 감성적인 견해에서 보면, 개인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는 한 평화라는 개념을 "포착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며, 의미있고 자기확신적인 방식으로 여러 견해를 가진 정보를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평화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은 가족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과 방식이다. 수많은 연구가 부모의 생활방식과 아동발달간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헌들은 모두 부모와 아동관계의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내의 폭력의 쟁점은 가족내 평화교육의 쟁점에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족내 폭력 행위가 세대간에 전수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회적 사실로 존재한다. 폭력을 보거나 직접 희생자가 되었던 어린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폭력적이 될 우려가 높다. 학대받는 아동은 자신의 자라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많다.

배움이 시작되고 가족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생활은 훨씬 더 많은 행동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다. 가족생활은 긴밀하고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각 개인이 타자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외부세계를 이해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평화롭게 사는 가족은 가족 평온함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아동과 어린이와 궁극적으로는 국가세계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언어이기도 하다.

각 개인의 행동방식의 전체적인 레파토리, 특별히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것은 그의 가족관계史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학습방식은 동작, 외적 표현과 단순한 태도이상이며, 복잡한 사회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종류는 개인에게 단어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개인에게 사회언어의 구조 바로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가족적 교육

평화를 위한 교육은 살아있고 활기를 주는 과학이다. 한 개인이 받는 초기교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의 세계를 조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쳐준다. 모든

가족이 어떤 동기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갈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평화적인 해결이 얼마나 가치있는지를 결정하는 등의 선택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수준에서이다. 가족내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악의등을 인지하는 방법을 배운다(혹은 배우지 않는다).

비평화적인 세상의 징후와 원인들이 각 개인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노출은 모든 인간과 특히 어린이들에게 순응과 수용과 무감각을 낳을 수 있다. 일상생활의 세계는 당연시되고 오래된 비-반성적인 관습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비-평화적인 행동들이 일상적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정은 생생한 의지와 같은 의식적 행동이어야 한다. 가족내 평화교육의 방법론은 반성과 토론과 숙고관행을 요구한다. 너무나 자주 아동들은 부모의 일상적인 충고에서, 그리고 가정의 훈육에서, 지역의 잔인한 질서에서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무서운 논리를 배운다.

많은 단순한 진리와 더불어, 평화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고 믿는 것보다 어렵다. 가족내의 평화에는 반성과 토론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새롭고 평화로운 이해가 양성되고 자라는 것이다. 모든 일상적인 것들과 더불어, 비-평화적인 세계해석은 종종 기존의 문화의 중요성에 의해 지지되기도 한다. 단지 가족내에서 그리고 가족내의 모든 곳에서, 압력과 정반대되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화의 대의명제에 필요한 自信과 의지와 참을성과 개인적인 용기를 낳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가족의 경계는, 아동학대나 여성종속의 잔악함을 숨기는 등 부정적인 목적을 수행해 왔다. 긍정적인 경우, 가족의 경계는 반드시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서 새롭고 건설적인 이념이 생기고 실행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가족적인 교육은, 선택과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생생하고 적극적인 과정이다. 평화를 가르치는 것 역시, 사물의 형성된 질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일상화되는 환경을 조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 분석에서, 모든 상징적인 풍부함에 있어서 그것은 반성과 평화로움을 위한 신성한 장소를 제공한다.

세계를 위한 가족의 교훈

가족 구성원간의 살아있는 평화는, 일반적으로 사회내의 평화의 전통을 창조한다. 분명히, 상호존중, 공감과 친절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가족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는 타인의 권리감을 배양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가족관계는 반드시 커다란 사회에서 고무되어야 할 전적이고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가족내의 가족에 의한 평화의 증폭은, 가족 행복의 기틀과 진정한 안전사회와 같은 더 넓은 안정성을 형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 평화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가족은 평화로운 세상의 원리를 가족성원에게 나타내 준다. 그러한 원리는 상호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책임의 분담, 동정적 이해, 개별적 차이에 직면했을 때의 자기 확인, 관용,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안정성과 사랑이다. 이러한 원리가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표현됨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관점들이 그 구성원의 세계관에 섞여 들어간다. 가족과 가족문제에 대한 저작들은 종종 국민국가의 문제와 동일하다. 초점이 되는 사례는 가족내의 갈등의 조정이라는 쟁점이다. 가족들은 갈등이 해결되는(혹은 해결되지 않는) 방식에 있어서 현격하게 틀리다. 접근들은 도피나 육체적 벌에서 조정과 양보까지 다양하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족도 이러한 접근들을 선택해야만 한다.

분명히, 가족에게 있어서, 모든 비-평화적인 형태의 갈등해소는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갈등해소책에 대한 실패나 부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족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갈등과 불일치가 단순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아동은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종종 지배하려하고 불공정하며 불필요한 부모의 보호를 거부해야 한다. 그들은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협상하고 토의할 수 있는 대인적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내의 평화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다. 평화는 존재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학습과정이다.

가족은 정태적인 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진화하는 실체이다.

어떠한 세계의 진보도, 깨이고 평화적인 마음을 가진 공헌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기층의 수준에서건 국가와 지구의 수준에서건. 바오로 6세 교황은 예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마음의 무장을 풀지 않고는 무기의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지도자나 전 인구가 평화로운 갈등해소에 관여한다면, 평화로운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보여진바 있다. 사실상, 무장해제의 지구의 새로운 전기와 상당한 진보에 마음의 무장해제가 공헌한 바 크다. 세계 도처의 혼동 경험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평화스러운 사고방식과 평화에 대한 내적인 관여의 생태학이 그것인데, 이것은 가족에 그 뿌리를 두고 가족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다.

7. 가족의 미래

보조의 원리

가족 다양성의 역동성은 각 성원에게,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인간의 요구에 있어서 사회 구조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지구적 보조구조에 필수적이다. 개인에서 지구까지 전체적인 보조체계에 연결됨으로써, 가족은 알려져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탄력적이고 내구적이고 유연한 사회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가족은 끊임없는 변화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IYF가 가족의 지지와 보호에 필요하고 요구되는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알려져 있지 않은 가족

한가지 어려움은, 가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노력을 곤란하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바뀌고 국가 사회내부와 사회간에 다양한 형태가 발견된다는 점과 얽혀있다.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가족을 둘러싼 가장 커다란 모순중의 하나는, 정부가 가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공식통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데 있다. 간략히 말하면,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종종,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장되는 것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해라기 보다는 고정관념과 직감과 일화와 경험등에 더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가족은 최근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서, 정책입안자 학자, 기타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족에 관한 견해는 가족이 현재 어떠한지가 정확히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존하는 법적 정책적 틀이 가족생활의 현재의 실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도 없다. 사회정책이 점점 가족에게 의존함에 따라, 강화된 조사작업을 통해 가족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IYF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도움을 요하는 가족

반드시 조사를 수행해야겠지만, 정보를 주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식을 통해 입법가와 정책체계를 자극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한 지식은 알려진 것들도 포함하지만, 인정하기 꺼려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쓸모없다고 간주되어 여아가 굶주리고 있는 사회, 악의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쌍둥이가 유기되는 사회, 아동이 노예나 매춘에 팔려가는 사회가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내에서 무지와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어른의 이기심, 아동학대와 유기, 여성에 대한 학대와 착취등에 의한 가족성원간의 불평등, 때때로 행하는 무감각한 잔인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은 인간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위선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쉽고 가시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욕구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닫기 때문이다. 결국,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기타 다른 참을 수 없는 태도들은 가장 끈덕진 무지의 유형을 나타낸다.

세계의 가족들은 계속되는 무거운 긴장상태에 있다. 경제적 정치적 이동이 많은 부분, 환경문제, 질병, 전쟁, 빈곤, 기아 등에서 일어나고, 이것들은 가족들의 적응능력을 종종 벗어난다. 그러한 압력은 분명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업, 마약, 범죄 징벌, 면역결핍 등에 의해 야기되는 압력도 발견된다. 가족들은 종종 이러한 압력에 내동댕이 쳐지고, 이겨내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조치를 위한 주요 수단들

지역과 국가수준에서의 조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므로써, IYF는 국가의 체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들의 구성과 정책형성 및 감청을 가능케하고, 지방과 지역 및 국가적인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가족의 상황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문제에 반응하는 노력을 자극하고, 국가와 국제적인 비정부기구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UN체계 안팎의 많은 조직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제적 활동의 결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가족 연대의 불꽃이 다시

켜질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중요한 가족환경을 찾기 위해 IYF는 옳은 방향으로 단계를 밟는다. 우선순위는 각 나라에서 지역과 국가 수준에 맞춰지며, 더불어 각 조직에 맞추어 진다. IYF를 준비하고 준수하는 주요한 책임은 국가가 진다.

IYF의 원칙은, 가족과 사회의 맥락 모두에서 개인이 평등하고 완전한 권리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IYF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유 및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정책의 기준과 원리를 바탕으로, 가족과 가족내부의 관계를 고려한 인식과 관점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공헌해야 한다. 나이로비 여성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 회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회의,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및 발달에 관한 세계 선언, 1990년대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등이 그 중요한 요소이다.

풀어가야 할 도전들

사회정책의 도전들을 충족시키려는 UN의 노력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나 물질적 발달의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서 국가가 사회적 목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많은 지역에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가지 견해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 "경제적"욕구와 "사회적"욕구를 2분법으로 나누는 점이다. 후자는 전자에 종속적이다. 자원 할당은 여전히 계속되는 그러한 모순적인 사고에 의해 방해받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적인"것과 "사회적인"것은 하나의 실체의 두가지 측면일 뿐이다.

(b) 사회발달은 사회의 주변적인 부분과 관련되며, 경제적 · 정치적 발달의 중심 쟁점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사회발달은 박탈당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 관계되는 것이며, 생산성과 성장 및 복지과 안정이라는 문제에도 중심이 된다.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가난을 적절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고, 사회가 분배적 정의의 원칙에 기초를 두려면, 사회정책은 이러한 좁은 시각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1년

인간발달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부족이, 인간 무시의 진정한 원인일 때가 있다"

IYF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을 찾을 수 있는, 이미 이루어진 집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넣고 관여해야 하는 건설의 과정이다.

이러한 방향은 IYF의 이해에 필수적이며, 1994년의 비전이다. 기회와 도전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문은 열려져 있으며,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부록 2 - 가족의 유형과 기능

도입 : 가족의 개념화를 향하여

가족들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사회에 따라 매우 달랐다. 가족의 양식과 구조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가족을 말할 때 한 모습으로 말하기보다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사회 ·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내에서도 역사적으로 형태가 다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사회-경제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단위이다. 모든 개인이 가족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가족의 맥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든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다. 영아는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발달과정에서 가족의 안식을 필요로 한다. 가족들은 인간관계의 생활과 거대한 사회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빠른 변혁을 경험하기도 한다. 공식화된 결혼은, 특히 유럽에서는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아동이 태어나기 전까지 비결혼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의 숫자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늘어가고 있다. 현재 전체 가족의 1/3이 여성 세대주 편모가족으로 추정된다.

독신가구의 숫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어느때 보다도 자주, 사람들은 결혼한 배우자나 동거자와 적어도 성인기의 일부분을 같이 보내고 있다. 이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결혼연수는 20세기초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내의 변화들은 가족이 쇠퇴하는 경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압력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제도는 눈에 띄는 생명력과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다. 가족의 가치가 부식되기 보다는, 현대세계의 도전을 맞아 새로운 가족생활의 형태가 발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식을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가족과 구성원은 각기 다른 발달단계를 경험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외적요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적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가족의 변화는 새로운 구성원이 생겨나거나 그들이 자라고 떠나고 죽거나 기타 생활상의 사건들을 통해 일어난다. 가족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구성원의 안녕이나 고통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에게도 관계된다. 만일 한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전체 가족체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 나라나 사회의 상대적인 힘은 그 사회 가족의 힘에 크게 의존한다.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와 가족간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 많은 가족의 갈등들은 가족이 거대한 사회와 맺는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 외적 경제 및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가족들은 도시화, 산업화, 생태학적 재앙, 전쟁, 기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 정책이나 가족 정책은 가족이 의도하지 않은 긴장을 해소함에 있어서 단지 미세한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성원들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이 부딪히는 문제나 그 해결을 단지 사회내 혹은 가족내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사회는 특정 가족의 상황을 전체 사회의 기본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문제로 취급해 버리기 쉽다.

모든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발전은 위기와 난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상황은 꼭 불행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의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긴급하고 가족성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만, 외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가족변화와 적응의 계속되는 과정은 늘 세대에서 세대로 걸쳐 예민한 과제이다. 본질상, 다세대 가족은 반드시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낳는다. 이들은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늘 새로이 구성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을 낳는다.

가족들은 변화와 발달의 주체이며 동시에, 특히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장애로 작용한다. 만일 가족이 정말로 "우리 사회중심의 가장 작은 민주주의"라면, 전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가족은 사회 중심의 작은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가족내에서는 역할분업과 권력의 배분상에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어린이를 동등한 민주적 동반자로서 다루는 시도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다. 양성에 대한 평등적 가능성은 대부분의 가족에서 단순한 말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수 있는 징표가 있다. 많은 세계에서 가족 밖의 시장 노동이나 사회보장 급여에 있어서 여성이 선택할 가능성이 열리고, 이것이 가족생활의 권력 균형에 도전하고 있다.

두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의 많은 유형과 기능과 필요가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가? 가족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중심의 가장 작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미래의 표정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1. 가족의 구조와 유형학

가족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UN에 따르면, 국가의 법률과 관행상 가족은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 "국가의 법률과 관행하에서 가족으로 간주되는 일군의 사람들"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유엔,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 사회내에서 수용된직한 하나의 가족유형은 다른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 가족들은 가장 넓은 의미로 규정될 것이다. 출생과 만남과 입양을 통해 개인들 간에 연결된 끈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의 묘사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을 논의할 때 바탕이 될 것이다.

가구와 가족을 구분하는 것이 늘 쉽지는 않다.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보통은 중복되지만, 이 두 개념은 여러가지로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가구"는 한 지붕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단위이다. '가족'은 더욱 추상적인 개념인데, 지역이나 시간상으로 엄격하게 묶이지는

않는다. 가족들은 전 생애의 주기를 통해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다: 자식이 나가 살고, 배우자가 헤어지는 등 한 사람은 한 가구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중 몇명은 다른 가구에서 살기도 한다. 가족에서 나와서 자신의 가구를 이룬 자녀는 출신 가족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외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늘 그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심지어 가족성원이 죽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에 속해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사회집단과 가족의 차이는 성원들 사이에서 정서적, 사회문화적, 법적인 관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배우자
- 부모와 아이들
- 형제자매
- 친척

하나의 가족안에도, 이러한 관계는 가족의 하위체계로서 정의될 수 있는 배우자나 부모하위체계 등과 같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대개 이러한 관계는 유전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나(와)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동-양육 활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단되었을 때조차도 사회적 부모에게 급여를 주기도 한다.

핵가족

핵가족은 두가지 중요한 형태로 묘사될 수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것이다. 가족 "분자"인 생물학적 요소는 부모 2인과 아이로 구성된다. 아동은 여성에게서 태어나고 유전학적인 아버지를 갖는다. 이 두 어른은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이의 생물학적인 핵가족은 그들의 결속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핵가족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서, 두사람이 결혼이나 동거등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생긴다. 많은 나라들은 생물학적인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핵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서구가족들은 부모세대와 부양해야 할 자녀세대가 함께 사는 2세대의 생물학적인 핵가족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이가 출가한 다음에도, "빈 둥지"는 여전히 사회적 핵가족으로 간주된다. 통계상으로는 사회적 핵가족. 생물학적 핵가족이라는 핵가족의 두가지 형태가 인간의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에게 더욱 보편적이다. 그 가족들은 도시사회에 더 적합한데, 이유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큰 거주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핵가족이 사회에 많은 잇점을 주는 반면, 특정한 가족구성원은 내적 외적 압력에 의해 무척 취약하게 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다른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혹은 재구성 핵가족의 구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위 복합가족(step-family)은 생물학적이고 비생물학적인 아이들이 섞여 있는 핵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생물학적인 핵가족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편부모가족인데, 어머니나 아버지와 아이들로 구성되는 가족을 말한다. 편부모가족은 한 배우자의 사망, 이혼, 이주, 별거, 유기,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 편부모 가족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양부모가 있는 가족보다 자원이 제약되기 쉽다. 보통, 사별을 한 경우는 이혼이나 편모가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낫다 대부분의 편부모가족은 여성이 가장이며, 남성이 가장인 핵가족의 숫자는 서구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여성가장 가족단위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낫다.

핵가족의 또 다른 형태는 입양가족이다. 이는 특별히 입양된 아동이 생물학적인 아동과 사회적 권리 및 법적 지위를 동등하게 부여받는 사회에서 현저하다.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은 보통 사회적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핵가족으로 생각된다. 상속 및 다른 문제에 관해서 덴마크의 법과 북미 및 유럽의 법규에 동성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점점 사회가 그러한 관계를 수용한다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법률상에는 인정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확대 가족

많은 곳에서 "가족"은 여러명의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가족 "분자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확대가족은 클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조부모 1인과 손자녀 1인이 함께 사는 작은 가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 확대가족은 함께 살거나 아니면 종종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의미한다. 많은 경우, 확대가족과 확대가구의 구별은 쉽지 않다. 확대가족의 일반적인 유형은 3세대 가족인데, 조부모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경우이다.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는 가치를 지닌 문화에서는 3세대 가족은 가장 바람직한 가족형태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한 가족은 종종 토지의 분할이나 기타 재산이 모든 성원들의 경제적인 변동으로 줄어드는 상황도 겪는다. 따라서 3세대의 형태는 농촌지역에 더 보편적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점점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살 수 밖에 없게도 된다. 그 경우, 도시지역에 2개의 핵가족을 포함한 가구가 생기고 분가할 거주지가 가능해지면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의 거주지가 더 작고 핵가족 한위의 욕구에 맞게 기획되는 경향 때문에 촉진되기도 한다.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짐에 따라, 4세대 가족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

친족(kinship)가족은 보통 3세대 이상의 더 큰 단위로 구성된다. 3세대 이상에 덧붙여, 다른 친척들이 같은 가구내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가족구성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친족가족은 형제들이 갈등관계에 빠지거나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에 해체될 수 있다.

친족가족의 해체는 결혼한 부부가 갈라서거나 한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부족(tribal)가족은 보통 생물학적인 기초보다는 사회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여러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의 자매들이 어머니라 불릴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남자형제들도 어린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서구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촌형제들은 자매와 형제들로 불린다. 이러한 유형의 가족은 부모가 많기 때문에 거의 고아를 만들지 않는다.

일부다처제 가족에서는, 모든 아내들이 (드물지만 남편들도) 자신의 배우자와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물학적인 가족의 거주지는 반드시 자식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한 우두머리 아래에 여러 가족단위가 연대하기도 한다.

재구성 가족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가족형태에서, 재구성은 결혼이나 재혼이나 전 배우자의 자식과의 동거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재혼과, 이전의 관계를 뒤이어 또 다른 관계를 가지면서 관습법하에 함께 사는 것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한 배우자나 양 배우자가 함께 살거나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를 가질 수 있다.

배우자는 생물학적이든 입양에 의한 것이든 아동과 함께 살거나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동은 여러명의 이복 자매와 형제, 이복 조부모와 기타 비혈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아이에게는 새로운 자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로 읽힌 재혼이 있는 경우, 재혼이 확대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상호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진다.

공식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아닌 사람들은 상호부조 공동체내에서 살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곳은 여러명의 핵가족과 독신들이 함께 모여 산다. 부부와, 아이들을 돌보는 소규모의 여성들로 구성된 가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가구와 구별하기가 힘들다. 또한, 한명의 어머니(house-mother)나 아버지(house-father)를 가진 몇몇 아동 시설은 스스로를 확대가족으로 간주한다.

여러가지 유형의 가족들이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가족의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재구성가족
생물학적	3세대	재혼 a
사회적	친족	공동체 생활
편부모	부족	동성 b
입양 c	일부일처제 b	
제외수정 b		

a 이혼은 모든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b 법적 지위는 단지 제한된 나라에서만 강화되어 있다.

c 법적 입양이 인정되고 있는 많은 나라의 경우.

2. 가족의 기초 기능

가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모든 가족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보고, 가족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 배우자간에 정서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유대 형성
- (b) 배우자간에 생식과 성관계
- (c) 특히 자녀들에게 이름과 지위 부여
- (d) 아동과, 많은 경우 노인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양육제공
- (e) 자녀들과 나아가서 부모의 사회화와 교육
- (f) 가족성원의 보호
- (g) 가족성원의 정서적 보호와 오락
- (h) 재화와 용역의 교환

여기에 열거한 기능들은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문화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통 서구사회에서 핵가족은 정서적 기능,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애정이 강조된다. 확대가족은 "혈연유대를 존경하고 충성해야 할 원리에 기반을 둔다. 결혼은 그러한 유대에 따라야 하며 다른 식은 안된다. 모든 성원의 역할은 동일한 혈연을 나눈 사람들과의 책임에 의해 관리된다. 신과 조국을 제외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특별한 기능에 부여된 우선순위는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다르고, 구혼, 결혼이나 동거, 첫 아이의 출산, 막내 자녀의 출가, 노년기 부부의 경제활동 중단, 이혼의 가능성, 가족원의 죽음 등 그 가족이 도달한 단계와 전환점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간의 유대형성

가족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종종 두 성인이 함께 살기로 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상에 의존하면서, 결혼은 전통적인 의식에 의해서, 법률혼에 의해서, 동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 애정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계는 가족생활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루는 주요 책임은 물론 가족 자체에 부여된다. 왜냐하면 관계의 커다란 부분은 사회심리적이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유대에 덧붙여, 결혼은 배우자의 친척과의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 법적 비공식적인 경제적 유대증도 생겨나고, 역사를 통해 결혼은 부와 권력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결혼 및 이혼, 배우자 관계 그리고 가족성원간의 경제적 권리와 책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은 모든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그러한 규칙이 없으면 일반적인 법률혼의 관계가 끝날 때 문제를 야기시킨다.

오늘날 단지 22개국 만이- 대부분이 선진국 - 결혼과 이혼과 가족 재산의 문제에서 성간의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양성간의 불평등이 아직도 전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혼에 대한 법적 최저연령이 있다. 이는 아동을 조기혼인에 의해 생되는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법적 결혼연령을 12세 내지 14세 정도로 낮게 정한 나라들도 있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강제가 없는 나라들도 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백만의 아동 신부들이 생기고 있다.

어떤 문화적 전통에서는, 가족이 배우자를 선택한다. 장차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 축복받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그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연대를 지속시키기 위해, 부모가 그들 자녀의 결혼을 조정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은

요즈음은 종종 거부된다. 왜냐하면 가족의 사적인 자유를 해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대해 아무런 원조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젊은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어떤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가족생활을 위한 비공식적인 훈련은 주로 가정내에서 이루어진다. 더 많은 공식적 훈련이 필요하기때문에, 가족생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나 교회나 사회기관에서 제공되는 나라들도 있다.

결혼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현상들은 두 배우자에게 새로운 가족에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여러해에 걸쳐, 배우자들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충분히 기능적인 배우자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혼에 불만족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가장 좋은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충고를 해줄 사람이나 조정인을 찾는다. 배우자간의 관계가 일방에게 혹은 양방에게 모두 부담이 되기 시작할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혼이나 별거는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혼은 늘 가족에게 정서적인 긴장을 준다. 어떤 전문가들은 생활의 전환점들을 예식으로 강화시키라고 제안한다. 이혼시에도 배우자 관계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식과 같은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간의 생식과 성 관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결혼과 동거는 성 관계를 사회적으로 합법화하는 방식이다. 피임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성성이 생식과 구분되고 있다. 성관계는 여전히, 배우자를 연결하는

생물학적인 바탕이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근친상간 금지, 구혼 예식, 종교적 결혼 법규, 시민차원의 결혼법규 등 각종 성적 규제들은 사실상 성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제이며, 인간의 역사는 성을 통제하려는 다양한 기제를 갖고 있었다.

인구가 새로워지는 것이 모든 사회의 생존에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가족들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가족 계획의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가족의 건강에 매우 필요하다. 더구나, 재생산에 대한 정보는 젊은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10대의 임신할 경우 매우 중요하다.

모성 건강보호의 기술적인 진보는 영아와 어머니의 생존률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보건사회사업가와 모성 건강 클리닉들이 이러한 현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많은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어도 2년간의 터울을 가져야 하고 자녀수는 4명을 넘으면 안되며, 18세 이전에는 임신을 삼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산전 모성·영아의 건강보호를 증진시키는데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보건 사회사업가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모성 건강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나라들은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모성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 재정적인 보조와 각종 급여를 주고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어 차별문제가 심각한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것은 영아 사망률로 나타나는데,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훨씬 더 높다.

임신은 가족 전체를 지지하는 적절한 시기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족의 생애주기상 새로운 단계이며, 새로운 행동방식을 요구한다. 성인들은 가족내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 모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두가지 역할은 매우 다르며, 배우자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되기에 덧붙여 여성들은 계속해서 아내이며, 남성은 남편이며 아버지인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명심해야 하며, 종종 일어나듯이 어린 자녀에게 보호자로서의 존재를 부담지워서는 안된다.

양성을 위한 부모훈련은 경험이 부족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자원센터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과 아동양육 및 부모 역할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보급할 수 있다. 특별히, 전세계적으로 책임감 있는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 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아버지가 자녀의 출산을 돕고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은 자녀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다른 의미있는 가족들(할아버지와 친척)이 아동과 긴밀히 결속되어 있으면, 아동이 가족성원에 의해 학대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아동의 탄생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일하는 부모에게는-특히 핵가족 단위의 가족에게- 보육의 문제가 생긴다. 가족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아동의 양육을 위한 보조금의 형태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보상과 함께 육아휴직의 권리를 가지며, 휴직 이후에는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부모휴직이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나라들도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동이 자립하기 전까지, 부모들이 세금공제나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기도 한다.

가족성원에게 이름과 지위 부여하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회의」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사실상, 결혼한 부모에게서 자동적으로 태어난 아동은 가족의 이름을 갖고 특정한 법적 권리-이를 테면, 가족재산의 상속-를 누린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법적 자격은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미혼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나, 고아나 유기된 아동이나 입양아에게, 이름과 지위는 종종 특별한 관심사가 된다. 미혼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다른 아동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입양법은 입양아에게 생물학적인 아동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모든 아동들이-결혼전 동거에서 태어난 아동이거나 결혼기간중에 태어난 아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여아와 남아에게 똑같이 중요하며,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자격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아동이 혼외로 태어났다면, 아버지는 아동을 돌볼 누군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아버지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을 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아버지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父權을 소송중인 경우, 보통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권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많은 나라에서 별거나 이혼 이후에 아동을 함께 양육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모 양측에게 아동(들)의 보호와 관련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

아동과 친척의 기본적 양육

아동과 다른 가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다.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이나 노령의 친척 보호가 가족에게 남겨져 있다. 가족이 제공하는 지원이 없이는, 많은 병자와 장애인과 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선진국의 사회정책 상황에서도, 가족 성원들은 현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있다.

아동을 위한 보호는 여전히 가족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아는 생존하기 위하여 상당한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발달은 신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정서적인 관여를 필요로 한다. 부모됨은 학령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후에도 중요하다. 적절한 훈련과 지원이 없이는, 이러한 책임은 많은 부모에게 특히, 확대가족이나 친족의 지지체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 1억의 아동들이 해마다 자신의 가족에 의해 신체적으로 방임되며, 그 중 많은 아동이 가혹한 노동과 범죄에 연루되어 길 거리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운명이 된다.

많은 문화에서, 아동보호의 옛 전통은 더이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확대가족구조의 不在로 인하여 옛날의 친척들은 자신의 지식을 이전시킬 수도 없고 어린 세대들을 지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은 아동이 어리고 10대일 때 가장 요긴하다. 아동기의 끝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어렵기 때문이다. 10대 때에 부모와의 갈등은 거의 피할 수 없다; 사실상, 갈등은 사회화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다루어진다면, 아동은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개발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부모들이 적절히 갈등에 대처할 기술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10대들이 조언자로서의 부모를 거부하고 지지와 지도를 해 줄 또래나 가족밖의 다른 어른들을 찾게 된다.

부모 모두가 취업하는 경우와 편부모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 아동을 위한 보육이 특별히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 아동을 위한 비-부모 보호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모가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모나 형제나 다른 친척들에 의한 여러

유형의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가 점차로 보육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자신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탄력적 근무시간을 선호하고 있다. 부모가 저녁과 밤중에도 일하고 있을 경우는 그 시간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필요해진다.

몇몇 나라에서는, 부모중 1인이 자신의 일을 잃어버릴 위협없이 자녀가 어릴동안 집에 머물 권리를 가진다. 가족은 지역사회와 탁아소에 낮은 가격에 아동을 맡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른바 가정탁아를 받을 수도 있다. 아동이 아플 때, 부모의 1인은 직장에서도 유급휴가를 따낼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는 각 아동에게 아동 양육-수당을 주기도 한다.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및 경제적 급여는, 항상 결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가 기혼 부부에게 주어 지느냐 가족에게 주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제 감면과 기타 보조금이 독신과 동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의존자를 보호하는 것은性に 기반을 두어 왔다. 아동과 노인과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여성이었다. 가사의 분배역시 마찬가지인데, 좀 더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여성이 부가적인 책임, 예를 들면, 가정 밖의 작업이나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볼 때, 이러한 필요는 더욱 커진다.

많은 아동과 장애인과 노인이 있는데 가족의 부양자가 아프다면,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 등을 통해서 복지 지원서비스가 가족을 돕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가족이 가정에서 노인친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보호의 별도 비용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해 준다.

아동의 사회화와 교육

가족은 아동을 교육하고 사회화시키는데 도전적인 과업들을 가진다. 재정적인 부족기에도 이러한 노력을 줄이려는 것은 단기적일 뿐이다. 교육은 아동과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이 학교에서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는,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특별히 교육에서는 성간의 동등한 권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가족의 건강과 규모와 아동의 공간과 가족의 경제적 안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아동의 교육자로서의 가족의 책임도는 문화마다 다르다. 모든 곳에서 아동의 사회화는 사회가 교육과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정 연한 동안 학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와 교육의 질은 상당히 다르다. 많은 나라에서 제도적 교육은 자유롭고, 아동들은 필요한 장치와 자료들을 제공받는다. 가족들은 자신의 아동을 기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늘 아동의 권리로 생각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가 그렇다 1억 2천만으로 추정되는 6세에서 11세의 세계의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7명 중 1명의 학생이 2학년이 되기 전에 탈락된다 이러한 것은 자기가 태어난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이 앞으로 만들어 갈 가족에게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식 교육에 덧붙여, 가족은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성숙을 돌보아야 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자기이해와 자기존중이 개발되는 곳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전수할 책임도 있다. 전통은 가족내에서 학습되고 풍부해진다: 전통은 일상의 가족생활에서 바뀐다. 미래의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습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부모가 유아기에 보인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행동과 전통은 세대간에 이어지는 유산의 큰 부분이다.

가족구성원의 사회화에 있어서, 형제와 다른 아동들의 역할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형제들의 존재는 보육원과 학교와 기타 장소의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족밖에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아동의 발달은 특별한 프로그램, 모험캠프, 클럽, 예술, 스포츠, 동식물의 양육, 펜팔친구와 기타 친구 프로그램들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아동행위가 자기 부모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잊혀져서는 안된다. 아동 역시 순간 순간 부모를 사회화시킨다. 부모는 자신의 아동으로부터 아동발달과 또래 및 형제의 관계, 학교, 패션, 사회의 변화를 배운다. 특히, 이민과 피난민 부모는 자기 아동으로부터 새로운 나라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긴장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풍부해진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가족성원의 보호

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가족원 특히, 심리적 · 신체적 · 성적 ·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폭력과 학대가 가족내에서 일어나고 종종,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서 보호받아야 하기도 한다.

옛날의 전통에서는, 아버지 혼자서 갓난 아이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졌다. 가장은 자신의 권력을 배우자와 자녀와 노예에게 행사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부권주의의 형태는 여전히 전 세계에 존재한다. 문제는 세대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폭력의 범행자는 가족폭력의 희생자였을 때 이러한 행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가족폭력은 주로 숨겨져 왔다: 최근에야 좀 더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성을 지지는것, 살해, 부부간, 가족 성원에 대한 구타와 기타의 폭행, 아동에 대한 만연한 성적 학대를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와 폭력의 위협은 가족성원에 대한 숨겨진 상처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내의 가장 빈번한 폭력이 아내에게 가해지고 있으며, 주요 범행자는 남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게 구타당하는 아동들도 있다. 더구나, 나이드 가족원, 특히 여성노인은 성인 자녀에게 매우 취약하다. 아프고 장애가 있는 가족성원은 다른 성원에 비해 더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된다. 일부다처 가족에서 부인중 한명이 또 다른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확대가족에서는 여성 가족원이 남성 · 여성 친척들로부터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형법이 가정폭력과 결혼상의 강간, 신체적인 아동 체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내의 권력의 오용에 대한 민감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단지 4개국만이 부모의 아동체벌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0년이 넘게 이 법이 효력을 발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아동학대를 크게 줄여 왔다.

더 공격적인 폭력의 유형도 있고, 소위 소극적인 폭력도 있다.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아동보다 더 많은 유기되는 아동이 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는, 가족의 일부가 자신의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는 효과적인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낼 의도가 부족하거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방지와 아동보호의 분야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다. 폭력은 지배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부터 생기는 권력의 남용이다. 길게 보면, 인간의 권리의 증진, 더 나은 교육과 여성지위의 향상이 요구되며, 공공교육이 다른 인간의 지배나 혐오의 태도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성인 학대자는 보통 아동도 학대하거나 방임한다고 한다 성인 학대자의 치료는 반드시 상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담은 학대자의 학대와 방임의 유형들이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유래된 것임을 인식시켜 주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위기에 있는 가족에게, 가장 전망있는 예방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발전과 힘을 강조하고 촉진한다. 단기지원과 치료적 지원 및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쉼터, 아동의 법률센터, 핫라인, 치료프로그램 등이다.

가족성원의 정서적 지지와 오락

가족들은 자기 성원과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정서적 지지 친밀, 이해와 지지의 주요 장소이지만, 감정이 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가 지속적으로 적대적이거나, 지나치게 소유적이거나 기타의 긴장된 것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가족의 정서적인 환경은 전체 사회의 성역할과 행동모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에는 대중 매체에 의해 강화된, 여성과 남성과 어린이의 역할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여러가지 신화가 존재한다. 명시적 암시적 규범들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여건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규범도 따라서 변한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규범은 건전한 정서적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가정 밖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가족내에서 긴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여성은 자신의 남편에게 양육적인 인식처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학교에서나 또래들과 생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안정을 주려고 노력한다. 일하는 여성은 가족밖에 서 자신의 일에 직면하며, 집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긴장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가정내의 일하는 여성에게도 똑같다. 여성의 정서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정서적 보호의 부담이 전혀 공유되지 않을 때, 여성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심히 분개할 것이다 남성들이

늘 가족 구성원에게 양육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갖고 있거나 준비된 것은 아니다.

육체적인 가사노동의 분업처럼, 가족 성원들을 정서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어서 성에 기반을 둔 노동분업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가족내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것은 여성에게 또 다른 긴장을 부가시킨다. 확대가족의 지원이 거의 없는 가족이나 편부모가족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평형을 위협하게 할 정도로까지 긴장-조정 기능을 찾는다. 다른 가족구성원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화신을 줌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은 가족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나눌 필요가 있다.

어떤 가족에서는 일부 가족원만이 이러한 기능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기능이 공유되지 않는 가족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결국, 타인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원망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활력喪失(devitalization)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긴장은 遭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가족성원에게 더 많은 긴장을 야기하며 가족의 붕괴도 낳을 수 있다.

때때로 주어지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의 지원은 건강한 정서적 관계를 촉진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그러나 다른 방식이 있기도 하다. 많은 문화권에서, 종교 제도, 의료 관계자, 상담자, 사회사업가, 교사나 기타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 몇몇 나라에서는, 가족을 돕는 가족자원센터같은 서비스와 가족생활 방식을 더 만족스럽고 적절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서비스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족과의 동등한 동반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화와 용역의 교환

노동력이 가족 외부로 옮겨가고 가족 성원이 유급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이 생산의 단위에서 소비의 단위로 변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특별히 경제적 긴장의 시기에는 많은 가족이 여전히 자신의 생산 단위로서의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많은 기본적 용역-예를 들면, 요리, 세탁, 일상의 경제적 자원관리, 교육과 오락-의 주요 제공자이다. 집을 포함하여 이러한 물질적 자원은 가족을 유지하고 생활수준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다.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수입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가족내 노동분업의 문제가 통상 언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처리하도록 내버려진 여성에게 가사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되고 있다.

유급 및 무급의 경제활동과 무급의 가사에 투여하는 시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북미와 호주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원칙에 의하면, 가사와 부모됨과 가족의 책임을 남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은 진보를 위한 필수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소녀들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도 가사일과 가정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가정봉사원, 가정간호제, 임시보호(respite)같은 서비스는 매우 요긴하다. 많은 나라에서, 고용과 가족의 생활을 조화시키고 쉽게 결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요구되고 있다. 봉급 작업조건, 작업시간과 육아휴직등은 가족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생존과 아동양육 기능을 수행하게도 하고 수행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노동과 여가에 소비하는 시간의 비중이 변하면서 가족의 생활패턴도 변하고 있다.

가사를 분담하고 가족수입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역할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은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유입되기도 하며, 막중한 가사일을 수행해야만 하기도 한다. 5천만이 넘는 아동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다. 그들은 불안정한 작업조건에 시달리기 쉽고, 기본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박탈당하기 쉽다. 선진국에서 10대들은 집안일은 어른들에게 미룬채, 자신의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방과후에 일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을 유지하는 작업에서 아동의 일정 부분의 참여는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기도 하다. 어떤 가족도 가족의 유지를 위한 아동의 재정적 노동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가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때로는 힘들지만, 중요하다. 많은 경우 이들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가족의 생활은 가족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가 경제, 실업, 주택부족, 기타의 변화들이 전세계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은 빛과 싸우고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했다.

별거와 이혼은 가족자원에 특히 여성과 아동의 빈곤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편부모와 아동유지의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은 편부모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확대친족의 관계망에 접근하는 것이 많은 사회에서 역시 중요하다. 가족의 크기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가족내에는 의지할 사람이 얼마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질수록 3세대의 잠재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성원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세대간의 수입이전은 양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자녀가 없는 가구는 공부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신이나 1인 가구는 가족 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노부모와 기타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정책의 목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회는 종종 가족을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자로 간주한다. 정부의 정책은 개인과 가족에게 공공 재원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급여와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가 적을수록, 개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게 되므로 개인의 복지는 가족의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얼마나 가족들이 강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동부 유럽이다.

1950년대에 정부가 확고한 통제경제를 취하고 마을 주민에게 소규모의 농장을 허용했을 때, 가족들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가정의 소비용 뿐만 아니라 판매용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처럼 몇몇 나라에서는, 돼지사육과 같은 분야에서 가족 농장의 개별적인 생산품이 국가-협동조합의 생산품을 앞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개별적인 생산품은 농장 작업에 가족성원 모두가 참여한 덕이다. 시장 경제를 재구조화하려는 시도중인 나라에서, 소규모의 가족기업이 이러한 힘을 갖고 모든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다.

3. 가족처럼 친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반 사항

전 세계에서, 가족들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비록 이러한 변화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소규모 핵가족, 이혼의 증가, 가족성원의 수명연장, 가치관의 변화와

(후기)산업사회적 경제의 변화로 인한 성원간의 관계의 변동.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변화, 가족자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장은 모든 가족을 위해 더 친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몇가지 일반적인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문제가 단지 가족내에만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의 해결책도 가족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 위협에 처한 가족들은 "위기의 가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가족"으로도 간주되어야 한다.

욕구의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효과적인 법제와 가족정책, 가족기능을 강화할 서비스와 급여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그 나라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가족 기능성의 수준 파악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자는 가족기능의 상황을 국가 사회내에서 인식해야만 한다.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건, 가족들은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그 가족의 능력, 무능력은 실질적인 것이며, 정책개입을 위해 특별한 표적을 떼어 미충족된 욕구를 규명하려는 가치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에는, 주요 영역에서의 가족의 기능성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장애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간의 비교기준을 제공할 방법론과 측정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다. 가족 기능성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는, UNDP가 해마다 펴내는 Human Development Report의 국가간 연구를 모형으로 했는데, 이는 교환이 용이하며, 국가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점과 가족정책의 진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들이 제공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혼란

가족의 경험과 궁극적으로 가족의 안녕은 복잡한 사회·경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정된다. 가족정책은 반드시 "경제적"과 "사회적" 인것 간의 인위적인 구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회적'쟁점으로 다루어질 때, 가족관심사는 너무나 경제정책 분야와 유리된다. 경제정책에서의 주요 결정들은 가족의 생활과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그러한 구획화는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경제개발과정에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가족의 강화 구축

기능상으로 가족은, 상당한 적응력, 탄력성, 내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 가족정책은 가족이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힘과 역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와 함께 힘의 증강과 협의의 수준은 가족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들이다.

가족들은 자신의 일에서 전문가이며, 참여적 접근과 기타의 환류를 통해서 의사결정, 정책형성, 서비스 고안 및 평가에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얼마 안되는 가족단위만이 외부의 지원과 공공지원이 없이 스스로 생존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가 시민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도덕적인 의무이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저마다의 국가에서, 개입의 수준은 상당히 틀리다.

가족은 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고 실제로 한다. 힘을 북돋우는 사회정책과 참여적 접근은 이러한 기능의 범위를 확장시켜 줄 것이며, 가족정책은 또 다른 가족자원이 될 것이다.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지가 되고 강화를 시켜주는 공공 서비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약점에 반응을 하기 보다는 강점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가족규범의 다양성 인식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다. 개별 가족의 생활주기도 변하고 있다. 가족처럼 친밀한 사회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사회이며,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가정의 경험이지는 독특한 상황과 잇점과 불리한 점을 고려하는 사회이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간의 관계는 정책입안자와 입법가의 주의를 끌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4. 결론

아직도 가족을 강화하고, 주요 기능을 지원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및 가족들 자체의 결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들의 상황과 욕구가 査定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서비스와 법 및 급여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능주의자들의 가족에 대한 시각은 복잡하고 중요한 인간 경험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정책의 시각에서 보면, IYF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하나의 시각도 많은 것을 준다. 우선, 가족의 여러 형태간, 문화와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규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공통점은 가족생활의 경험일부로서 규정된다. 더구나 기능주의적 접근은, 가족은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인, 가족성원의 복잡하고 변화하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라는 측면에 주목한다. 아직도 기능주의적 견해는, 가족이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말할 때, 장은 의미들을 포착하는 듯하다.